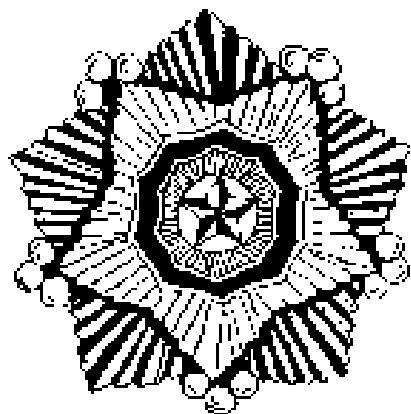




4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04)년 제4호

(루계 제 678 호)

◆◆◆◆◆◆◆◆◆◆ 차 례 ◆◆◆◆◆◆◆◆◆◆

인민의 영원한 고향집	4
사랑에 젖어 눈물에 젖어	4
총대의 봄	5
품	6
수령님의 국사	20
길들여진 호랑이	21
어랑타령	24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여 부른 민요 《어랑타령》에 대하여	24
수령님 추억속에	26
금수산기념궁전 하늘가에 새벽까지 우짖네	26
수령님의 록음기	27
명언해설	29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시며	30

수령님과 가을	31
칠골집 우물	31
영원한 노을	32
그리움은 나의 삶	43
군중문학운동에서의 근본적인 혁신	44
명언해설	46
옮겨주신 네 영웅의 묘	47
최전선에서 부른 노래 승리를 떨치자, 영광을 떨치자	48
사랑의 최전연	48
전선의 아침	49
령장의 고지	50
어머니에게 보내는 병사의 편지	50
위훈의 령마루에 병사들이 산다	51
연을 띄워라	51
신념과 의지의 인간에 대한 진실한 형상	52
태양-나의 소원	58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60
병사들과 처녀들	60
사라지지 않는 별	61
열쇠	65
물길둑에서	79

인민의 영원한 고향집

김 승 남

화창한 4월의 이 봄날
만경대고향집뜨락에 서니
우리 집에 찾아오셨던
40년전 그날
어버이수령님 그 모습 안겨와
내 가슴 진정할수 없습니다

내가 뜨락에만 잠깐 들렀다가
떠나갔다는걸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하시며
되돌아오시여 집에 들어서시던
그날에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가슴을 칩니다

아, 언제나 그 언제나
인민의 집은 자주 찾으시는분이셨기에
잡곡밥도 시래기토장국도 달게 드시며
온밤 꺼질줄 모르는 등잔불빛속에
할아버지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셨습니다

불수록 가슴뜨거워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탄생하셨기에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인민과 꼭 같은 그이
인민을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 다 바쳐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아, 햇빛찬란한 만경대의 고향집이 있어
백두밀영고향집이 더욱 빛나고
백두위인들의 고향집이 이 행성우에서
세계의 요람으로 인류를 품어주고있어
일심의 강성대국 빛발치는 추녀아래
가장 행복한 인민의 집들이 빛나고있는것 아닙니까

아 강성대국건설의 큰 지붕아래
우리모두를
가장 행복하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일심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들여세운 집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을 낳은
대대손손 안겨살 인민의 영원한 고향집이여

사랑에 젖어 눈물에 젖어

김 국 용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은
사랑에 젖어 눈물에 젖어
불덩이같이 뜨거운 한평생
수령님 여기에 자신의 한생만을
쓰지 않으셨거니

한밤에 천리길을 걸으시여
동지 한사람한사람 소중히 얻으시고
그 동지를 위해 사선천만리길도
웃으며 헤치신 우리 수령님

이름 한자 남기지 못한채
이역의 초야에 묻힌 못잇을 전우들
먼 세월넘어 안아다
이 책우에 불멸할 모습으로 세우셨고

장구한 세월 거대한 심장속에
그리고 깊이 새기고계시던
사랑하는 전사들 한사람한사람
빠짐없이 불러불러

항일의 영웅으로 내세우셨거니

아, 동지애로 불탄 위대한 생애가
동지애로 빛내인 거룩한 한생이
태양의 빛되어 뿌린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사랑이
자자구구 열을 뿜는다 향기를 풍긴다

수령님 사랑의 눈물로 쓰신 책
사람들 다시 눈물로 적시나니
사랑에 젖어 눈물에 젖어
불덩이같이 뜨거운 수령님의 한평생
식을줄 모르는 동지애의 열로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우리 심장 달구어주리

총대의 봄

신문경

해빛을 향해 선 해바라기들인가
청년장군을 모시고 반일인민유격대 붉은기를
날리며
안도의 등판에 정렬한 첫 무장대오에
봄맞은 마음들이 피었다
봄맞은 산천이 웃는다

꽃이 피어도 기쁨을 모르던
새가 우짚어도 봄을 모르던 가슴들에
밤바다의 등대처럼
어둠속의 횡불처럼 타오른
자주적총대의 첫 대오

이 총대의 불길로
망국의 한숨 태워버릴
그 뜨거운 숨결로 후더운 곳
탄생의 이날은 진정 봄이었다
총대로 맞이한 조선의 봄이었다

열병광장도 아닌 등판에
김대장 올리신 불같은 선언은
이 세상 모든 불의를 향해 터친
우렁찬 봄우뢰소리

침략과 압제에는 총으로만 대답할
진정한 총대주인의 그 퇴성에
민족의 존엄이 태동하고
압제의 얼음장은 산산이 부서져나갔나니

총대에 어린 열혈의 뜨거움으로
총대에 비긴 정의로움으로
멸적의 서리발우에 불같은 사랑이 흐르는
탄생의 봄
아름다운 총대의 봄모습이어

그 총대로 우리 수령님
광복의 봄을 이 땅에 안아오셨고
그 총대를 드시고 우리 장군님
이 땅에 선군의 봄을 화창히 꽃피우시나니

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절대의 진리로 뜨거운 총대의 봄
첫 혁명무력의 탄생은 오늘도 선언한다
총대가 있는 조국은
영원히 따뜻하리라

품

김 준 학

초여름의 한밤은 바닥없이 깊어가고있었다.

나는 책상위에 놓여있는 마지막 서류봉투에 사뭇 피로해진 눈길을 던졌다.

로씨야에서 보내여온것이였다. 결면에는 《싼크트 삐제르부르크. 빠웰 이싸첸코의 아들이 보냅니다.》라는 글이 로어로 씌여있었다.

(빠웰 이싸첸코? 그가 누구이던가?)

나는 분명 그 언제인가 나와 인견이 있었던듯 싶은 《이싸첸코》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더듬어보며 봉투를 개봉하였다.

오랜기간 인민보안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해온 나는 이렇게 외국인들한테서 우편물을 받는 일이 드문했었다.

(빠웰 이싸첸코... 그 사람이 아닐까? 리지적이고도 상냥한 그 쏘련군 대좌... 그가 틀림없다!)

느닷없이 착잡하고 조급해진 나의 눈길은 봉투에서 나온 그의 아들의 편지에 가있었다.

《존경하는 라명국각하!

저는 귀국의 광복직후 평양주둔 쏘련군에서 복무한 경력을 가지고있는 빠웰 드미트리예비치 이싸첸코대좌의 아들입니다.

그 시기에 당신과 맺은 각별한 우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있던 저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얼마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운명직전에 저에게 자신의 일기장(조선에서 썼거나 조선에 대해 쓴것)을 꼭 당신에게 전해줄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부친의 유산상속자인 저에게는 이 유언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저는 그 의무에 따라 각하게 이 일기책들을 정중히 보내드리는 바 입니다.》

그가 운명했던 말인가? 하긴 여든고개를 퍼그나 넘겼을 고령의 몸이니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리라. 나는 함께 늙어온 벗을 먼저 떠나보내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조객의 마음으로 그의 명복을 빌었다.

나의 눈앞에는 《메드베지(곰)》라고 불리울만치 우람찬 체격이며 깊숙이 눌러쓰군 하던 군모아래의 록주석처럼 새파랗던 눈동자며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하던 이싸첸코의 순박한 얼굴이, 자기의 쏘

베트조국과 공산당에 대한 공지와 신뢰심이 남달리 강렬했던 그의 모습이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선명히 떠올랐다.

어느결에 돋보기를 다시 건 나는 깊은 추억과 감회속에 이싸첸코의 퇴색한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1945년 11월 6일 화요일

오늘은 우리 집단군이 **김일성**장군님 령솔하의 조선인민혁명군과 연합하여 일본제국주의를 일거에 격멸하고 국제적협약에 따라 평양에 입성한지 한달보름이 되는 날이다...

총소리마냥 야무지게 울리는 전화종소리가 밤늦어 겨우 풋잠에 들었던 나를 흔들어깨웠다. 습관적인 동작으로 침대우에서 팔을 뻗쳐 송수화기를 들었다.

《뭘라구, 병영안의 무기를 탈취하려던 범죄자 두놈을 현장체포했다구?! 알겠소. 곧 이리로 호송해 보내시오!》

단잠을 깨운 화풀이를 하듯 나는 팡- 하고 송수화기를 던져놓았다.

너무도 피곤하여 오늘 일기 쓰는것마저 미루고 잠자리에 들었던 나로서는 그럴만도 했다.

갓 광복을 맞이한 조선의 국내정세는 나날이 복잡다단하고 치열한 양상을 띠고있었으며 그 반영인 사회치안과 질서 역시 혼란속에 날과 달을 맞고있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 감행되군 하던 쏘련군병영에 대한 습격과 무기탈취행위는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었다.

그것은 명백히 쏘련에 대한 적대행위로서 범인들은 응당히 쏘련의 군벌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군 하였었다. (북조선에는 아직 립시정부가 수립되어있지 않음.)

저저마끔 산발적으로 들려오던 개짖는 소리들이 증증해질무렵 동평양지구의 사회치안과 질서유지를 전임한 쏘련군대표인 나의 방(나는 침실 겸 사무실로 리용하고있다.)으로는 두명의 범죄자들이 끌려들어왔다. 바람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몸부림을 치는 등잔불빛에 맞추어 벽면에서 훌쩍훌쩍 도깨비춤을 추고있는 그림자의 입자들에게 짐짓 엄한 눈초리를 돌리던 나는 그만에야 어리둥절하여 자리에

서 일어났다.

두손을 결박당한채로 끌려온 엄중한 무장탈취범들이란 너무도 작은 사람들이었기때문이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모두 여위고 가냘픈것이 꼭 10대의 소년들 같아 보였다. 아니, 분명 그들은 소년들이었다. 얼핏 보매 귀엽다고도 할수 있는 두 범죄자들은 태어나 지금껏 목욕이란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듯 꿰진 신발 앞코승이로 알망긋게 빠져져나온 발톱으로부터 귀바퀴의 곡선까지 온통 때덕지로 알락달락 모자이크를 한듯 했다.

마치도 타다 꺼져버린 돌탄덩이같은 물골들이었다. 그 《인간버럭》들을 경원의 눈길로 굽어보던 나는 한 소년의 얼굴이 낯익어 찬찬히 뜯어보았다.

호두알처럼 둥글고 매단단한 이마며 손끝으로 튕겨주고싶도록 당당한 코모양이 무척 귀인성스러워 보이는 그 소년을 나는 어디선가 이미 만난듯 싶었다. 오른쪽 불편에 보조개처럼 속 들어간 허물자국, 분명 그 소년이였다.

《애야, 네 이름이 뭐냐? 개떡쇠가 아니냐?》 하고 물었다.

아마 나의 조선어발음과 억양이 서투른 탓인지 풍성한 왜군의 군복을 입고 서있던 그 애의 두볼에 언뜻 웃음의 곡선이 그려진듯 싶었다.

아니, 흔들리는 등잔불빛에 의해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침묵에 격분한 호송병이 다급하게 그 애의 잔등을 총끝으로 꺾꺾 찔러댔다. 그제서야 소년은 《예, 그렇게 불러요.》하고 대답했다.

《개떡쇠, 그럼 넌 날 모르겠느냐?》

나는 추위에 떠는 겨울참새처럼 까맣까맣한 그 애에게 연해연방 다우쳐물었다. 나를 올려다보던 그 애는 얼른 눈을 크게 뜨더니 엉겁결에 그만 고개를 푹 꺾었다.

나의 기억은 틀림없었다. 닷새전 일이었다. 그때 이 개떡쇠는 대낮에 우리 쏘련군병영에 몰래 기여들었다가 보조에게 붙잡히자마자 곧바로 그곳에 나가있던 나에게 끌려왔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빠져져나온 엄지발가락으로 땅바닥을 호비작거리며 구원과 용시의 상형문자를 그리고있는 조선소년, 벌주기를 기다리며 공손히 머리숙이고 서있는 그 애를 보니 불현듯 나의 아들 싸샤가 생각났다.

그 애도 어른들에게서 꾸지람을 당하면 바로 저 애처럼 발끝으로 뭔가 저도 알지 못할 상형문자를 반복해그리곤 했었지. 나는 순간적으로나마 조국에 두고 온 나의 아들을 상기시켜준 그 조선소년이 애

투스해보였고 가엾은 그 물골에 퍼그나 동정이 갔다.

소년은 자기의 이름을 개떡쇠라고 했다. 개떡쇠-아마 그것은 그의 본명이라기보다 별명에 가까운 부름말일것이다.

조선인들에게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속되게 지어 불러야 악귀가 심술을 부리지 않고 또 사주팔자에 예정되어있는 숙명적인 재액이나 화를 당하는 일이 없이 온전히 성인으로 자라나 가문의 대를 이을수 있다고 믿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소년의 나이는 열네살이라고 했다.

그러니 나의 아들 싸샤보다 다섯살이나 우인셈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 애는 《어-없어요. 모두 죽었대요... 난 집도 없어요...》 하고 울먹울먹하며 떠듬떠듬 대답했다.

아, 그러니 넌 고아로구나!

부지불식간에 나는 그 애와 나의 과거의 처지의 공통성에서 산생된련대감 비슷한 이상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나도 고아였다. 공민전쟁때 백과놈들에게 부모를 다 빼앗긴, 마치 어미새를 잃고 등지뱀으로 내버려진 새새끼와도 같은 불쌍한 몸이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력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승리한 볼셰비크당과 레닌 그리고 공민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주저없이 모스크바 쏘베트 제1어린이극장(후날 이 극장은 력사상 최초의 아동극장으로 공인되었다고 한다.)을 일떠세워준 고마운 쏘베트조국의 품에 안겼기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그때 나는 불쌍한 조선의 한 고아소년이 아니라 어제날 방랑시절의 《나》와 마주 서있는듯 한 환각이 들었다.

나는 곧 그 애를 놓아주도록 명령했다. 내 주머니를 뒤져 얼마간의 돈도 그 애에게 쥐여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개떡쇠가 지금 내앞에 범인으로 끌려와있지 않는가. 나는 실망했다. 개떡쇠와 함께 끌려온 소년의 이름은 《리덕만》이라고 했다.

덕만은 개떡쇠보다도 더 작고 가냘퍼보였다. 그 애도 역시 고아였다.

나는 호송군관이 가져온 문건을 읽어보았다. 그에 의하면 야음을 리용하여 병영에 접근한 그들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보조를 판곳으로 유인한 다음 감쪽같이 무기고에 잠입하여 수류탄주머니와 탄약들을 훔쳐가지고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특히 개떡쇠소년은 사전에 병영을 구체적으로 《정찰》하고 오늘의 습격을 단행했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그 애를 놓아보낼날 그는 습격대상 물에 대한 사전정찰을 왔었던 말인가? 그것도 시퍼런 대낮에?!

《이자들을 당장 구류장에 걸어넣으시오!》

나는 칼로 베타 단호하게 명령했다.

래일 그들은 예심에 넘겨질것이다.

나는 끌려가는 그들을 외면한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로는 유별나게 등근달이 떠 흘러가고있다. 백야의 신비경을 련상케 하는 정취로운 달밤이다. 허나 이밤 만월의 흐뭇한 그 모양마저 나에게는 공허의 수자 0처럼 보인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령의 나라 조선이다. 30대의 젊으신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로 떠받들고 건국열기로 들끓고있는 오늘의 신생조선, 나라는 찾았으되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 땅 그 어디에도 정처없이 방랑하는 저 고아모두를 따듯이 품어줄 그런 보금자리 는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는것이다.

자리에 누웠으나 나는 오래도록 잠들수 없었다. 어디선가 새벽닭이 해를 치는 소리와 함께 겁기에 질려 왕왕 하고 떠들법석히는 개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희복하니 새날이 밝아온다. 이 사건에 대해 동평양 보안서장 라명국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는 **김일성** 장군님의 슬하에서 싸운 전우들중의 한사람이다.

×

그렇다. 나(라명국)에게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반세기전 그날의 일이 선명히 떠오른다. 나는 그의 일기장을 덮고 회상에 잠겼다.

...그때 나는 자책감으로 하여 **김일성** 장군님앞에서 머리를 들고 서있지 못했다. 그 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이틀이 지난 날 오전 해방산기슭에 있는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청사에서 있는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노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처음 뵈는듯싶었다. 아니 저 멀리 마안산에서, 눈석이조차 시작되지 않았던 그 밀영의 이른 봄에 나는 무섭게 대노하신 그이의 모습을 뵈운적 있었다.

나는 죄송스러움으로 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데 이어 건당, 건국, 건군의 3대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민들의

극진한 환대와 특전도 마다하시고 백두산시절처럼 빨찌산 전우들과 허물없이 침식을 같이 하시며 그 어느때보다도 분망하신 나날을 보내시느라 퍼그나 몸이 축가신 우리의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더우기 그때는 김정숙동지께서 아직 평양에 오시지 않은 때였다.

《그러니 라동무는 그 소년들이 어떤 애들인지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되돌아왔단 말이지?》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못마땅해하시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다시금 물으시였다.

《예...》

나는 기여들어가는듯 한 목소리로 대답드렸다. 이싸첸꼬대좌는 목비권을 행사하며 병어리처럼 취조에 단 한마디의 응답도 없이 고집스럽게 뻔대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곧 그자체가 죄행을 시인한것과 같다는것, 따라서 예심원은 더이상 시간을 끌필요없이 그자들을 즉시에 쏘련감옥으로 압송할것을 제기하고있으며 자신도 그 제기를 목살키 어렵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들의 처사가 못내 불만스러웠었다.

《그들이 미성년인데도 말입니까?》

《그렇소. 그자들이 감행한 범죄의 엄중성과 위험성으로 보아 중요하게는 그자들이 현장체포되였다는 사실로부터 그들의 나이를 전혀 고려할수 없을것 같소.》

이싸첸꼬대좌의 무뚝뚝한 대답이였다. 나는 그 즉시로 대좌를 찾아가 그 소년들의 범죄가 아무리 엄중한것이라 해도 우리 보안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했으나 그는 요지부동이였다. 반쏘적인 범죄행위에는 쏘련의 군법에 따른 처벌이 우선이라며 그는 완고하게 거절하였던것이다.

쏘련사람들의 일이니 별수 없겠다고 생각하며 물러선 나는 장군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렸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내가 정정당당한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더우기는 그 애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선데 대해 그렇게까지 노하여 책망하시는것이 아닌가?!

《그 애들이 사흘동안이나 쏘련군 구류장에 갇혀있었던 말이지. 부모도 집도 없어 누구도 돌보지 못한 불쌍한 애들인데...》

혼자소리처럼 하시는 그이의 음성은 퍼그나 갈려있었다.

《어쩌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라동무가 그렇게 처신할수 있는지 도무지 리해할수 없구만. 그래, 조

국이란 뭘겠소.

우리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흘려싸운 보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요!»

그이께서는 한무리의 새매들이 내려앉아 재잘거리는 창밖의 앙상한 나무우듬지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조국광복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은 우리 항일빨찌산들이나 국내의 애국지사들만이 아닌 전체 조선민족이요. 바로 개떡쇠와 같은 고아들과 류량아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요. 그것은 바람앞의 등불같은 어린 생명들이 죽지 않고 곳곳이 살아남은것 자체가 우리 민족을 모조리 멸살시키려고 악랄하게 미쳐날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조선민족의 위대한 승리로 되고 죽음에 대한 삶의 승리로 되기때문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 애들이 어린 손목에 무거운 수갑을 차고 이국땅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해야 한단 말이요?! 그 누구보다도 이 민족과 미래를 열렬히 사랑한다는 우리들이 있으면서도 앞길이 구만리같은 그 소년들의 운명을 그것도 다름아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요?》

그이께서는 불끈 틀어쥐신 주먹으로 몇번이나 안타까이 허공을 때리시였다.

나는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였다.

그렇다. 나는 우선 그 고아들부터 만났어야 했다. 내 눈으로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어야 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했었다.

나는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미흡하고 경솔한 처사에 대해 백번천번 사죄하고싶었다.

나의 눈에서는 소리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바로 고아였다. 그 개떡쇠와 다름없는 고아였었다. 하지만 나는 여직 자신이 고아였다는것을 감감 잊고있었으니!

《라동무, 우리 함께 그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지요.》

장군님께서서는 나의 등을 떠미시였다.

나는 그이를 만류할수가 없었다. 그때는 해가 하늘 중천에 뜬 정오였다...

나는 다시 이싸첸꼬의 일기에 눈길을 주었다.

1945년 11월 9일 금요일

나는 깜짝 놀랐다.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은 두말할것없이 나에게 있어 커다란 영광이고 행운이였다. 허나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은 기쁨보다도 죄의식에 가까운 송구한 감정에 더 포로되어있었다.

우리 집단군사령관 치스짜꼬브장령도 정사가 분당하시여 좀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그분을 이런 루추한곳에 일부러 걸음을 하시게 하였으니 말이다.

딱딱한 나무결상에 진중한 표정을 짓고 앉으시여 사건경과에 대한 나의 설명을 끝까지 다 들어주신 그분께서는 마주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그 애들이 이 마가울날 어둡고 침침한 구류장에서 고생하고있겠구만》하고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분의 침중하신 음성은 마치도 내가 그 애들의 아버지와 마주하고있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우리들이 과하게 일을 처리한것이 아닐가? 하는 동요와 가벼운 불안이 언뜻 뇌리속을 스쳐지났다.

이때 두 소년이 끌려들어왔다.

일순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두 소년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시였다. 그분의 얼굴에는 돌연 엄한 질책과 불만의 빛이 질게 내비쳤다. 몹시도 침통하신 낮빛이였다. 아마 그 애들의 머리를 증처럼 뽕뽕 째아놓은때문이라.

《네가 개떡쇠냐?》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김일성** 장군님의 물으심이였다. 대답이 없었다. 대답을 바라지 않는 물음이기 때문이였다.

한참나 귀가 아플 정도의 정적이 무겁게 방안에 내려앉았다.

《그래, 너희들이 쏘련군대의 무기를 훔치려 했다는게 정말이냐?》

여전히 엄하신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신 그분의 물으심이였다.

그분께서는 대답을 기다리셨다. 누구든 대답을 드려야 했다. 한동안의 침묵...

때로 침묵이 대답을 대신할 때도 있다지만 지금의 그것은 결코 대답이 못되는것이다. 개떡쇠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머뭇머뭇하더니 마침내 입술을 움지려거린다. 나는 놀랐다. 흡사 그 무슨 기적을 보는듯 싶어서였다.

죽은자도 말을 하게 만든다는 제노라는 예심원뿐 아니라 구면인 나에게도 나홀동안이나 녹슨 철문처럼 굳게 다물려져있던 개떡쇠의 두 입술에서 마침내 떠들떠들 사람의 말소리가 흘러나왔기때문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그 혈연적인 민족성을 의식

한 탓인가 아니면 검은 외투를 입으신 준수한 그분의 의지에 공손히 복종할수밖에 없음을 본능적으로 감촉한 탓인지.

《잘못했어요. 다신... 안그려졌어요... 우린 정말...》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묵묵히 그의 고백을 듣고만 계셨다.

아마 듣고만 계실수밖에 달리 하실수 없음에 더욱 가슴이 아파나시는듯 그분의 안색은 퍼그나 흐려있었다.

《그래 너희들은 그 수류탄을 훔쳐내가지고 무엇을 하려 했느냐?》

그분의 물으심에 개떡치는 《우린 그저 통줄임인 줄로 알고... 너무도 새까매서 그만... 아무거나 가지고 나온것이... 그거였어요.》 하며 어디에다 눈길을 줄지 몰라 두눈을 껌꺼껌했다.

《그래 너희들을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릴 모두... 쏘련감옥으로... 끌고 간댔어요... 집도 아무도 없이... 매일 밥을 빌어먹는 우리에게... 아무데나... 다 같아요... 우린 그저...》

리덕만소년의 토막말이었다. 그의 눈귀엔 왈각 솟구쳐나온 서러움과 슬픔이 한방울의 맑은 눈물로 맺혀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뒤에 서있는 나에게 시선을 돌리시였다.

천백마디의 말을 대신하여 나를 책망하시는데 그분의 무언의 눈길앞에 나는 자못 무안스러워졌다.

저렇듯 순박하고 정직한 그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며 《엄중한 반쏘적대분자》일수도 없다.

그것만은 명백했다.

나는 당황해났다.

그분께서는 더욱더욱 말씀이 없으시였다. 풋밤송이같이 콧꼭 찌르는 덕만이와 개떡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자신의 손바닥에 마쳐오는 그 감각을 음미해 보시는듯 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인듯 싶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자격지심과 아울러 우리에게는 단 한마디도 토설하지 않고 입을 옥다문 개떡치와 리덕만이 끝없이 밟던 순간이기도 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한걸음 또 한걸음... 잠시후 그분께서는 멈추어서시였다.

《이싸첸 꼬대좌동무, 이 소년들 나이적에는 대좌동무도 고아였다지요?》

그분께서 조용조용 하시는 물으심이 너무도 뜻밖

이어서 나는 무척 놀랐다.

그것은 전률에 가까운, 지금까지 심판자로 있던 나를 홀연 그애들과 한 위치로 와락 떠밀어놓은 마음의 충격이었고 모든것을 초월하여 전신을 휩싸안은 친밀감의 인력이기도 했다.

《고아의 설음은 고아가 더 잘 아는 법입니다. 대좌동무의 과거체험을 놓고 봐도 그렇고 또 포악한 일본제국주의의 마수로부터 조선을 광복시키는데 기여한 쏘련군대의 공적과 영상을 놓고 봐도 이 소년들의 문제처리에서 보다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애들앞에는 광복된 조국에서 마음껏 행복을 꽃피우며 살아야 할 래일의 삶이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희망을 우리가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소년들의 문제가 조선인민과 쏘련인민간의 신뢰와 친선에 관한 그 어떤 정치외교적인 문제이기전에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이들의 장래와 그 운명에 관한 인간적인 문제로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추호의 반론도 이의의 여지도 없는 말씀이시였다.

《제가 책임지고 문제를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다.

감동에 젖은 탓인지 아니면 심장속 깊이 마쳐오는 자책감때문인지는 지금도 석연치 않다.

《조선사람은 설사 죄를 졌다 해도 조선땅에서, 조선의 감옥에서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나는 대좌동무를 믿겠습니다.》

떠나시기전에 그분께서는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시였다. 밤알들이였다. 그분의 외투주머니에 어떻게 밤알들이 다 있었을가?

《애들아, 받아라. 또 만나자꾸나.》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사뭇 근엄함과 확신이 어린 친근한 미소를 남기시며 떠나가셨다.

우리 병영에 찾아오신지 거의나 두시간후의 출발이였다.

그 시간에 있는 그분과의 상봉은 나의 뇌리속에 새겨져있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인상 즉 일제의 백만 정예군을 대적해 20성상 험준한 천고의 밀림속을 종횡무진하시어 끝끝내 일제를 격멸한 아시아의 영웅, 현대의 걸출한 빨찌산장군으로서 가렬한 전투나 전쟁, 엄격한 군률에 숙달된 용맹하고 위엄있는 탁월한 군사가로만 알고있던 나의 기존의 관

님을 새로이 정정케 했다. 너무도 젊으신 장군은 로숙하셨고 온 민족의 총망을 받고계시는 그분은 명실공히 반만년의 문명사를 자랑하는 조선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실 절대유일의 지도자이시였으며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정으로 충만한 위대한분이시였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죄되는 일을 할번 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것이 본의아닌 실수라 해도 말이다.

김일성 장군님을 바래워드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분에 의해 구원된 두 소년을 피로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밤알을 두손으로 꼭 움켜쥔채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고개를 기웃기웃하고있는 개떡쇠와 덕만소년에게 나는 물었다.

《얘들아, 방금 오셨던 그분이 누구이신지 너희들은 아느냐?》

《?...》

《그분이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란다.》

《?!...》

나는 지금껏 그렇게 크고 동그란 눈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한순간 온몸이 굳어진듯 싶었다. 호흡조차 정지된듯, 허나 세차게 오르내리는 가슴은 그들의 심장이 쿵-쿵- 뛸고있음을 말해주고있었다.

《**김일성** 장군님?!》

얼혼이 나간듯 한참만에야 개떡쇠소년이 한마디를 뇌일뿐 덕만은 그냥 선채로 온 얼굴이 빨갛게 익어 있었다.

그렇다 조선사람치고 남녀로소 그 누가 **김일성** 장군님을 모른단 말인가!

열려진 창문으로는 가을날의 밝은해빛이 흘러들어 왔다. 말없이 나는 오래도록 행운아들의 얼굴을 보고있었다.

그들의 더없이 맑고 그윽한 두눈, 아직도 그냥 커진채로 있는 그들의 눈은 거울처럼 빛났다.

그들을 내보내뒀 나느 침대우에 걸터앉았다. 삐걱하며 흔들리는 소리, 낡은 침대의 그 삐걱걱소리조차 아츠럽지 않다.

1945년 11월 13일 화요일

오늘 나는 개떡쇠와 리덕만소년을 라명국의 보안서에 데려다주었다. 물론 철없는 그들의 무의식적인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수 없었기때문이다.

라명국이 그 자리에서 **김일성** 장군님께 전화로 보

고를 올렸다. 그분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다고 한다. 통화가 끝난 뒤 라명국이 흥분된 목소리로 나에게 그분과의 전화내용을 말해주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전번에 자신께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개떡쇠의 부모들을 대신해서 그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고 한다. 라명국은 그분의 제의에 절대 찬성하면서 개떡쇠를 구원해주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 웅당히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는것이 옳다고 간청했다. 그러자 조선속담에 삼촌 삼촌하면서 짐지운다더니 꼭 그격이라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라동무, 그애의 이름을 철림이라고 짓는게 어떻소. 개떡쇠같은 고아들도 모두 부강한 새조선을 받드는 강철의 기둥이 되고 숲이 되라는 의미에서 말이요. 그리고 성은 라동무의 성을 달아야겠소. 그래야 라동무가 더 각근하게 그 애를 돌봐줄거란 말요. 어떻소?》하고 말씀하시였다 고한다.

물론 라명국은 대찬성이였다.

결국 개떡쇠는 《라철림》으로 다시 태어났다. 라명국의 얼굴은 상기도 이름못할 숙연한 빛에 젖어있었다.

나의 발은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조선사람들은 대개 감정과 정서가 매우 풍부하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로골적으로 즉각 표현하는 그런 개방형보다도 자기의 감정을 소처럼 씹고 또 씹으며 속으로 음미하고 감수하는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 더 많은것 같다.

이 라명국도 그런 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 라명국이 지금 이 순간만은 전혀 딴 사람이 된듯 싶었다.

그는 흥분하여 자신이 체험한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가지가지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하고 엄혹했던 지난 항일빨찌산투쟁시기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간 혁명전사들의 자식들을 그냥 험지에 내버려둘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안고 다니시며 혈전혈투를 벌리셨다고 한다.

라명국자신도 바로 그분의 등에 업혀 성장한 옛아동단원들중의 한사람이라고 한다. 두 고아소년들을 불러온 라명국은 그들에게 **김일성**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놓았던 새옷들을 입혔다. 옷이 낱개라고 그렇게 몸에 맞는 옷을 입으니 전혀 딴애들 같았다. 나는 라철림과 리덕만소년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병영으로 돌아왔다...

일기장을 마주하고있는 지금 이 밤에도 그들의 기쁨넘친 모습들이 눈앞에 떠오르며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어 그들의 모습은 모스크바에 두고 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 보드라운 밤빛머리카락에 가을날의 호수처럼 새파란 눈동자를 가진 싸샤의 얼굴로 바뀌어 진다. 전쟁통에 아버지의 따뜻한 애무도 모르고 자란 나의 아들 싸샤야, 이 밤 나는 왜서인지 멀리에 있는 너와 온밤 속삭이고싶구나. 너를 위해, 조선의 모든 《개떡쇠》들을 위해, 전쟁과 제국주의가 없는 인류의 광휘로운 미래를 위해 이 아버지는 아직도 네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조선에서 싸우고있는거란다. 그런 확신을 안고 빼적거리는 침대우에서 나는 이 글을 쓰고있다. 네가 크면 꼭 읽어보며 오늘을 추억하라고 말이다. 지금도 보잘것 없는 그 침대의 빼적소리를 마치 힘겹게나마 한치한치 앞으로 구울러가는 력사의 수레바퀴소리로 들으니 나는 모스크바대극장에서 장중한 교향곡을 감상하고 난 뒤처럼 온몸이 마냥 거뽀하고 즐겁구나!

내 아들 싸샤야 잠에 들었느냐, 어서 깨어나렴. 천사처럼 이리로 날아와 내 무릎우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렴.

청청한 조선의 밤하늘, 그 별숲엔 너의 눈동자처럼 고운 별들이 정말 많고도 많구나.

1946년 1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서른아홉번째로 맞는 나의 생일이다.

간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지금도 기억에 선한 그야말로 생동한 꿈이었다. 그 꿈이란 내가 아버지를 찾아 이 세상을 방황하는 환상적인 꿈이었다. 허나 언제한번 나는 그 꿈에서조차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너무 어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던 나이에 아버지가 짜리군대에 징집되었기 때문이다.

홀몸으로 나를 키우던 어머니는 그후 공민전쟁시기에 백과놈들에게 총살당하였다. 불체비크들을 도와준 《죄》때문이라고 한다.

하루아침에 혈혈단신의 고아가 된 나는 무작정 그 어디엔가에 계시 아버지를 찾아 청처없는 류랑의 길을 떠났다.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고 숨을 거둔 어머니의 유언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행방은 물론 그 생사여부조

차도 전혀 모르고있다.

정녕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수개월간의 지리한 방랑생활에 나는 지칠대로 지쳐버렸다.

《애야, 너무 슬퍼말아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너처럼 고아란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게 되어있는 한 비록 오늘은 고아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다 래일은 고아가 되는게 영원한 인생리치란다. 그러니 아버지찾기를 단념해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만이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실게다.》

이 말은 어느 한 사원의 신부가 나에게 한 설교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아로 되게 된다는 그의 설교는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마침내 나는 아버지를 찾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승리한 사회주의혁명과 쏘베트정권은 나에게 아버지도 줄수 없는 그런 생의 희열과 만족을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오늘에도 나는 때없이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찾고있었다. 영원히 이룰래야 이룰수 없는 그 애라는 갈망이 나의 심혼속에 언제나 잠재해있어 아버지를 찾아가는 꿈을 꾸는지도 모른다.

꿈속에서 나는 나처럼 아버지를 찾아떠나는 라명국과 라철림, 리덕만소년을 만났다. 갈림길에 이르러 우리 넷은 제각기 길을 택했다. 내가 겨우 산 하나를 넘고 또다시 나진 갈림길앞에서 어디로 갈까하고 망설이는중에 어느날처럼 소란하게 울리는 전화종소리에 그만 나는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물론 꿈이 계속되었다 해도 그 결말은 언제나처럼 같았을것이다. 아직 잠기가 채 가셔지지 않은 비몽사몽간에 나는 (라명국이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어처구니없는 괜한 걱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 라명국이 오늘 저런 기별도 없이 문득 나를 찾아왔다. 못내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오늘이 이싸첸꼬대좌의 생일이라고 하시면서 절더러 들러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로 사귀려면 그의 생일부터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하며 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하다면 김일성장군님께서 어떻게 내 생일을 다 아셨단 말인가?

《우리 장군님은 이 세상에서 모르는것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제 자식의 생일을 알고있듯이 그렇게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자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세세히 다 알고계시며 마음쓰고계실

니다.》

부모를 잃고 자기 생일조차 모르고있던 고아 라명국은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날을 자기의 생일로 정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당신도 생일날이면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꿈을 꾸곤 하는가고.

라명국! 나의 생일을 뜻깊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네. 우리 로씨야에는 《변하지 않는 우정을 얻으려거든 묘지에 가라》는 속담이 있네.(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생활의 변증법적진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말해주는 속담이라고 할수 있지.》

그러나 나는 묘지에서도 찾을수 없는 그런 영원한 우정을 여기 조선에서 찾고싶구만.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긴 그날을 자기의 생일로 정했다는 자네와 말일세!

1946년 3월 3일 일요일

오늘 저녁에야 나는 겨우 잠을 내어 집단군 군의소에 입원해있는 한부대 군관인 야. 떼. 노비첸코에게 면회를 갔다왔다

그의 병실에서 나는 뜻밖에도 두 조선처녀들을 만나게 되었다.

아마 **김일성** 장군님께서 보내신 간호원들일게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그들이 일본옷차림을 하고있는 것이 몹시 의아하여 상긋이 눈웃음을 남기며 떠가는 그들을 여겨보았다.

《괜찮아. 미인들만 드나드는군.》

단둘이 남게 되자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노비첸코에게 통조로 말을 걸었다.

《대좌동지, 그들은 바로 일본처녀들이랍니다.》

그는 씨비리인특유의 성격 그대로 언제나 미사려구가 없이 단도직입적이었다.

《뭐라구? 일본처녀?》

나는 마치 노비첸코가 나를 놀리려고 룡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다.

노비첸코는 정색하여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그들은 한달 가까이 **김일성** 장군님의 댁에서 묵고 있는 일본처녀들입니다.》

흔연히 하는 노비첸코의 말에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의혹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잇달아 떠올랐다.

《대좌동지는 전혀 모를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르고있지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패주하는 일본군을 따라 만주에서부터 여기

평양으로 류랑결식하며 흘러들어온 처녀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아무 연고도 없는 한갓 일본인 방랑처녀들이 그분의 댁에?!

나의 의문을 풀어주려고 시작한 노비첸코의 말에 나는 아연실색했다.

한달전 어느날 저녁무렵이었다고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댁으로 돌아오시다가 대문앞에서 경위대원에게 단속되어있는 두 일본인처녀들과 맞다들게 되시었다고 한다.

경위대원은 어머님께 혹시 흥심을 품고 거짓거리지행세를 하며 기여든 《간악한 왜년》들일수도 있다면서 보안서에 넘겨 알아보아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어머님께서는 그를 만류하시며 그들은 돈이 없고 배가 고파 동양을 다니는 불쌍한 일본처녀들이라고 하시면서 댁으로 데리고 들어가지였다.

그들의 이름이며 나이, 고향에 대해 차근차근 물어 보신 어머님께서는 송구해하는 처녀들의 마음을 녹찾혀주시며 친언니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시였다.

오랜만에 어머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음식으로 배불리 식사를 한 그들은 어지간히 시간이 흘렀으나 어머님께서 만류하시는 바람에 좀처럼 일어날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다 게이코라는 어린 처녀는 앓고있었다.

이때 **김일성** 장군님께서 밤늦어 댁으로 돌아오시였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데려오길 참 잘했다고 하시면서 인생의 꽃시절을 전쟁의 관리통에 불행속에 보내는 그들의 처지를 못내 동정하시며 일본으로 가는 배편이 있을 때까지 마음편히 치료도 받으면서 댁에 그냥 머물러있으라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일본처녀들은 그 은총이 너무도 고맙고 황송하여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울었다고 한다. 분명 저들같은 루추한 몸들이 함부로 묵어갈데가 아니라 짐작은 하면서도 사양하고 떠나갈수 없는것이 바로 그들의 처지이기도 했다. 그후 그 처녀들은 자기들이 묵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김일성** 장군님의 댁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한다.

그 순간, 그들은 졸도할 정도로 기겁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김일성** 장군님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일으켜세우시며 그냥 더 머물러있으라고, 게이코의 병이 다 낫고 몸이

추설 때까지 여기서 《포로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시며 혈육의 정으로 극진히 돌봐주셨다고 한다. 노비첸코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심장은 크나큰 감동으로 쿵쿵 뛴었다.

《대좌동지, 이젠 아시겠지요? 그 처녀들이 왜 나의 이 침상에 나타났는지, 저희들의 생명의 은인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신변을 보호해드린 나를 친형제나 같다고 하면서 저렇게 극성스럽게 매일 찾아오곤 하는거랍니다.》

나는 그 처녀들의 모습을 찾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했으나 그들이 보일리 만무하였다. 그들, 그 일본처녀들은 과연 알기나 할가? **김일성** 장군님께서 아버님과 어머니, 삼촌 그리고 동생... 사랑하는 일가식솔들을 바로 저들같은 일본인들때문에 잃으셨음을,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원한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신분이심을.

《대좌동지, 나는 요새 자주 **김일성** 장군님의 그 위대한 인간애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대좌동지가 나에게 들려준 그 고아들이야기도 결국은 맥락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나는 군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몸 내던졌다기보다도 그분께 매혹되어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의 덕택에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것이구요.》 그는 말을 이었다.

《대좌동지, 비록 나는 조선에서 한팔을 잃었지만 나의 이 한팔로 조선사람들의 희망과 미래를 지켰다고 생각하니 제대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나의 마음은 조금도 서운치 않습니다. 아마 **김일성** 장군님은 조선인민은 물론 온 세상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실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노비첸코의 이 말은 마치 그 어떤 성인의 예언처럼, 아니, 력사의 선언처럼 장엄하게 들려왔다.

나는 오래도록 노비첸코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눈은 진정 꾸밈없는 기쁨과 확신의 빛으로 충만되어있었다.

분명 한팔을 잃은 그는 내가 알고있던 이전의 그 노비첸코가 아니었다.

그가 행운아처럼 생각되었다.

비록 노비첸코가 어떤 행운을 지닌것인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1947년 7월 14일 월요일

오늘 오후 나는 **김일성** 장군님과 함께 평양시보안기관에서 봉래도에 새로 건설한 갱생원을 다녀오는

영광과 특전을 받아안게 되었다.

라명국이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었을 때 나는 눈굽이 찢해났다.

세심하고 후더운 **김일성** 장군님의 인정미와 품격에 저도모르게 감동되었다고 할가? 라철림이네가 봉래도의 새 갱생원에서 생활하고있다는 말은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더우기 **김일성** 장군님께서 내가 라철림이네들이 평양시교외에 꾸려진 고아원에 있을 때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그 애들을 만나보고 온것은 물론 그후에도 여러번 그 애들을 찾아가 본것까지도 다 알고계신다는것이였다.

(나는 진심으로 그 애들을 위하는 일이 그분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이미전에 평양시에서는 보안국장을 명예회장으로 하는 《평양신생회》가 조직되어 고아들과 류랑자, 결인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국가의 혜택으로 키워주고 돌봐주고있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평양시에 있던 600여명의 고아들과 방랑자들이 갱생원과 양로원에 모여 안착된 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얼마전에 **김일성** 장군님께서 고아원의 위치가 원아들의 교육환경에 적합치 못하다고 하시면서 몸소 온 하루 품을 들여 시내의 여러곳을 탐문하시던중 경치수려한 봉래도에 그 위치를 잡아주시였으며 고아원건설에 필요한 귀중한 자금까지 듬뿍 보내주지였다고 한다.

그이의 사랑에 고무된 보안기관에서는 한달도 되나 마나한 짧은 기간에 건설전투를 벌려 6동의 아담한 새 건물을 완공하였던것이다.

나라일이 바쁘신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부르시여 두 소년과 다시 만나게 해주시려고 마음써주시는 그분의 인정미를 생각하니 나는 자못 황송하기 그지없었다. 어쨌든 나는 제 시간에 라명국과 함께 **김일성** 장군님을 찾아갔으며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책을 비롯한 새 조선의 고위간부들과 함께 자그마한 나무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 봉래도에 올랐다.

때는 오후 4시경이였다.

여름철 저녁이면 조선인의 집들마다에서 피우곤 하는 모기불의 쑥냄새가 무더위속에서 더욱 싱그러운 향취를 자아내며 풍겨왔다.

김일성 장군님일행의 뒤를 따라 걸으며 사위를 둘러보는 나에게 느닷없이 라명국이 《저기가 바로 우리 장군님의 고향집이 있는 만경대입니다.》 하고 강아래쪽을 손들어 가리켜보였다.

김일성 장군님의 유년시절이 흘러간 곳이었어서 그런지 비취색의 강물빛도 봉우리의 록음도 유별나게 더 아름답고 유정한듯 싶었다.

《라동무, 저기 만경대에 혁명자유자녀학원을 건설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소?》

《예-예. 지금 한창 건설중인데 아마 두석달은 더 걸려야 공사가 끝날것 같습니다.》

라명국의 대답이었다.

어느덧 일행은 갯생원정문앞에 이르렀다.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손채양을 하시며 새로 지은 건물들을 둘러보시였다.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갯생원을 번듯하니 일떠세우느라고 보안기관동무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겠구만.》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일행이 갯생원정문에 들어서려 할 때였다.

갑자기 《쌩!》 하는 애되고 짹짹한 고함소리와 함께 정문옆 길녘의 보초막에서 한 원아가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자기 키만 한 목총을 어깨에 둘러메고 코등에 보송 보송 땀방울이 내돋은 그의 모양은 참으로 우습강스러웠다. 게다가 그 애는 제법 군인처럼 목총을 앞으로 겨누어 들고 일행에게 때룩때룩 강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있었다.

리덕만소년이었다. 그런데 인사불성으로 덕만이는 왜 **김일성**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걸까?

《그래도 여기에 규률이 다 서있구만!》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덕만이의 어깨를 대견스레 다 독여주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애야, 네가 라철림이라는 소년과 함께 쏘련군대 병원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던 애가 아니냐?》

김일성 장군님께서 물으시자 덕만이는 해빛에 눈이 시그러운듯 연분홍빛의 옷이몸을 빙긋 드러낸채로 두눈을 가느스름하게 좁혀뜨고 한참이나 그분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에야 나는 그 애가 심한 근시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는양을 지켜보시던 그분의 안색도 삼시에 흐려졌다.

아직도 나무꼬챙이처럼 가느다란 목과 무더운 삼복기간인데도 그냥 입고있는 겨울옷, 매생이처럼 턱없이 큰 신발...

《야, **김일성** 장군님!》

그제서야 덕만이는 겨우 그분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김일성 장군님!》

그는 그분의 존함을 다시한번 더 뇌이더니 제잡담 뒤돌아서서 냅다 정문안으로 뛰어갔다.

도화선에 불꽃이 달린듯 기쁨의 소식은 한입두입 건너 삼시에 온 갯생원에 퍼져갔다.

일군들이 달려나왔다. 그뒤로 수많은 원아들이 웅기중기 떼를 지어 끌어나왔다.

《김일성 장군 만세!》의 격류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그분께서는 갯생원일군들의 수고를 치하하시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였다.

보매 구면인 일군들이 더 많은것 같았다. 이윽하여 그분께서는 원아들을 둘러보시며 《애들아, 모두 이리로 오너라.》 하고 두팔을 벌려 그들모두를 다정히 부르시였다.

허나 그분의 친근한 부르심에 원아들은 마치 꾸중이나 들은듯 일제히 머리를 숙이며 누구 하나 안겨들지 못했다.

아마 자기들의 람루한 옷주제가 부끄러워서이리라. 그분께서는 쓰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한동안 그들의 동태를 여겨보시였다.

원아들에게로 다가가신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큰 애들의 사이를 비집고 나와 그분을 쳐다보고있는 열살가량의 어린 처녀애를 안아올리시였다.

《자, 동무들 보시오. 얼마나 귀엽게 생긴 소녀예요. 우리 조선의 아이들은 다 이렇게 곱고 잘 생겼소. 그런데 때일찍 부모를 잃은데다가 우리마저 그 애들의 부모구실을 잘하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누대기를 걸치고 있소.》

그분의 음성은 무척 갈려있었다.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

마침내 원아들 한가운데 서있던 라철림이 꺽충꺽충 그분께 달려가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

그는 분명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 아버지.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러자 하나, 둘... 나중에는 온 원아들이 와락 그분을 성벽처럼 에워쌌다. 서로서로 제가 더 먼저, 더 가까이에, 더 오래동안 안겨있겠다고 악의없는 승벽 다툼을 하며 그분께, 그분의 두팔벌린 품에 와락 안겨든다.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광경이었어서 나는 잠시 고개를 외로 틀었다.

《동무들, 이 애들이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리며

버림받아온것만도 가슴이 터질 노릇인데 나라가 광복되고 우리가 주권을 쥔 오늘에야 왜 이렇게 옷 하나 제대로 해입히지 못하겠소.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돈쓸 일이 많다 해도 이 아이들에게 철따라 새옷을 만들어 입히시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분부대로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김책이 결의하듯 말씀드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부문 일군들과 함께 갱생원의 관리운영사업을 토의해주시였다.

그 여가시간에 라명국과 나는 라철림과 리덕만소년을 만났다.

그들은 갱생원생활이 참 좋다고 하였다.

공부는 물론 농사와 목공을 비롯한 여러가지 일정한 직업기술도 배우면서 대렬훈련도 한다고 했다.

《아저씨, 난 크면 군대에 나갈래요. 그런데 이 애는 눈이 나빠서 군대에 못나간다고 않아요.》

라철림의 말이였다.

《그러면 덕만이는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하겠나?》

라명국이 물었다.

《난 그냥 공부를 하고싶어요.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난 이름난 의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처럼 부모없는 아이들의 병을 몽땅 고쳐줄래요.》

《그래, 옹쿠나 옹타...》

라명국이 덕만이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라명국이 철림의 바지주머니가 볼록한것을 만져보며 물었다.

《이것말이에요?》

라철림이 선선히 주머니의것을 꺼내보였다.

형겉천에 싼 그것, 다 닳아 터실터실해진 겉천을 헤쳐보이니 그것은 한알의 왕밤알이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나랑 덕만이에게 주신 그 왕밤이에요.》

《?!...》

정말 그럴가싶게 선뜻 믿어지지 않았으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1948년 5월 15일 토요일

오늘 나는 라명국과 함께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두번째로 봉래도의 갱생원을 가보게 되였다.

가장 인상깊은 일은 림름하게 자란 원아들의 대렬 행진을 본것이다.

얼마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여름옷을 갈아입은 원아들이 운동장에 5개종대로 대렬을 짓고 서있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일군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오시였다.

그분께서는 열병대오처럼 질서정연하게 대렬맞춰 서있는 원아들을 보시고 한손을 높이 쳐들어보이시였다.

곧 원아들의 분렬행진이 시작되였다.

1종대의 종대장은 라철림이였다.

처억-처억- 기나긴 한여름의 석양에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씩씩하고 의기양양한 대오가 활기있게 다가오고 있었다.

김일성장군님의 사열을 받는다는 긍지와 행복감에 서인지 그들은 앞으로 쭉 내여민 가슴우로 절도있게 팔굽을 높이 추켜들고 땅이 꺼지도록 발구름소리 힘차게 울리며 행진해오고있었다.

대오가 거의 **김일성**장군님앞에 다달았을 때 《차렷! 우로 봤!》 하는 쟁쟁한 구령이 울리자 라철림이 그분을 우러러 엄숙하게 군대식경례를 올렸다.

용기백배의 그 행진에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환한 신 얼굴로 답례를 보내시였다.

《아주 훌륭하오. 훌륭해!》

그분의 말씀이였다.

나도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부모를 잃고 정처없이 류랑하며 먹을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동냥하고 도적질을 하던 처애들이 오늘날 이렇게 열병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대렬 행진을 할수 있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분께서도 자못 흥분하시였고 온몸에 넘쳐나는 기쁨을 애써 감추려 하지도 않았었다.

한종대, 또 한종대가 행진해나갔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불어오는 바람에 자욱히 타래쳐오르는 먼지구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종대까지 진지한 얼굴로 지켜보시였다.

시종 엄숙하시였고 친근하시였으며 거룩하시였다.

김일성장군님과 함께 주석단에서 교아들의 대렬 행진을 보고있느라니 나는 마치 이 땅에서 교아의 력사는 영영 끝이 났음을 선언하는 장엄한 의식에 초침받은듯 한 환각으로 하여 나 자신도 그 어떤 위

대한 존재처럼 생각되었다....

지금은 삼라만상이 꿈속에 든 깊은 밤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오늘의 그 충격이 너무도 강렬하여 좀처럼 잠들수 없다.

눈을 감아도 그 대렬행진이 보여오고 그 발구름 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운동장에 피어오르던 먼지구름은 마치 하늘 땅이 그들을 축복하여 내뿜는 향기그윽한 안개같이 생각된다.

그 신비한 안개속에서 《아저씨, 난 이제부터 **김일성** 장군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래요!》라고 말하던 라철림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철림아, 내가 만약 너라면 나는 꿈을 꿀적마다 **김일성** 장군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친아버지의 모습으로 뵈올거다.

나는 생각했다. 오늘 너희들의 그 행진은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행진, 아버지를 찾은 행진, 아버지의 품에 안긴 행진이라고도 말이다.

그래서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더 훌륭한 것이었다. 네게는 아직도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신 그 왕밤이 있다지. 언제나 너는 그 왕밤을 품에 안고 무력 무력 자라나거라. 너는 나보다 더 행복할게다. 왜냐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꿈을 꾸겠으니 말이다.

나(라명국)도 한생 그날을 잊지 않았다.

봉래도-그 섬을 오늘은 쑥섬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새 옷이며 학용품들을 받아안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던 원아들의 그 행복한 모습들이.

그 쑥섬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완고한 반공우익민족주의거두인 김구를 비롯한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했던 남조선대표들을 위해 뜻깊은 좌석을 마련해 주시었다.

쑥섬은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말해주는 성스러운 력사의 한지점이었고 수령님의 넓고넓은 사랑의 품의 한부분이었다.

1952년 9월 15일 월요일

나는 오늘 **김일성** 동지께 보내는 쓰팔린동지의 친서를 가지고 룡도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1948년 12월 쏘련군의 철수와 함께 이곳을 떠난 이래 처음으로 다시 찾는 감명깊은 고장이다.

그러나 지금은 변변한 건물 한채 볼수 없는 도시, 너무도 참혹히 파괴된 싸우는 조선의 수도였다....

조선의 최고사령부는 평양시교외의 어느 산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새밭이 푸르싱싱 펼쳐져있었고 짐무실로 가는 길 양쪽에는 추리나무와 밤나무가 우거져있는데 밤나무가지마다에는 잘 여문 밤알들이 소담하게 달려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이 한창인데도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새벽 일찌기 일어나시어 산보를 하시다가는 삽과 호미를 드시고 이 포전에서 농사일을 하신다고 한다.

이 밤나무도 그분께서 도맡아 가꾸신 것이라고 부판은 말했다.

나는 그분의 배짱과 여유작작함에 실로 놀람을 금할수 없었다.

공식적인 회담이 끝난 뒤에 **김일성** 동지께서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전형적인 조선의 가을날씨라고, 그런데 미국놈비행기가 덤빈다고 집안에만 박혀있겠는가고 하시면서 함께 산책을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나는 패히 그분을 따라나섰다.

김일성 동지와 함께 단풍이 든 산골짜기의 오솔길을 따라 산마루로 올라갈 때였다. 어디선가 한줄기 찬 바람이 휘-불어오니 바짝 마른 락엽우에 돌덩이 같은것이 산발적으로 떨어져내리는 소리가 온숲에 가득찼다.

그러더니 길 좌우 량켠으로 도토리며 밤알들이 되그르르 굴러내려오는것이 보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중 가장 커보이는 밤알을 하나 허리굽혀 주어드시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가을은 왔구만》

그이의 줌안에 들어있는 윤기흐르는 왕밤알들을 보니 불현듯 이 땅에서 친혈육처럼 정들었던 라철림이 네가 떠올랐다.

나는 그분께 봉래도의 갱생원에서 라철림이와 리덕만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그들이 **김일성** 동지께서 주셨던 밤알을 그냥 간직하고있던 사실에 대해 말씀드렸다.

《아, 그래서 얼마전에 라사단장이 그 무슨 밤에 대한 말을 했구만.》 혼자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안색은 왜서인지 별로 개운치 않아보였다.

《사실은 그때의 두 소년중 리덕만이 얼마전에 전사했습니다. 시력이 몹시 나빠 몇번이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지만 끝내 폐를 써서 입대했다

고 합니다.

라명국동무의 사단에서 둘이 한 소대에서 싸웠는데 치렬했던 고지탈환전투에서 적의 화점을 몸으로 막고 그만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운명직전에 그가 군복옷주머니를 가리키기에 찾아보니 거기에는 손수건에 쓴 밤알이 하나 있더라.

그는 그 밤알을 꼭 손에 쥐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라사단장 그 사람이 전화로 그 말을 할 때 나는 그 밤이 무슨 밤알인지 딱히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분께서는 못내 가슴아프신듯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들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수 없게 되었을때의 그런 안타까움과 애수에 젖으신 음성으로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오래도록 그분께서는 산아래를 바라보고계시었다.

《무척 머리도 좋고 손재간도 비상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의학계에서 큰일을 할수 있는 재간둥이였다고 하는데 정말 아까운 동무가 전사했습니다. 그가 세운 위훈을 평가하여 영웅칭호도 수여했지만 나는 그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라철림소대장은 반드시 덕만의 복수를 천백배로 하고야말것입니다.》

끝없는 애정과 믿음을 안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시였다....

나는 지금 반토굴의 희미한 등잔불아래에서 **김일성** 동지께서 가꾸셨다는 집무실앞의 그 밤나무에서 주은 한줌의 밤알들을 보고있다.

그러면 그 밤알에 영웅의 메달을 달고 병긋병긋 웃고있는 리덕만과 라철림의 림름한 모습이 어려운다.

너희들이 과연 쏘련감옥에 갇혀 있던 그 고아들이란 말인가? 어제날의 그 고아는 어디로 가고 너희들은 영웅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나는 오돌차게 여물고 윤기나는 이 조선밤알과 온 밤 이야기하고싶다. 설익었을적에는 그 누구도 감히 다치지 못하게 어린 열매를 서리발어린 가시들로 보호해주다가 고이 익으면 절로 어머니대지의 품에 좋아라 안겨들게 하는 그 아름답리 밤나무와도 나는 이야기하고싶다. 너의 그 살뜰한 애무와 자양과 보호가 있어 알알이 여문 그 밤알들은 이 땅 위에 싹트고 자라나 무성한 숲을 이루는것이라고,

그 한알의 밤알이 나에게서는 심장처럼 보여온다.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붉은 심장처럼!

1992년 1월 24일

여든다섯번째 생일을 맞는 오늘 새벽 나는 꿈을 꾸었다.

어린 소년인 내가 아버지를 찾아 정처없이 먼 길을 떠나는 꿈이었다.

내가 왜 그런 꿈을 꾸었을가? 아마 어린 시절에 내가 고아였기때문일가?

간밤의 꿈을 생각하노라니 저도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슬퍼할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영원할수가 없다는거야 변증법적 진리가 아닌가요.》 나의 아들 싸샤의 말이였다.

순간 그의 이 말은 나를 더욱 슬프게 했고 격분케 했다.

그래도 재판에는 한다하는 종합대학의 철학 교수이라고? 인류수천년의 철학사를 무불통달 했다는 네가 감히 그렇게 말할수가 있단 말이 나?!

나에겐 지금 믿고 의지할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의 상실, 절망과 허무, 이것이 지금의 나, 고아로 된 **빠웰 드미트리예비치 이싸첸코**의 초상이다.

참혹한 상실의 그 시각 나의 눈앞에는 불현듯 한 고아의 환영이 보여왔다. 겨울참새처럼 까맣까맣한 얼굴, 타다 꺼져버린 돌탄덩이같은 물결의 소년, 그 언제인가 반세기전에 조선에서 만났던 고아, 《인간버력》이라고 경멸의 눈길로 굽어보았던 그 고아의 처지로 내가 굴러떨어졌음에 나는 억이 막혔다.

나는 온몸과 넋으로 울고울었다. 현대 내 눈앞의 그 조선고아는 천사마냥 나를 향해 밝게밝게 웃고 있는것이 아닌가.

《나는 고아가 아니예요!》 하고 온몸으로 웨치면서 말이다.

그럴수록 내 인생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은 나에게 고아라는 외로움만을 시시각각으로 버럭처럼 실어다 주고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채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한단 말인가?!

그 서글픔에 오늘 새벽 나는 아버지를 찾는 꿈을

또 다시 낡은 모양이다.

허나... 허수한 꿈이었다! 서글픈 꿈이었다!

아, 나는 끝끝내 아버지를 찾지 못했던것이다.

나는 오늘에야 깨달았다.

나의 인생, 그것은 아버지를 찾기 위한 한생이었음을. 나의 이 일기는 바로 한평생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찾고 찾은 내 인생의 편력기였으니 나는 이 일기를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지 못한 오늘로 끝맺고저 한다. 나는 기쁨과 슬픔의 기나긴 한생을 총화해본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내 죽은후에도 영원히 이 푸른 행성에서 살아나갈 인류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원시의 장글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첫날부터 횡포한 자연과 야수의 위협으로부터 오직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만 했던 외로운 고아였다. 고아는 언제나 고독하다.

인간의 가슴속에는 한낱의 그림자마냥 언제나 고독이 깃들어있었다. 그 고독의 감정은 바로 자신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아버지의 품이 없다는 실망감에서 시작된것이 아닐까? 그 고독과 허무를 덜고저 불려도 응답이 없는 하느님을 믿는 인간의 그 신앙행위를 나는 가장 서글프고도 가없는 인류의 짝사랑이었다고 말하고싶다. 허나 나는 고아의 숙명에서 벗어난 인류의 미래를 본다 내가 한평생 꿈속에서도 찾지 못했던 아버지를, 인류의 위대한 아버지를 나는 해솔은 동방에서, 조선에서 보고있거늘.

나는 지금 더욱더 그 시절이 그리워.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셨던 그 시절, 그의 나라에서 새날을 맞던 그 시절이. 너무도 그 시절이 그리워 나는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침대를 흔들어보았다. 그 시절의 침대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싶다. 허나 아무리 돈을 뒤척거리보아도 그때의 그 삐걱소리는 들러오지 않는다...

머지않아 나는 운명하리라. 나의 령혼이여. 그러면 너는 조선으로 가라. 조선의 그 어느 밤나무라엽속에, 혹은 이끼푸른 바위돌밑에, 혹은 그 어느 심산속의 동굴이라도 좋다, 거기에 안식의 깃을 펴라.

나의 벗인 라명국이여, 당신에게 나는 나의 이 일기장을 보내고싶다. 살아서 아버지의 품을 찾던 이 몸, 죽어 령혼이 되어서라도 《개벽쇠》의 운명을 영원히 벗어난진 아이들이 나라의 《왕자》가 되어 행복하게 자라는 그 품에 안겨 내 다시 태어나려니

내 아들 싸샤야, 아버지의 이 마지막유언만은 착실히 들어다오!

×

하많은 추억과 함께 산갈은 정희 그리고 승엄한 사색을 불러일으켜주는 이싸첸꼬의 일기였다.

그가 다시 살아서 내앞에 서있는듯 싶었다. 자감에 빠진 나는 한없이 넓고도 따사로운 우리 수령님의 품에 대해 소리높이 웨치고싶었다.

품, 수령님의 그 품이 있었기에 오늘은 공화국2중영웅으로, 장령으로 자라난 리철림의 성장은 물론 위대한 수령님께서 40년세월이 흐르도록 잊지 않으시고 찾아내어 공화국영웅의 금별메달을 달아 주시고 국제주의의 세계적전형으로 내세워주신 노비첸꼬의 영광도 있었다. 어디 그들뿐이라. 민족과 신앙, 정견의 차이와 재산의 유무를 초월하여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품에 안겨 복받은 삶을 누렸으며 그의 사랑을 한생토록 못잊어했던가.

광복후에 수령님의 맥에서 석달나마 묵어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두 일본처녀의 하나인 게이코는 그후 일본국회의원이 되어 조일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몇년전에는 손자, 손녀를 비롯한 온 가족을 데리고 우리 나라를 찾아왔었다. 그때 그가 오매에도 그리던 품에 안기며 한 첫말은 바로 《아버지 **김일성**주석님!》이었다.

그의 이 말은 참된 아버지를 찾기 위한 장구한 갈망의 인류력사 수백만년이 고심어린 모색끝에 내린 절대적 진리이며 대답이기도 하리라.

이 위대한 진리를 반드시 이 땅위에 흐르는 무궁한 세월이 증명해보일것이다.

후기

얼마전 나는 뜻밖에도 로씨야 주체사상연구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온 이싸첸꼬의 아들 싸샤를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되였는가 하는 나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의 령혼을 위로해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의 품을 바라는 인류의 갈망은 영원하기때문이지요...》

수령님의 국사

리진협

운전공, 물관리공, 분조장...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건만
우리 수령님 늘
포전머리에서 마주앉아주시었다

마주앉으시어서는
뜻밖에도 땀감이야기
실, 바늘에 이르기까지 놓침이 없으시고
씨불임때 신을 신발
첫 가을 잡아 시집보낼
딸자식이야기도 스스럼없이 나누시고

그래서 누구는
수령님앞이라느것도 까마득 잊고
-야단입니다!
요새 농민작업복 만드는걸 보면...
그지없이 외람된 웅석도 부리고
수령님은 호탕하게 웃으시며
일꾼들이 여기 모두 왔으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자고

그렇듯
수령님과 마주앉아있을 땐
철없이 행복에만 겨웁다가도
한시름 놓고 간다실 때에는
찾아오신 사연이 목이 메이고
그제야 의논해주신 모든 일
수령님 안고사시는
크고작은 나라일임을 깨달아
못박힌듯 오래도록 눈시울만 짙어내고

아 내 고향
북청에 오신 날에도 우리 수령님
갈노전간 민주선전실에 그렇게

우리와 마주 앉으시였어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북청확대회의!
오, 사과
국사중의 국사로 토의되던 내 나라의 사과여!

청산리의 탈곡장이
그렇게 이 땅에 있어라
양덕의 은하리 수수한 농가를
그렇게 사람들은 잊지 못해라
그렇듯 마주앉으시면
자신의 담배도 손에 들려주시고
성냥도 손수 그어 붙여주시며
우리 수령님!
베개도 함께 베시고 밤새 의논해주신
집안일, 분조일, 마을일

로인들도 있었고
녀인들도 단발머리쳐녀도 있었다
무릎우에 앉혀주신 아이도 있었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의논해주신 크고작은 나라일
기뻐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며
수령님 한생토록 찾아오신 우리

우리들이였다!
우리같이 평범한 인민이 올리는 말씀은
어느것이나
제일 큰 나라의 국사로 떠받들렸으니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은
천만으로 거느린 일꾼들이였고
나라에 둘도 없는 국사의 주인이였다!
나라의 주인이였다

길들여진 호랑이

백두산에 올라서서 천하를 굽어보면 하늘의 천궁에 올라감이 별다른게 아니요, 바로 백두산천지에 오름이 승천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백두산말기에 몸을 가누며 한참 섰노라면 온갖 거룩한 환상과 신비감에 사로잡혀 더더욱 백두산을 우러러 몸과 마음을 꿰이지 않을수 없게 한다.

백두산을 삼지연쪽에서가 아니라 멀리 예돌아 서 북쪽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무연한 수림우에 우뚝 솟은 백두산은 마치 흰 룡좌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나면 그 룡좌에 만리푸른 대공을 배경으로 거연히 앉아 천하를 굽어보는 거인의 형상이 눈앞에 떠오른다.

정말 세상만물을 다 창조해냈다는 조물주가 앉았던 산이 아닐까! 그래서 백두산이 이처럼 신령스러운 산으로 된걸까?

광복전 사람들은 정말로 그 룡좌에 거인이 앉아서 천하의 만가지 일을 다 내려다보고있다고 믿고 있었다.

일제의 강점하에서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사람들은 가상적인 그 거인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했고 거인에 대한 분분한 이야기로 긴 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언제부터인가는 그 거인이 다름 아닌 백두산대장수 **김일성** 장군님이시라는데로 생각을 모으게 되었다고 한다.

즉 오래전부터 백두산대장수님께서서는 조선땅에서 감행하는 왜놈들의 꼴스런 지랄에 천벌을 예고하며 이 룡좌에 앉아 기회를 버르고계셨다는 것이었다.

어느날 백두산의 거인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룡좌에 앉으시여 왜놈들과 싸우던 독립군들이 모두 포위에 들어 절멸할 위험에 처하게 된것을 내려다보시게 되자 더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시여 번개창을 틀어진 수만의 천병을 거느리시고 백두산을 내려시었다는 것이다.

그때에는 안개가 자오록히 끼여 누구도 그 광경을 보지는 못하고 다만 쿵쿵하는 퇴성소리만을 들었을뿐인데 그것은 마치 천제 환인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래도하는 행차소리보다 더 요란광대했다는 것이다.

상술한것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오는데 그것은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척 걸터앉아 계시자 산의 신령이라고 하면서 위세를 돋구던 호랑이

가 갑자기 양처럼 순하게 길들여졌다는 이야기이다.

어느날 장군님께서서는 부하 한명을 거느리시고 《일행천리》, 《야행천리》 술법을 쓰시여 2천리길을 하루 낮과 밤사이애 날아지나 다음날 한낮때쯤에는 백두산마루에 오르셨다.

룡결이라고 부르는 장군님의 부하는 난생처음보는 백두산의 여름이 펼쳐놓은 황홀경에 온 정신을 빼앗겨 모든것을 감감 잊은채 사방을 두릿거렸다.

원래 그는 장군님의 부하로 들어오기전에 황해도 재령벌태생으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기껏 주변의 야산들을 돌아보았을뿐이었다.

더우기 산우에 큰 호수가 있고 그 호반에 만병초며 담자리참꽃, 금매화들이 꽃주단을 펴놓은것처럼 피어난 백두산의 이런 절경은 난생처음 보느터였다.

하얀 눈을 점점이 노란빛으로 물들이며 방긋방긋 웃는 만병초며 해빛에 물들어 보라빛으로도 감빛으로도 보이는 양떼같이 금실금실 흐르는 부드러운 안개며 봄명절 발돋움하며 울바자너머 밖을 내다보는 아씨같이 커다란 바위돌우로 물줄기들이 솟구쳤다 꺼지군 하는 간헐천이며 미처 이름도 모를 산새들의 노래소리...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날리며 기분이 뚱뚱 떠 여기저기의 꽃을 꺾기도 하고 눈을 한웅큼 쥐어서는 달아오른 얼굴을 문다지기도 하는 룡결이를 장군님께서서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룡결이는 동심세제로 되돌아간듯 연해연방 《야!- 야!-》 하며 탄성을 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서인지 떨기나무숲속에서 부시락거리던 작은 짐승이 요리조리 내빼는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산토끼였다.

재빛의 산토끼를 보게 되자 룡결은 이번엔 자기가 달속의 계수나무동산에 올라온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 별천지요, 지상의 황홀경이었다. 주단처럼 흰눈우에 펼쳐진 호합진 꽃의 동산이였고 아름다운 꽃잎과 푸른 잎새들이 조화를 이루며 흐트러진 풍만한 빛의 눈부신 세계였다. 사계절이 자기의 재간을 뽐내며 가꾼 산상이였고 하늘도 땅도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차지 하지 못한 성스러운 령마루였다.

산토끼가 달아나 숨은 산비탈 저아래로는 사슴이며 노루떼가 꾸역꾸역 몰려드는것이 보였다.

오월의 눈얼음도 활고 내물도 마시며 다가오는 사슴떼들을 바라보던 룡결은 이상한 예감에 번쩍 정신을 차렸다. 갑자기 마술이라도 걸린듯 돌조각처럼 굳어져 산정을 응시하고있는 짐승들의 겁기어

린 눈길에서 룡결은 무슨 예감이 들어 뒤로 몸을 돌려 산마루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전를했다.

저도 모르게 악! 소리쳤다. 소리가 입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누가 뒤에서 우악스런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은것처럼 신음소리조차 낼수 없었다. 그 자신이 굳어진채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볼수록 가슴을 옥죄이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황소만한 호랑이가 새끼 한마리를 데리고 장군님께서 앉아 땀을 들이시는 왼쪽 후면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고있지 않는가. 더욱 놀라운것은 장군님의 무릎에 고양이만한 새끼호랑이 한마리가 안겨져있는것이였다.

보내 어미호랑이는 새끼를 찾아 이리저리 해매다가 장군님의 품에 안겨져있는 자기 새끼를 발견한 모양이였다.

그놈은 짐짓 오만상을 찡그리며 성난듯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선보, 아니 열댓보가량으로 각일각 줄어졌다. 그러나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기척도 느끼지 못하신듯 여전히 호랑이새끼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두 앞다리를 마주쳐 짹짹도 치게 하시고 혹은 자신의 옆에 나란히 앉히기도 하시며 아무해주고계셨다.

언뜻보면 어느 화창한 봄날 해빛넘치는 토방에 앉아 고양이를 놀리는것처럼 딱 목가적이고도 평화로운 광경이였다.

어미호랑이는 꼭뒤편까지 성이 치미는지 시뻘건 혀로 이발을 문다치며 덮칠듯 한 자세로 서있었다. 어룡어룡 하게 간 검은줄무늬들과 몇백년 묵은 구렁이처럼 굵직한 꼬리로 하여 그놈은 퍼그나 위엄스러워보였다.

룡결은 눈앞에 벌어진 일이 너무도 엄청난것이여서 감히 소리도 치지 못하고 오히려 매복전에서처럼 숨을 죽여가며 어깨에서 총을 벗어들고 그놈을 겨냥하였다.

그러면서 장군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작은 기침소리를 냈다.

문득 장군님께서서는 새끼호랑이에게서 눈길을 떼시고 말뚝처럼 서있는 룡결이에게 시선을 주시였다.

룡결의 땀이 내뻘 얼굴에서 그 어떤 심각한 사연을 읽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시였다.

순간 장군님의 시선과 부딪친 호랑이의 두눈에선 번쩍 섬광이 이는듯 했다.

이어서 《따웅!-》 하고 산을 깨치듯 요란한 부르짖음소리가 들려왔다.

허나 그것은 경악의 부르짖음이였다.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자 그이의 호협한 기상에 호랑이는 움찔을 못하고 벌린 입도 다물지 못한채 그린듯 그자리에 머리숙

이고 서있었다.

마치 응당한 꾸중을 듣는 아이처럼 몽롱한 두앞발을 모아붙이고 대가리를 조아리였다.

장군님품에 안겼던 새끼호랑이가 어미를 따라온 자기 형제의 대가리를 앞발로 툭 치더니 만나서 기쁘다는듯 서로 이발과 이발을 마주치며 노는양이 퍼그나 앙증스러웠다.

장군님께서서는 호랑이새끼 두마리를 각각 한팔에 안으시고 우는 애를 달래듯 흔들어주시였다.

그 모습을 보며 어미호랑이는 계속 머리를 짓수긋 한채 장군님에게로 한치한치 다가갔다.

저도 아마 그런 애무를 받고싶은 모양이였다.

허나 만일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면 아마 호랑이와 사람이 서로 옥버리며 기회를 탐내는것 같이 볼것이다.

룡결이가 그러했다. 그는 긴장한채로 절걱 총에 장탄을 했다. 그리고는 소리쳤다.

《장군님!》

룡결은 술진 눈섭으로 하여 더욱 이글거리보이는 두 눈을 똑바로 부릅뜨고 호랑이에게로 접근해갔다.

그 모양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웃음을 못참으시겠는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하하하》 하고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시였다.

그 웃음소리는 온 산판을 찌렁찌렁 울리였다.

부쩍부쩍 산은 하늘높이 키를 솟구고 숲도 와-와- 하고 장군님의 웃음소리에 맞춰 설레이며 우썩우썩 일어나는것 같았다.

《룡결동무, 총을 내리고 어서 올라오시오. 하하하.》

룡결은 태연하신 장군님의 말씀에 어느정도 마음이 놓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몰라보는 무지한 산 짐승이 어떤 거치른 행동을 하거나 앓을가 하여 경계의 빛을 지우지 않은채 그이가 계시는 곳으로 올라왔다.

허나 룡결의 걱정은 괜한것이였다.

어미호랑이는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귀가 뻐는지 아니면 얼이 빠져버렸는지 두눈을 꼭 감고 부동의 자세로 서서 도적숨을 들이쉬고있었다.

룡결이는 호랑이와 맞대른 사람의 놀란 표정은 여러번 목격하였지만 그토록 사나운 짐승을 손한번 대지 않고 큰소리도 침이 없이 꾹꾹 못하게 하는것을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자세히 보니 갇혀있는 금종이에 먹물을 묻힌 큼직한 대붓으로 획 갈겨쓴듯 번듯한 이마에 새겨진 임금왕자는 산중대왕다운 위엄과 기상이 맥맥히 넘쳐 흐르게 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호랑이의 이마며 목덜미며 훌쩍 꺼진 배허벅을 부드러운 내리쉴어주시였다.

그러자 호랑이 1의 온몸은 황금빛 윤기로 더욱 빛났고 몸매도 더욱 날렵해보였으며 발톱 또한 산

을 동강내는 네개의 방망이처럼 서슬푸르렀다.

《호랑아! 인젠 어서 새끼를 데리고 가거라.》

장군님의 이 말씀에 호랑이는 머리를 끄덕였다.

흡사 선생의 말을 알아들은 총명한 제자와도 같았다.

어미호랑이는 새끼들을 량옆에 나란히 데리고 산을 내렸다. 몇번이고 뒤를 돌아보는것을 보면 마치도 부모의 슬하를 떠나기 싫어하는 자식같이도 보였고 네죽지를 펴고 천방지축 산발을 타고 날아넘으며 《따웅!》하는것을 보면 마치도 지상에 권선징악을 이룩하고자 령을 받고 내려가는 천국의 사자인듯도 했다.

저 멀리 산발너머로 가듯 호랑이들은 사라져버렸다.

《히야-》

룡결은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조종의 성스러운 령봉인 백두산은 옷자락을 기폭처럼 휘날리시며 거연히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자벌하게 어울렸다.

그후에도 룡결은 장군님의 호위병으로서 늘 그이와 함께 다녔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백두산정에서 산중의 왕인 호랑이를 별별 떼게 하시고 용악스런 맹수를 집짐승처럼 순하게 길들이시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곤 하였다.

그는 들려주기만 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청중들로부터 길들여진 호랑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그중엔 공작원의 뒤를 따라 몰래 근거지로 기여들려고 하던 밀정을 호랑이가 불쑥 나타나 물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유격대원을 호랑이가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이마를 쓸어주어 깨워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은 유격대원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따금씩 죽은 메돼지와 노루를 비롯한 산짐승들이 놓여지곤 했는데 그 소행의 임자가 바로 호랑이라는것이였다.

길들여진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백두산부근에서 뿐아니라 수백리나 실히 떨어져있는 로흑산과 액목, 산동툰에서도 많이 창조되어 전해졌다.

로흑산부근의 인민들속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로흑산에는 예로부터 호랑이들이 많았는데 그 호랑이들은 사납고 포악하기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그래 부근마을들에서는 호환이 심하여 그 피해가 막 심하였다.

왜놈들과 지주, 토호놈들의 학정에 못이겨 쫓겨 들어온 가난한 이곳 산골마을사람들은 설상가상으

로 호환 마저 겹치다보니 살림형편은 가물에 수수 잎마르듯 꼬여 만 갓고 가슴속엔 까만 재만이 가득 찼다고 한다.

집안의 큰 재산인 돼지와 양을 몰어가는가 하면 사람들에게까지 달려들어 피해를 입히니 호랑이에 대한 원한과 공포는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로흑산의 사나운 호랑이들이 착하게 길들여진것이였다.

이런 말이 처음 나돌게 된것은 로흑산부근의 어느 한 마을에 들이닥쳐 갓은 악한짓을 다하던 왜놈들이 봉변을 당한후부터라고 한다.

왜놈들은 유격대를 《토벌》한다고 마을에 틀고 앉아서 농가의 개와 돼지, 지어는 목숨처럼 여기는 소까지 잡아먹고 재산을 약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그놈들을 두고 《개토벌대》, 《돼지토벌대》라고 욕을 하며 물러가길 바랐으나 좀처럼 떠날 심사가 아니였다.

그런데 어느날 밤 왜놈들의 천막이 갈가마귀끓듯 법석하더니 아직 채 날도 밝지 않았는데 후줄근해서 모두 줄레줄레 꿈무늬를 빼는것이였다.

후에 알고보니 그날 밤 갑자기 호랑이떼가 왜놈들에게 달려들어 《토벌》대장을 비롯한 악질적인 놈들만 열댓놈 물어갔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로흑산주변을 개싸다니듯 하던 《정안군》놈들이 수림속을 지나다가 되게 혼쫓이 났다고 한다.

이놈들은 붉은 천에 《정안군》이라고 쓴 완장을 왼팔에 두르고 다녔는데 숲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서인지 호랑이가 나타나 장교든 졸병이든 가리지 않고 왜놈이라고 생긴놈들만 골라 물어갔다는것이다.

당시 괴뢰 《만주국》의 직속부대이며 《위만군》가운데서도 가장 악질적인 부대인 이 《정안군》 내에는 일본놈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래서 《정안군》놈들은 저들이 호환을 입는게 일본 놈들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든 왜놈들과 함께 다니는것을 매우 꺼리였다.

더우기는 숲속을 걸어가며 그놈들과 말하는것을 제일 싫어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로골적으로 질시하며 일본사람들은 저들의 《천황폐하》를 위해서보다도 호랑이밥이 되는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조선과 만주로 건너온 작자들이라고 야유까지 하였다고 한다.

하여튼간에 인민들이 제일 미워하는놈들만 마대안의 썩은 감자 썩아내듯 꼭꼭 골라가며 물어가니 모두들 이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호랑이들을 왜놈을 미워하게 길들이시여 온 천하에 놓아보내신것이라고 하면서 매우 통쾌해하였다고 한다.

어랑타령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름마 지여라 어랑타령이로구나

1. 어랑타령 본고향은 강원도 원산이구요
이내 나두 본고향은 백두산천지라네
어랑어랑 어허야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백두산천지로다
2. 독수리새끼 뜬 곳엔 병아리 간 곳이 없구요
백두산호랑이 가는 곳엔 쪽발이 간 곳이 없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호랑이세상이로구나
3. 자라보고 놀란 놈 솔뚜껑보고 놀란다더니
백두산호랑이 말만 들어도 쪽발이 덜덜 떠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호랑이세상이로구나
4. 일락서산에 해가 똑 떨어지니
백두산호랑이 파웅소리에 쪽발이 모가지 떨어지네
어랑어랑 어허야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호랑이세상이로구나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여
부른 민요 《어랑타령》에 대하여

장 권 표

광복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여 부른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인민가요들이 창조되어 널리 불리워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

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십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여 부른
가요들에는 우리 인민이 망국노의 운명에 처하고 민족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을 때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평복의 위업에 나서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 열렬한 흠모와 기대가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며 백두산에 솟아오른 장군별로 백두산의 호랑이로, 하늘이 낸 명장으로 칭송한 수많은 전설들과 노래들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구원하여줄 절세의 위인의 출현을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려 온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모신 환호의 분출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여 부른 가요들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민요의 곡조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내용을 담아 부른 민요들도 창조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민요 《사발가》에서는 백전백승하는 김장군부대에 의해 녹아나는 일제놈들의 꼴을 팔팔 끓는 《술안에 든 팔신세》로 노래하고있으며 《웅혜야》에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유격구에 세워주신 인민혁명정권밑에서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된 인민들의 환희와 랑만적정서를 노래하고있다.

오랜 세월 인민들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전해져 내려오고있는 민요는 각이한 시대를 반영한 노래들로 계보를 이룬 가요군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민요가 전해져내려오는 과정에 각이한 시대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반영하며 재창조되어왔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오랜 민요일수록 거기에는 다양한 가사를 가진 변종들이 있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혁명가요들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한 혁명적내용을 민요곡조에 담아 재창조한것은 이 시기 민족음악발전에서 하나의 경향으로 되어왔다.

《어랑타령》도 이러한 사회적시대적흐름을 타고 창조된것이다.

《어랑타령》에서는 《어랑 어랑 어허야》의 후렴구의 조흥구를 그대로 살리면서 가사 전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이 민요에서는 조종의 산 백두산을 조국광복의 핵 불이 타오른 민족재생의 본 고향으로 노래하고있으며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광복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의 호랑이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내용을 담은 《어랑타

령》은 1930년대이후 중국 흑룡강성 묵단강시 조선인부락들에서 널리 불리워진 노래이다.

일제를 격멸소탕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 호랑이로 칭송한 가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일제는 멸망하고 조국은 반드시 광복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었다.

광복전 칠성관에 오른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위인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우리 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백두산 호랑이로 높이 칭송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하늘이 낸 명장으로, 백두산호랑이로 노래한 전설이 널리 창조되어 전파보급되었다.

우리는 이 가요에서 광복전시기에 인민들속에서 널리 전파되었던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한 혁명전설의 사상적지향이 그대로 시적형상으로 일반화되어있음을 보게 된다.

가사 1절에서는 어랑타령의 본고향은 원산이나 내 고향은 백두산천지라고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백두산에서 조국광복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일제를 쳐부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조국은 반드시 광복된다는 신심과 광복된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그날이 오리라는 확신에 넘쳐 조종의 산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으로 우러러 내 고향으로 노래하고있다.

혁명적자부심과 긍지에 넘친 이러한 절절한 사상감정은 2, 3, 4절의 후렴구에서 《호랑이세상이로구나》로 반복됨으로써 더욱 강조되고있다.

가사의 2, 3, 4절은 점진적구성의 수법으로 백두산호랑이 무서워 싸움도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살 곳을 찾는 쪽발이왜놈들의 추악한 몰골을 점차적으로 승화된 사상감정으로 고조시켜 4절에서 백두산호랑이 따웅소리에 쪽발이 모가지 떨어진다고 통쾌하게 묘사함으로써 일제의 패망을 노래하고있다.

우리는 이 가사에서 신출귀몰하고 천변만화한 기묘한 전법으로 적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며 축지법을 쓰시는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칭송하여 부른 《어랑타령》을 비롯한 가요들은 오늘날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하여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나가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수령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1939년 봄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무산지구로 진출하였습니다.

...

그날 펼쳐진 풍경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녀대원들이 진달래무더기앞에 웅크리고 앉아 꽃 구경을 하면서 울고웃으며 감격해하던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녀대원들은 두팔을 크게 벌려 진달래를 무더기채로 안고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얼굴은 웃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내리더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 진달래는 단순한 자연의 꽃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외적에게 강탈당한 조국의 한부분, 하나의 살점과도 같은것이였습니다. 진달래는 웃고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그저 웃음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뽕찌산대원들이 진달래를 보고 눈물을 흘린것처럼 진달래도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것만 같았습니다. 애국심이란 참으로 강렬한 감정입니다. 진달래한테야 무슨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진달래라고 하여 오늘의 진달래와 무엇이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망국의 설움을 안고있던 우리 눈에는 진달래마저 그 망국을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는것 같았고 눈물로써 외적에게 강탈당한 땅에서 피고지는 서러운 신세를 하소연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날 유격대원들은 이 꽃을 그저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조국의 진달래라고 불렀습니다. 조국의 진달래, 이 말속에는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광복의 봄을 앞당기고 해방된 조국강산에 인민의 행복을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유격대원들의 열렬한 념원이 담겨져있었습니다.

나는 진달래꽃을 볼 때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나날들이 회상되어 시라도 읊고싶은 충동을 받곤합니다. 조국의 진달래, 백두산의 진달래, 연분홍색 진달래. 조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얼마나 많은 뜻이 어려있는 아름다운 꽃입니까.》

가사

금수산기념궁전 하늘가에 새벽까지 우짖네

리 성 혁

금수산기념궁전 노을피는 하늘가에
전선길의 새 소식 첫 새벽에 안고왔나
수령님의 밝은 미소 넘치는 하늘가에
새벽까지 우짖네 새벽까지 우짖네

간밤에도 최전선 병사들을 찾아가신
장군님의 그 사랑을 첫 새벽에 노래하네

수령님의 미소어린 파사론 노을속에
새벽까지 우짖네 새벽까지 우짖네

수령님의 위업을 총대로 펼쳐가는
장군님의 전선소식 첫 새벽에 노래하네
태양의 미소안고 밝아오는 이 강산에
새벽까지 우짖네 새벽까지 우짖네

수령님의 록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 계시면서 사용하시던 물건들은 모두 똑같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수수함과 평범함이었다. 그이께서 수십년간 사용하신 텔레비존도 우리 나라의 많은 가정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목란》표 텔레비존이였고 그이께서 생의 마지막나날에 신으시였던 실내화도 어데 가나 볼수 있는 비닐실내화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물건들이 일치하게 가지고있는 속성처럼 느껴지는 수수함과 평범함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다함없는 깊은 감동으로 젖어들게 하고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물건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밤색수첩이나 쌍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실례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것은 그러한 평범한 물건들중의 하나인 록음기를 두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전해지고있는 이야기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록음기를 몹시 애용하시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서 사용하신 록음기는 1970년대부터 쓰시는 구식록음기였다. 그 록음기는 무척 오래동안 사용하다보니 일군들이 보기에는 음질도 좋지 못하고 제대로 잘 동작하지도 않는것 같았다.

1970년대부터 주체83(1994)년까지면 20년의 긴 세월이여서 그동안에 나온 최신식록음기만도 수백종에 달할것이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직 그 록음기만을 사용하시었다.

일군들은 록음기를 애용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제일 최신식이라고 하는 록음기를 마련해드린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으나 그때마다 그이께서는 지금의 이 록음기도 좋다고 하시면서 최신식록음기들은 과학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들에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결국 어버이수령님께 새 록음기를 드리려던 일군들의 생각은 종시 실현되지 못하였고 수령님께서서는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변함없이 그 구식록음기를 사용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록음기를 즐겨 사용하시었는데 산보시간이나 휴식시간은 물론 식사시간 지어는 리발을 하시는 때에도 록음을 들으시었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노래를 좋아하시니 록음기로 음악을 들으시는 동안은 휴식하시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시는

가는 외국에까지 알려져있다.

지난 1950년대 3년간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전선에 종군하였던 이전 소련의 저명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 장편서사시 《김일성장군》에서

군용외투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아리랑》을 부르는 그이를 보았다는
전사도 있고...

라고 감동깊이 쓰기까지 하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더듬어보아도 노래와 혈연적인 인연을 가지고있음을 알수 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지방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실 때 주변구역에 주둔하고있는 한 나어린 인민군전사가 풀피리로 《사향가》를 부는 소리가 그이께서 계시는 숙소에까지 들려왔다.

한 일군이 풀피리소리가 수령님의 사색에 지장을 준다고 그 전사에게 알려주자 그날부터 더는 풀피리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이것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 풀피리소리는 나에게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았소. 저녁마다 그 소리를 듣는것이 나에게는 아주 좋은 휴식이였소.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창문가에 서서 풀피리소리를 들으며 현지지도에서 쌓인 피곤을 잊어버리곤하였소. 그런데 풀피리를 불지 못하게 하다니...》

너무도 뜻밖의 말씀에 일군은 당황해하면서 그 병사에게 다시 풀피리를 불도록 하겠다고 말씀올리었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가로 저으시며

《아니, 그럴 필요는 없소. 나를 위해서 풀피리를 다시 불라고 하면 그 병사는 벌써 자기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지 못할거요.》 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저녁마다 기다리시던 풀피리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것을 여간만 서운해하지 않으시었다.

일군이 자책감으로 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가시여 깊은 감회에 잠기신채 말씀하시었다.

《〈사향가〉의 피리소리가 정말 인상깊었소.》

이처럼 노래를 좋아하시는 수령님이시기에 일군들은 그이께서 록음을 들으시는 시간에는 조금이라

도 휴식을 더 하리게 하려고 정숙을 보장하기 위해 마음을 쓰곤 하였다.

그러면서 일군들은 그이께서 좀 더 좋은 녹음기를 사용하여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그 소원은 소원으로만 남고 말았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 (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실 때의 짧은 휴식시간에도 레시바를 끼시고 그 녹음기로 녹음을 들으시었다. 일군들은 아마도 그이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으시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한 일군은 그이의 집무실을 정리하다가 그이께서 그 마지막날에 들으신것이 무슨 노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녹음기의 시동단추를 눌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녹음기가 동작하지 않았다.

다시 몇번 눌러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았으나 여전히 녹음기는 동작하지 않았다.

도저히 그 이유를 알수 없었다.

그 일군은 이번에는 테프를 꺼내어 다른 녹음기에 넣어보았다. 그 녹음기는 제대로 동작하였으나 테프에서는 아무소리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너무도 이상하여 여러 녹음기에 넣어보았으나 여전히 소리가 재생되어 나오지 않았다. 틀림없이 아버지수령님께서 들으시던 테프인데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야 그 이유를 알수 없었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일군은 테프를 아버지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녹음기에 넣어 정히 보관하였다.

그후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에 나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생활도구들과 애용품들을 아픈 마음으로 주의깊게 돌아보시었다.

그때 그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그 녹음기에 대하여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서는 녹음기를 주의깊이 살펴보고는 시동단추를 누르시었다.

그러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전혀 동작하지 않던 녹음기가 거침없이 동작하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놀라는 일군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시며 말씀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날에 들으시었던 녹음을 우리모두 함께 들어봅시다.》

일군들은 모두 긴장하여 녹음기를 지켜보았다.

무슨 노래가 나올것인가. 아버지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날에 짧은 휴식을 하시며 들으신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그런데 뜻밖에도 녹음기에서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가지 자료들이 나오는것이 아닌가.

국제정세에 대한 자료, 정치, 경제, 군사에 대한 국제국내자료, 농업의 발전추세, 지어는 저질탄보이라에 대한 자료까지 있었다.

일군들은 모두 목이 왁작 메여오름을 느끼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짧은 휴식시간에조차 노래를 들으며 휴식하신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자료들을 들으시며 당과 국가, 우리 혁명이 나아갈 길을 구상하신것이 아닌가.

녹음기에 대하여 보고드린 일군의 뇌리에는 문득 언젠가 아버지수령님께서 리발하실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레시바를 끼신채 주무시듯 눈을 감고 리발결상에 앉으시여 리발사가 준비를 하는 동안 녹음을 듣고 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리발보를 두르신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었다.

그이께서 조금이라도 더 휴식하시게 하려고 우정준비를 천천히 하던 리발사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일어서시여 리발사를 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더 놀라와하시는것이였다.

《내가 리발을 하겠는가. 허허허》

그이께서는 다시 결상에 앉으시며 전에 없이 리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리발사동무, 미안한 부탁인데 오늘은 리발을 좀 빨리 해주시오.》

그날 리발을 끝내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농업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협의회를 여시었다.

협의회에서 수령님께서서는 농사에서 비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농사에서는 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료는 곧 쌀입니다. 비료를 구색에 맞게 제때에 잘 치는것이 농업생산을 높이는 기본방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부문에서는 질소, 린, 카리비료만 중시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됩니다. 그 비료들과 함께 규소비료도 주어야 합니다. 규소비료는 질소, 린, 카리비료와 함께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4요소비료입니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규소비료생산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었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자 일군은 그날 아버지수령님께서 리발을 하시며 그 시간에 노래가 아니라 규소비료에 대한 과학기술자료를 들으셨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있었고 여러가지 자료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드디어 자료들이 끝나자 《사향가》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가장 좋아 하시던 《사향가》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차안에서도 이 노래를 자주 부르시었고 금수산의사당에서도 일군들앞에서 이 노래를 몸소 부르시지 않았던가.

참으로 수많은 사연을 말해주는 노래였다.

은은한 선율을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록음을 끄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방금 들었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짧은 휴식시간에조차 국제정세와 국내정세, 경제문제들에 대하여 연구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생에 단 한순간의 휴식도 모르셨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수령님의 휴식을 위하여 올린 이 록음기조차 수령님께서서는 민족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색에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노래조차 들으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수령님의 평생에 단 한순간의 휴식이라고 있었다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손수건으로 눈굽을 누르시며 창가로 돌아서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자책속에 잠겨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모두 어버이수령님처럼 일해야 하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일군들이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가에서 돌아서시였다.

《그럼 록음을 마저 들어봅시다.》

그 록음을 다룬적 있는 일군은 주저하였다. 그가 시동단추를 눌렀을 때는 전혀 동작하지 않던 록음기였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힘을 주듯 머리를 끄덕이시여

서야 그는 용기를 내어 시동단추를 눌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록음기가 놀랍게도 스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는것이였다.

록음기는 이제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만을 기다렸던것이 아닐가.

록음기가 스르륵 돌아가더니 갑자기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느 회의에선가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이였다.

《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지만 동무들이 나를 받들듯이 **김정일**장군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김정일장군이 없으면 동무들도 없고 조국도 없습니다.

지금은 **김정일**시대입니다.》

일군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심장으로 맹세다졌다.

《알겠습니다. 어버이수령님!》

참으로 수령님의 록음기는 신기하였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이 누를 때는 동작하지 않던 록음기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번 눌러주신후로는 제대로 동작하는것일까. 이 의문에는 어느 일군도 어느 록음기전문가도 대답을 줄수 없었다.

허나 우리 인민들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록음기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위대한 장군님께 직접 전하기 위하여 그런 조화를 부린것이다. 태양의 위업을 태양만이 이어받는것은 하늘의 철리임이 틀림없다.》

김우경

명언해설

《우리 수령님은 만민을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따르고 우러르는 은혜로운 태양입니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어버이수령님은 만민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그들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이민위전**》을 한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오신 전기간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였으며 안겨줄수 있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조국과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주는 파사로운 위대한 어버이의 품이였으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적인류가 모두 안겨산 한없이 넓고 넓은 위대한 태양의 품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신념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혁명일와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시며

어느해 봄날 밤이 좀 이속해지는 무렵이었다.

한 일군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부르심을 받
게되었다.

그 일군은 무슨 긴급한 일감이 제기된줄로만 생
각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일군을 반겨맞아주시
면서 어느 한 방으로 이끄시었다. 그런데 그 방에는
뜻밖에도 식탁이 차려져있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일군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사실은 래일이 동무의 생일인데 래일은 짬을 낼
수 없어서 오늘 식사나 한끼 같이하자고 오라고 했
다고 말씀하시며 수저를 들려주시었다.

그 일군은 솟구쳐오르는 걱정애 한동안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평범한 한 전사의 생일을 잊지 않으
시고 몸소 생일상을 차려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애 눈곱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노래를 부르
자고 하시며 운을 떼시었다.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주고 살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동지애의 노래》였다.

노래는 일군의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가사
의 구절구절이 다 불덩이마냥 가슴을 확확 달구어
주는것 같았다.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
애 깊이 끌려들어 마음을 합쳐 노래를 따라불렀다.
그 다음다음날이었다.

또다시 그 일군을 부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그를 어느 한 방에 차려진 식탁으로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차린것도 변변치 못
하지만 자신의 성의로 알고 생일축배나 한잔씩 들
자고 하시며 손수 일군의 잔에 술을 가득 부어주시
었다.

가슴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걱정애 누를길 없어하
는 그 일군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경애하는 장군
님께서서는 우리 노래를 부르자고, 전번에는 《동지
애의 노래》를 1절밖에 부르지 못했는데 오늘은 2
절을 마저 부르자고 말씀하시었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노래를 다 부르시
고 나서 이 노래는 참 좋은 노래라고, 이 노래야말
로 정말 명곡이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는 한부모의 피줄을 받아안고 함께 자라난
아들딸들을 흔히 형제라고 부른다. 그러면 동지란
무엇이겠는가. 일반적으로 동지란 같은 사상과 뜻
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에서 같이 싸워나가는 사람
들을 두고 말한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는다...

심원한 뜻이 담긴 그이의 말씀을 일군은 가슴속
에 자자구구 새겨넣었다.

...하지만 나는 동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게 된다.

동지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수령의 사상을 한피줄로 받아안고
함께 숨쉬며 싸워나가는 수령의 아들딸들이다.

다시말하여 동지란 수령을 아버지로 모신 혁명의
한 식솔들이다.

따라서 동지애의 세계는 한가정의 형제들사이의
관계보다 비할바없이 심오하고 광대하며 더없이 아
름답고 고결하다...

순간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동지
애의 세계가 무한히 숭엄하고 찬란하게 눈앞에 비
껴오는것을 느끼었다. 그리고 그이께서 어이하여
생일상을 차려주실 때마다 《동지애의 노래》를 불
려주시었는지 그 깊은 뜻이 뜨겁게 느껴졌다.

수령님과 가을

김 명 옥

땅이 꺼질듯
무겁게 고개속인 벼이삭들도
달려와 달려와 수령님 품에 안기는
풍요한 들길에서

보아주시누나 우리 수령님
학교길에서 돌아오는
1학년생 꼬마들의
글씨서툰 학습장을

국가중요문건을 받아보시듯
한장한장 번지신다
소중히 그리고 무겁게

다정히 허리굽히시어
아이들의 두볼을 쓰다듬어주시며
온별이 환하도록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수령님

아느냐 아이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바쳐지는 수령님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분분초초인줄

수령님뒤에선
영웅관리위원장어머니
이 별의 흐뭇한 작황을 보여드리려
마음을 바재이며 기다리고 섰는데

수령님은 잊으신듯
철없는 아이들의
응석어린 말까지도
국사마냥 귀담아 들어주시니

아, 가을
가을은 별에만 있는것이 아니여라
수령님은 우리 수령님은
더 큰 가을을 안고계셨구나

칠골집 우물

김 형 준

언제나 우물 가득
가난이 서리엿건만
인정이 넘치던 칠골집 우물

다섯발드레에
가난이 칭칭 무거웠어도
우물 가득 고이는것은 후한 인정

칠골의 너인들
동이이고 우물가에 나오면
선참 맞아주시던 강반석어머님

늦은밤엔 보름달로
이른새벽엔 솟는 해로
너인들 마음속에 빛이 되신 어머님

열두폭 무명치마

가난깊은 주름속 봉건의 눈물
휙휙 행구어 씻어버리던 칠골집 우물

우리가 잘 살자면
왜놈과 지주놈들 없애야 한다고
동이마다 가득 채워주시던 애국의 넋

아침저녁 우물가에서
жат을줄 모르던 빨래방치소리는
숙명의 굳잠을 두드려 깨우는 소리

아, 칠골의 너인들
아침저녁 우물가에서
동이 철철넘게 물만을 이고 갔던가

어머님마음 담고갔지
투쟁의 새힘을 안고갔지

단편소설

영원한 노을

김혜영

1

야전차들은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산릉선을 따라 달리고있었다. 무르익은 산열매들의 들쭉한 향기가 선들바람에 실려 차창으로 흘러든다. 산자드락에 다복다복 피어난 들국화꽃송이들이 반기듯 차창바투 다가왔다가는 물러나고 또 다가든다.

차안의 록음기에서는 새로 형상한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노래가 힘있게 울리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위세계를 잊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그이의 눈앞에는 방금전에 떠나오신 전선동부 군부대산하의 한 구분대 군인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격술훈련, 사격훈련, 전술훈련...

구분대의 전투준비상태를 보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수행한 장령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일당백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가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은 굳건히 수호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점심식사준비가 한창인 식당에도 들러보시었다.

아담하게 꾸러진 식당에서는 두 병사가 식탁우에 한창 밥을 차려놓고있는중이었다.

밥차림당번들의 인사를 받으시고 식탁우의 밥그릇과 반찬그릇들을 여겨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안색을 흐리시었다.

《밥량이 적구만.》

앞치마를 두른 한 전사가 눈물이 글썽해서 대답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일없습니다. 우린 배고프지 않습니다.》

《돌도 삭일 나이인데 배고프지 않다?》

《장군님!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장군님, 우린 일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기만 할뿐 말씀을 더 잊지 못하시었다. 조국의 초소를 굳건

히 지켜가고있는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것이 가슴아프시었다. 군부대일군들에게 부대후방경리사업을 개선할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끝내 간소한 점심식사마저 마다하시고 귀로에 오르시었다...

야전차들은 험준한 산악지대를 벗어나 벼이삭설레이는 평야를 달리고있었다. 아담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어느 리소재지마울이 다가온다. 마을중심에 새로 세운 영생탑이 서서히 지나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생... 우리 수령님의 영생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백방으로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님께서 80여성상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해주신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국방력강화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조국의 최전연초소를 지켜선 군인들에게 넉넉히 먹이지 못하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저러들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지그시 감으시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혹심한 자연재해로 올해에도 농사가 잘되지 않았다. 나라쌀독의 많은 뭍을 차지한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의 많은 농장들에서 정보당 예상수확고가 레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졌다. 수령님의 여러차례 현지지도사적이 깃든 신평협동농장도 작년보다 정보당수확고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장군님의 사색은 자연히 신평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인 김인호에게 향해졌다. 장군님께서 인호를 처음 아시게 된것은 30여년전이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해 8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황해남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대한 현지도의 길

을 이어가고 계시었다.

차가 신평리로 향했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열좌석에 앉으신 장군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신평리 관리위원장 김웅찬이 아주 멋있는 일군이요. 생긴것도 미남이지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패기가 있거든. 내밀성이 강한데다 언변술까지 좋아 신평사람들이 그의 음성만 들으면 졸다가도 번쩍 깨어나곤 한다고 하오.

이젠 그를 만나본지도 1년이 되었군.》

수령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의 정회가 함뿍 어러있었다. 그래 장군님께서도 김웅찬의 얼굴을 상상해보시면서 어서 그를 직접 만나보고싶은 조바심마저 느끼시였었다.

중천에 떠오른 해가 대지를 태워버릴듯 뜨거운 폭양을 퍼부어대고있었다. 불볕에 시달려 휘줄근해진 가로수일이며 강냉이밭들이 차창을 훤히 스쳐지나갔다.

《사실 웅찬관리위원장은 내가 준 파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구 몸을 아끼지 않았소. 내가 정전된지 한주일만에 신평에 가서 전쟁시기 원썬들과의 싸움에서 피를 많이 흘린 그 고장에 남먼저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자고 했는데 그는 정말 협동화를 제일 먼저 끝냈거든. 협동화뿐아니라 토지정리, 살림집건설, 파수원조성, 발판개에서두 단연 전국의 본보기가 되군 했지. 엄동설한에도 우등불을 피워놓고 내의바람에 일하군 했소. 그래 58년도 서부지구 관리위원장회의에서 내가 그에게 <농촌혁명가> 칭호를 주었지.》

혁명동지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담긴 수령님의 말씀이시였다.

차가 신평리관리위원회앞에 이르자 일군들이 감격에 겨워 달려나와 인사를 올렸다.

그들의 인사에 답례하시던 수령님의 안광에 언뜻 한줄기 의혹의 빛이 스쳐지나갔다.

《왜 관리위원장동무가 보이지 않소?》

무엇때문인지 매우 난감한 기색을 지은 한 일군이

《저... 관리위원장동무는...》 하고 말끝을 맺지 못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소?》

수령님께서 성급히 되짚어 물으셔서야 그 일군은 김웅찬관리위원장이 불치의 병으로 입원한 사실을 말씀올렸다.

《뭐-라구?!》

수령님께서서는 놀란 눈길로 그를 쳐다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금시 내려앉는것만 같으시였다.

《웅찬이가 그럴수 있는가?... 아니, 그렇게 꺼꾸러질 사람이 아니야. 정말 패기있구 전도유망한 일군이었는데... 그가 병으로 쓰러지다니, 믿을수가 없소. 믿을수가...》

수령님께서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무척 피로와하시였다. 관리위원장이 없는 그날의 이야기분위기는 어두웠다.

수령님께서서는 구석쪽에 앉은 웅찬의 안해 류혜선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물으시였다.

《관리위원장동무가 어느 병원에 가있소?》

혜선은 최지은 사람처럼 소곳이 일어나 겨우 남편이 가있는 지방병원이름을 아뢰였다.

《헌데 왜 그걸 나한테 제때에 알리지 않았소?》

혜선은 고개를 수그린채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답답하싯듯 옷깃단추를 벗기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시였다.

대대로 물려오던 초가집자리에 네귀번듯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 그너머 물길들이 가로세로 뻗은 휘연한 논벌에 푸르게 자라는 벼포기들, 그 옛날 쑥대와 잡관목만 우거졌던 왕대산에서 열심히 열매들을 살찌우고 있는 청춘기의 과일나무들... 그속에 스며있는 한 전사의 숨은 노력을 헤아려보시는듯 한동안 침묵속에 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이윽고 혼자말씀처럼 조용히 뇌이시였다.

《미리 손을 써주었어야 하는걸 그랬소. 우리가 잘 돌봐주지 못했소.》

장내의 여기저기서 흐느낌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었다.

류혜선이 눈물을 삼키며 떠듬거렸다.

《수령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나을겁니다.》

《그래, 나아야지 이제라도 중앙병원에 후송해서 그의 병을 꼭 고쳐줍시다.》

수령님께서서는 힘주어 말씀하시고나서 비로소 안색을 바꾸시였다.

그이께서는 떠나시기 앞서 문득 생각나싯듯 《참, 유치원을 새로 지었다지. 어디, 가보고 갈가?》 하시더니 유치원원장인 류혜선을 앞세우시였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남편때문에 속태우는 한 녀인을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주시는 수령님의 속깊은 인정에 가슴이 뜨거우셨다.

자체의 힘으로 건설했다는 유치원은 매우 아담

했다. 마당가운데는 누운향나무가 운치있게 자리 잡았고 꽃벽돌담장돌레로는 놀이시설들이 그쯘하게 늘어섰다. 산뜻한 단층건물의 내부도 나무랄데 없이 꾸려졌다.

교편물실과 교양실, 낮잠실, 식당칸을 거쳐 높은반 교실에 들어서시니 마침 그림공부를 하던 어린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달려와 겨꿈내기로 동동 매여달렸다.

수령님께서 환히 웃으시며 귀여운 아이들의 볼을 정겹게 다독여주시었다. 그러시다가 바람벽에 걸어놓은 《착한 동무》판을 띄어보시었다. 경쟁도표 형식으로 매 어린이이름우에 붉은줄이 각이하게 뻗어올라갔는데 제일높이 올라간 붉은 줄우에 커다란 별이 걸터앉았다.

수령님께서 그 의미를 헤아려보신듯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허허 아주 신통한 방법이군. 멋있어! 그런데 이거 큰 별을 차지한 김인호가 누군가?》

《옛! 납니다!》

아이들을 비집고 가슴을 쑥 내밀며 나서는 꼬마의 입에서 되알진 목소리가 굴러나왔다. 이마가 반듯하고 쌍까풀진 눈에 류달리 충기가 빛나는 사내애였다.

《이 녀석, 룽룩참게 생겼는데. 누구 아들이지?》

수령님께서 결에 선 류혜선의 얼굴을 돌아보며 웃으신다. 인호는 이목구비가 원장인 어머니를 꼭 닮은것이다.

그런데 꼬마는 당돌하게 웨친다.

《난 김일성원수님 아들입니다!》

《하하...》

경탄의 웃음이 터져올랐다.

수령님께서도 환히 웃으시며 꼬마를 덤석 안아 올리시었다.

《우리 인호한테 뭘 줄까? 가만...》

그이께서는 뒤에 선 부관을 찾으시었다.

부관의 손에는 방금전 처녀교양원이 수령님께 드렸던 꽃다발이 들려있었다.

《자, 착한 일 많이 해서 큰 별을 차지한 인호가 이 꽃다발을 가져라. 아버지가 주는거다.》

수령님께서도 화려하고 탐스러운 그 꽃다발을 인호의 작은 가슴이 별게 안겨주시었다.

《히야! 꽃다발!》

꼬마는 꽃다발을 두팔로 그러안고 환성을 지른다.

수령님께서도 그러한 모양이 더욱 귀여우시여

꼬마의 해말쑥한 볼을 다독여주시었다.

꼬마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허나 물러선 사람들의 눈에는 물기가 맺힌다...

수령님품에 건듯 들리워 세상을 다 안은듯 행복에 겨워 웃는 그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뜨거운것을 삼키시었다.

평양으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김웅찬을 적십자 종합병원에 후송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해 주시었다. 수령님의 명의로 진귀한 보약들을 보내주시고 치료정형을 자주 알아보시였으며 명절날에는 병원 침상에 답답하게 누워있을 그를 생각하여 승용차도 보내주시었다.

허나 김웅찬은 장군님의 안타까우신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한채 1년 2개월만에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지 얼마 안되었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시다가 어느 한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발판개를 처음으로 실현한 신평협동조합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젊은 관리위원장과 함께 하얗게 물보라 날리는 양수장을 배경으로 환히 웃으시며 찍으신 사진이었다.

《...살았으면 당을 위해 많은 일을 했을 사람이... 너무도 일찌기 갔거든, 너무도...》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하시는 김웅찬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여겨보시었다.

하관이 빠른 강파름한 얼굴에 정기있는 어글어글한 눈매, 우뚝 날이 선 코와 녀성적으로 섬세한 룽곽을 그린 입술...

수령님께서서는 애석함을 금치 못하시여 전사의 모습을 점도록 지켜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후 배개밑에서 나온 18개의 약봉지에는 농장을 더 훌륭히 꾸려나갈 전망계획이 깨알처럼 적혀있었다고 하오.

그는 정말 농촌혁명가였구 충신이였소.》

그후에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웅찬관리위원장을 추억하시였었다...

그때로부터 어언 30년.

청천벽력과 같이 민족의 아버지를 잃어 온 강산이 피눈물의 바다가 되었던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 힘을 주는 수많은 편지들과 자료들가운데서 낫익은 이름을 발견하시였다.

농업위원회에서 제출한 문건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농업위원회 지도원으로 사업하던 김인호동무는 자기들이 전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 어버이수령님을 잃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 김웅찬이 일하던 황해남도의 신평협동농장으로 내려가 현장에서 쌀로써 당을 받겠다고 제기하였습니다.…」

(김인호… 그 꼬마가 이렇게 성장했던 말인가!) 격세지감이 아닌 류다른 충격이 그이의 가슴을 울리었다.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꽃다발을 받고 깔깔 웃던 그 꼬마의 귀여운 얼굴이 눈에 삼삼해왔다.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셨더라면 이렇게 성장한 김웅찬의 아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랴!)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려는 김인호가 한없이 미더우셨다. 그에게 자신의 사랑과정을 다 쏟아부어주고싶으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인호에 대한 문건표제우에 힘주어 마지크를 달리시었다.

《좋은 동무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 당의 충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건을 밀어놓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최명옥동무를 찾소.》

잠시후 농업위원회책임일군인 최명옥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장군님, 최명옥이 전화를 받습니다.》

《음, 농업위원회에서 제출한 문건을 보았소. 김인호를 소원대로 신평리에 진출시키는 경우 어떤 직책을 주려고 합니까?》

《저, 본인의 요구는 평농장원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해서…」

《본인의 요구가 그렇단 말이지요?》

《그 동무를 만나보았는데 직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장원으로라도 수령님의 자욱이 깃든 고향땅에 한생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테지. 그렇지만 인호동무야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중앙기관의 지도원을 하던 동무가 아니요. 지금 신평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관리위원장은 얼마전에 나이가 되어 들어가고 기사장이 대리하고있습니다.》

《관리위원장 자리가 비여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인호동무가 관리위원장직무를 감당해낼수 없을가?》

《예?!》

최명옥은 뜻밖인듯 인차 대답을 하지 못한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심정을 넘겨짚으시었다.

《물론 경험이 없으니 처음은 힘들수 있소. 하지만 그 동무의 아버지가 지냈던 일군다운 기질이야 어디로 갔겠소? 대 끝에서 대가 나오겠지 아무렴 같이 나올라구? 경험은 관리위원장을 하면서 쌓으면 되는것이고… 그렇지 않소?》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는 동무들이 많은데 해당기관들에서 환송모임과 환영준비를 잘하도록 하여야겠소. 신문과 방송으로도 널리 소개하고…」

《알겠습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그 대견한 동무들을 모두 만나 어깨도 두드리주고 고무도 해주고싶은 심정이시었다.

어느날 장군님께서서는 황해남도 농촌경리부문사업을 료해하시다가 김인호가 어떻게 일하고있는지 알고싶으시여 전화로 찾으시었다.

《인호동무, 한번 본때있게 농사를 지어보시오.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땅에는 마땅히 꽃도 제일 고운 꽃이 피고 열매도 제일 큰 열매가 맺혀야 하오.

나는 동무아버지가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앞장에 섰던것처럼 동무도 꼭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수화기에서는 감격한 인호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이몸이 부서져 거름이 되어서라도 꼭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김인호를 대견히 여기시며 앞0으로 애로되는것이 있거든 자신께 직접 제기하라고 단단히 다짐을 두시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김인호는 한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도 이 1년은 새해벽두 다박술중대로부터 각지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몹시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느라 그에게 전화 한번 걸어보실 여유가 없으시었다.

그러나 오늘날 기대에 어긋나는 농사실태를 대하시교보니 실망보다도 의혹이 더 짙게 갈마드시었다.

이렇게 되기까지엔 애로도 많았겠는데 왜 전화 한번 해오지 않았을까? 다른 곳도 아니고 수령님의 여덟차례나 되는 현지지도를 받은 농장이 아닌가?

장군님께서서는 금시라도 차를 돌려 인호가 있는 신평으로 달리고싶은 마음이시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것이 못내 안타까우시
였다. 벌써 날이 저물고있었다.

2

이 시각 관리위원장 김인호는 어둠이 깃든 들길
을 터벌터벌 맥없이 걸어가고있었다.

입에서는 때없이 꺼질듯 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판정수확고
가 그렇게밖에 안걸리다니...)

정말 몸부림이라도 치고싶었다.

그는 논두렁에 들어가 벼이삭들을 쓸어보았다.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 고여올랐다.

인호는 고개를 들었다.

희뿌연 달빛아래 무연한 들판이 숨을 죽이고 누
워있다.

아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
의 자욱이 새겨지고 아버지의 넋과 피땀이 스민
성스러운 이 땅! 자기의 한생을 강그리 바쳐 더
아름답게 빛내이고 더 풍만하게 살찌워가려던 이
땅이었건만 문득 1년전 고향에 내려왔을 때의 일
이 떠올랐다.

옛관리위원장의 아들을 맞이한 신평사람들의
기대는 눈물겨우리만큼 컸다.

그 기대를 가슴이 빠근해지도록 절감하며 인호
는 몇번이고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어냈다.

《여러분, 저는 뒤늦게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고향땅에 뿌리내릴 결심을 하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떼려는데 불과한 저에게 사랑의 친필까지
안겨 주시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이 배워주고 채찍질도 해주십
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친필서
한은 저에 대한 믿음일뿐아니라 저와 함께 일해나
갈 우리모두에 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장에 주신 수령님의 유훈을
무조건 관철하고 우리모두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
는 장군님께 회답편지를 올리자는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그날부터 그는 장군님께 회답편지를 쓰는 심정
으로 억척스레 일해나갔다. 가을장마와 태풍피해
로 물에 잠긴 벼를 구원하기 위한 간고한 전투가
벌어졌다. 칠순이 가까와오는 어머니와 농사일이
처음인 안해도 밤마다 벼단을 지어날랐다.

그러나... 생활이 언제나 출발전에 섰을 때의 그
벽잔 리듬과 박자로 약동하는것은 아니었다. 리상

과 현실간의 불일치, 욕망과 능력간의 불일치는
그를 차츰 번민에 빠뜨렸다. 그는 머리를 싸쥐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비료와 연유, 비닐박막들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부족되는 량을 어
떻게 자체로 해결한단 말인가.)

생각다못해 그는 다음날 진거름달구지를 끌고
20여리 떨어진 읍에까지 갔다왔다. 그날저녁 그
는 작업반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비료는 자체로 해결합시다. 읍에서 진거름만
다 날라와도 상당할것 같소. 세대당 계획된 퇴비
도 무조건 생산하게 하고... 자급비료반출엔 연유
가 부족한만큼 트럭포르대신 달구지와 손수레들
을 총동원시킵시다. 웬만 한 소에는 모두 보습을
메워 논밭에 내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모두가 삽을
들고 떨쳐나섭시다.》

그리고는 15개 작업반을 팽이돌듯 하며 조직사
업을 하고 추궁하고 어떤 때는 자신이 술선 삽자
루를 틀어쥐고 논밭을 두지기도 하였다. 목은 짝
쉬어버렸고 입술은 말라터졌으며 눈에는 피발이
섰다. 그러나 아무리 땀에 떠서 뿔여다녀도 뺨을
후려갈기는듯 한 난문제들은 정신을 못차리게 련
속 제기되었다.

《관리위원장동지, 당장 종자처리를 해야겠는데
전기가 오지 않아 야단났습니다.》

《랭상모판용비닐박막 모자라는건 어떻게 하랍
니까?》

《한쪽으로 씨불임을 할수 있게 로력을 좀 돌려
주십시오.》

김인호는 당황하여 좌왕우왕하지 않을수 없었
다. 송배전소와의 사업, 재생박막교환을 위한 파
비닐수집사업, 씨불임준비...

끝내 흠잡이를 40프로밖에 하지 못한채 씨앗을
묻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논벼의 초기생육상태는 좋았으나 후반기작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인호의 가슴은 불안에 타들기 시작했다.

(이런 때 이삭비료를 충분히 주었으면!)

인호는 이삭비료를 얻으려 군은 물론 도농촌경
리위원회나 농업위원회까지 뛰어다녔다.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만나 사정을 하였지만
찾아가는 사람마다 몹시 딱해하며 빈 손바닥을 내
보일 뿐이었다. 하긴 그들이라고 사정이 다름리는
없었다.

드디어 예상수확고판정의 시각은 다가왔다.

김인호에게는 이것이 수확고에 대한 관정인 동시에 자신의 사업능력에 대한 관결로 생각되었다.

그렇듯 가슴조이며 지켜본 관정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던지? 수자는 너무도 절망적이었다. 더 우기 전해에 비하여 엄청나게 떨어졌다.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다. 장군님께서 전화로 하시던 간곡한 말씀이 가슴을 찼다.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린 땅에는 마땅히 꽃도 제일 고운 꽃이 피고 열매도 제일 큰 열매가 맺혀야 하오.》

(아, 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나같은놈이 무슨 관리위원장이란 말인가?)

행여나 해서 오늘 예상수확고를 다시 관정해본 인호는 너무도 억이 막혀 볼도 켜지 않은 빈 사무실에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타는 가슴 더는 달랠 길없어 이렇게 다시 논벌로 나왔던 것이다. 달빛이 흐르는 논벌... 밤바람에 흐느끼듯 설레이는 벼이삭들... 문득 마을쪽 어디선가 알릴듯말듯 노래선물이 들려온다. 바이올린소리인 듯 싶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까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까
...

인호는 우두커니 선채 귀를 기울이였다.
아들 훈이가 바이올린을 타는것 같다.

어제날엔 평양에서 대원수님모신 설맞이공연에 간다고 극성스레 바이올린을 타던 훈이, 오늘은 장군님께서 농장에 오시면 보여드린다고 저녁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타고 또 타는 훈이였다.

문득 훈이와 똑같은 나이였던 자기의 유년시절, 잊을수 없는 그날의 영광이 되새겨졌다. 수령님께서 자신이 받으셨던 꽃다발을 큰별을 차지한 나에게 안겨주셨지. 아, 그 꽃다발! 그때는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겼는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라 받아안았던 그 꽃다발! 뒤늦게 철이 들어서야 어렵 꽃이나마 깨달았지 수령님께서 불치의 병으로 누운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린 나의 앞날을 축복해주신것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 손으로 가꾼 낱알로 기쁨의 꽃다발을 엮어 장군님께 드리리라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의 예상수확고를 보고받으시였을가. 그렇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실가?)

가슴이 아팠다.

인호는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창문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자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어머니도 안해도 기다리고있는 모양이다.

선뜻 방에 들어설수 없어 못박힌듯 문밖에 서있던 그는 문득 방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환히 드러나 보이는 현관을 입속으로 읽어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다녀가신 집》

그러자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잊을수 없어 어머니가 째짤이 쓴 글의 한토막이 선히 떠올랐다.

《1958년 1월 25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대한무렵의 추위를 무릅쓰시고 또다시 농장을 찾아주시였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길좌우로 준비하게 늘어선 새 문화주택들을 환하신 안색으로 바라보시였다.

<그동안 일을 많이 했구만, 응? 문화주택을 많이도 지었소. 옛날 지주집 부럽지 않게 말아야...>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남편의 잔등을 두드려주시더니 팔을 다정히 끼시고 새로 지은 문화주택들을 돌아보시였다.

관리위원회건물 맞은편의 빈 집을 보시며 여기는 왜 아직 사람이 들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저... 그건...>

대답을 못하는 남편을 대신하여 리당위원장이 말씀드렸다.

<수령님, 이 집은 원래 관리위원장동무에게 배정된것인데 위원장동문 조하원들모두가 다 새집에 들 때 맨나중 받겠다고 하면서 한 유가족어머니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또 관리위원장이 들기전엔 자기도 안들겠다고 한사코 양보하여 지금껏 비어있었습니다. 지금 그 유가족어머니의 집도 장관만 하면 들수 있게 다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 이 집은 어차피 관리위원장이 들어야겠구만. 관리위원장동무, 앞으로 이 집에서 살면서 자기를 존경하고 반들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말구 일을 더 잘하라구.

자, 그럼 오늘저녁은 새집들이 겸 이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부관동무, 차에 싣고 온게 있지??

<수령님! 식사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남편이 말씀드렸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오늘은 자신

께서 준비해 온것으로 하자고 하시며 집으로 뛰어 가려는 남편을 만류하시였다.

관리위원회에서 담화를 하고나신 그이께서는 남편을 이끌고 새집으로 가시였다.

<관리위원장! 내가 오늘 동무한테 뭘 가져왔나 보우.>

<예?>

뜻밖에도 상에 놓인것은 그가 좋아하는 농마국수였다.

<동무는 후창산골사람이니 가끔 농마국수가 생각 날테지.>

<수령님!>

남편은 그만 눈물이 솟구쳐올라 머리를 숙였다. 1년전에 얼핏 들으신 평범한 전사의 고향을 잊지 않으시고 농마국수까지 차에 싣고 오시다니!...

<자, 어서 앉소. 오늘은 새집들이하는 주인을 축하해서 내가 먼저 한잔 붓겠소.>

수령님께서 포도술을 잔에 부어 남편에게 권하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응찬동무! 부디 건강해서 조합원들의 사랑받는 일군이 되라구.>

<고맙습니다. 수령님...>

남편은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술잔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육체는 심장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던것이다.

아, 너무도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 너무도 일찌기 세상떠난 아버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두배세배로 하여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자 하였건만...

김인호는 현관앞 대둘에 주저앉았다. 또다시 가슴이 저려왔다.

어째서 이 땅은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것일까? 이 땅의 주인이 되기에는 나의 능력이 너무도 모자라는것이 아닐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관리위원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날밤 인호는 날이 새도록 한잠도 들지 못하였다.

3

가을비가 내리고있었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발속에 정원의 불빛도 희미하게 어둡져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윽도록 창가에서 계시였다. 이 몇달째 거의 침식을 잊다싶이 하시고 철주야로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오신 그이의 안색은 너무도 놀랍게 수척해지셨다.

허나 이 시각 그이의 심중을 괴롭히는것은 그 어떤 준엄한 정세나 과도한 육체적부담만이 아니였다.

오늘 전선에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겹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료해하시고 농업위원회 최명옥을 부르시였다.

그가 올해에 농사가 잘 안된 농장들을 직접 다니며 걸린 고리들을 알아보고 대책도 토론해주곤 하였다니 그 정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셨던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먹는문제를 풀자면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농촌에서 제일 걸린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혹심한 자연재해? 적들의 악랄한 경제적봉쇄로 인한 비료와 연유, 박막 등의 부족?...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조건에 불과하다. 그 객관적조건에 모든것을 밀어붙일수는 없다. 그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그 모든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며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줄 아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고보면 역시 사람에 대한 문제이다. 농업부문의 일군들... 낱알을 직접 가꾸는 농민들...

문득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못잊어하시며 농촌 혁명가라고 불러주시던 안달수며 림근상이며 김응찬의 모습이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팔로써 받들어온 미더운 동지들... 이제는 그들도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뒤를 잇고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있는가? 아버지들처럼 살고있는가? 최명옥이 이번에 직접 현지를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보았더니 그들에 대하여 새 소식을 안고 왔을것이다.

잠시후 최명옥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를 반겨 맞아주신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올린 문건의 결표지를 잠시 일별하시고는 자리를 권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사귀시였던 농민들과 장군님자신께서 잘아시는 농민들가운데서 그가 이번에 만나본 사람들의 안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신풍리 김인호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였다.

《그래 김인호동무와 가족들도 다 잘있습니까?》

《예. 다 잘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의 처 리순복동무는 평양에서 내려간 사람같지 않게 농장원들과 꼭 같이 어울려 일하는데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사람들의 평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며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어머니인 류혜선녀성도 유치원원장과 리너명
위원장사업을 보면서 로병들과 함께 포전에 나가
선동사업도 하고 후방사업도 한다고 합니다. 년세
가 많은데 아주 정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류혜선녀성은 전쟁시기 단발머리
처녀로 잘 싸운 경찰병출신 로병이니까.》

《그렇습니까?》

최명옥은 다소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앓음새를 고
쳐하기도 하고 공연히 머리를 쓰다듬어넘기기도
하였다.

그 부자연스러운 군동작을 물끄러미 건너다보
시던 장군님께서는 먼저 화제를 끄집어내시었다.

《그런데 어째서 관리위원장 본인에 대한 이야
기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명옥은 요진통을 찢리운 사람처럼 흠칠 눈길을
들었으나 이내 도로 떨구고 알릴듯말듯 가는 한숨
을 내그었다.

《제가 보건대... 김인호관리위원장에게는 문제
가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마음도 바
르지만 일군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것 같습니
다.》

《능력이?》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놀란 음성으로 되물으시
였다. 김웅찬의 아들이 아무렴? 하는 의혹이 앞서
시였던것이다.

명옥은 조금 주저하다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
씀드리었다.

《지금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일군에게는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는 강한 의지와 만단을
뚫고 나가는 완강한 조직전개력이 있어야겠는데
인호동무에겐 이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는 나무랄데 없지만 일군으로서는... 나약하고 소
심한것이 탈입니다.》

《그렇다?》

장군님께서는 심각한 안색을 지으시고 손끝으
로 탁자우를 도닥이시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김인
호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그 결패와 완강한
내밀성이 전혀 물려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그이의 눈앞에는 30여년전에 보셨던 인호의 얼
굴이 떠올랐다. 반듯한 이마, 총기가 빛나던 눈...

수령님께서 룽룩치 않게 생겼다고 웃으시던 일
이 어제런듯 싶다.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다를수가 있는가? 믿
어지지 않소.》

최명옥은 모든것이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는듯

피로운 표정으로

《제가 인호동무를 만나 비판을 좀 하기는 했지
만...》하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최명옥이 김인호를 만나러 관리위원장으로
가니 그는 맥을 놓고 앉아 한숨만 내쉬고있었다.
나무껍질처럼 더슬더슬해진 입술에는 물통구리가
저있었다. 충혈진 눈에는 피로와 함께 고뇌의 빛
이 력연했다.

《그래, 관리위원장동무는 올해농사가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모든것이 저의 무능탓이지
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수 있지만 동무
야 장군님께서 직접 임명해주신 관리위원장이 아
닙니까?》

《그래서 더 죄가 큰것입니다. 장군님의 믿음은
하늘같은데 보답할 능력이 못따라가니... 이런 배
은망덕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 자
격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수록 분발해서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 노
력해야지 첫해농사의 실패에 맥을 잃구 자포자기
한단 말이요?》

명옥의 엄한 충고에 김인호는 폭 떨구었던 머리
를 쳐들더니 눈물이 글썽해서 피로운 어조로 말했
다.

《사실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농사
를 망쳐놓는다면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에 있
겠습니까? 매년에도 래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될
가봐 전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니다.》

그는 지금껏 농사를 잘 지어보겠다고 동분서주
하며 아글타글 애쓰던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고나
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노력에 비해 실적이 없으니 저의 능력
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명옥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
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었다.

착잡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능력이 없다고 자신
을 한탄하며 자리를 내놓을 생각까지 하는 김인호
가 측은하다기보다 노엽게 생각되었다. 믿음에는
믿음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찌면
그렇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조건이 어떻다고 투
정질은 할지언정 자포자기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
는가? 바람벽도 문이라고 억지를 부릴지언정 신
념은 버리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과연 김웅찬의
아들이 이 정도로 나약한 인간이란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허전해지는 마음을 다잡으시며

집무탁우에 놓았던 문건을 번지기 시작하였다.

황해남도 와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별방시대들에서 지난해에 비해 하강선을 그은 군과 농장들의 구체적인 알곡소출정형과 그 원인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문건내용을 분석해보시면서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난관앞에서 당황하여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는 일군이 김인호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시였다.

지금 사회주의수호전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하고있는 그런 군인품성이 그들에게는 아직 희박한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농업위원회에서 취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문건을 덮으시였다.

《그래 최동무생각엔 인호동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제 생각에는...》 하고 최명옥이 잠시 주저 끝에 말씀드렸다.

《신평협동농장이 수령님의 현지교시단위인것만큼 문제가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가 잇지 못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알곡생산실적으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가 빛내이지 못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옥은 힘들게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짖어냈다.

장군님께서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니시였다.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자원진출해간 그가 아닌가.)

가슴저러드는 생각에 목이 메어올라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다가는 다시 또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고... 어쩐지 눈앞에 물안개가 끼는것 같으셨다.

그이께서 김인호문제에 대하여서는 아무 결론도 주지 못하신채 최명옥을 돌려보내셨다.

지금 비내리는 창가를 마주하고계시느라니 창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비물이 마치도 김인호가 흘리는 눈물처럼 생각되신다. 과연 그것이 낙성만을 보여주는 눈물일것인가?

아니,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지 못하는 참인간의 몸부림이 있다.

느닷없이 하나의 추억이 떠오르신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늘 잊지 못하시고 외우시던 이야기였다.

어느해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전시부터 구상해오시

던 발판개실현을 위해 신평리를 찾아가셨다.

대한무렵의 매운 바람에 찬눈이 푸실푸실 훑날리던 류달리 추운날 저녁이였다.

늦게까지 관리위원장과 사업을 토론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집에 보낸 다음에도 잠자리에 드실 생각을 안하시고 앓은뱅이책상에 마주 앉으시였다.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의 살림살이를 추켜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모색하기에 시간가는줄 모르시던 그이께서는 첫닭이 해를 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서야 펜을 놓으시였다. 새벽이 되면 청주동별에 나가 발판수를 위한 양수장위치와 물질자리를 확정해보실 작정이였었다.

그래 류혜선이 정히 가져다드린 새 이불포단을 한번 펴볼새도 없이 외투를 걸치시였다.

토방에 나서시던 그이께서는 무춤 놀라시였다.

찬바람이 눈가루를 몰아가는 마당가에 김웅찬이 서성거리다가 경건히 인사를 올리는것이였다.

《수령님, 이제라도 좀 쉬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왜 그러구 있소?》

《저...》

웅찬은 갑자르다가 얼굴에 한다는 말이 《잠이 오지 않아서...》 하고 얼버무렸다.

입김에 성애가 하얗게 내뿜린 눈썹과 털모자, 눈이 수북이 내려쌓인 어깨, 마당의 눈우에 수없이 오고간 발자국...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자신의 신변을 넘려하여 집오래를 밤새 돌았다는것을 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이 찬 날씨에 밖에서 새웠구만. 건강도 좋지 못한 사람이...》 하시며 웅찬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시고 자신의 외투를 씌워주시였다.

《수령님!》

웅찬은 목메여 부르며 수령님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잘살게 해주시려구 이렇게 밤을 밝히시는데 저희들은...》 하며 흐느껴 울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령과 전사간에 흐르는 혈연의 정을 뜨겁게 절감하군 하시였다.

생각에서 깨어나신 그이께서는 인호관리위원장을 직접 만나보고싶은 충동을 느끼시며 서둘러 집무탁으로 돌아와 송수화기를 잡으시였다. 그러다가 탁상시계에 얼핏 눈길을 주시고는 망설이시였다. 어느덧 자정이 넘어 1시가 되어오고있었던것

이다. 이젠 모두가 깊은 잠에 들었겠지...

하지만 다음순간 생각을 고쳐하시였다. 이밤 김 인호가 결코 마음편히 잠들수는 없으리라.

더우기는 자신께서도 인호를 만나기전엔 쪽잠 마저 이룰수 없으리라는 절박한 심정이시였다.

전화는 인차 련결되였다. 수화구에서는 맑고 단 아한 녀성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김인호의 안해였다.

《아, 순복동무구만. 내 동무애기를 들었소.》

장군님께서서는 수화기를 다른 손에 바꾸어쥐시 며 반가이 말씀하시였다.

《농장원들과 똑같이 일을 잘한다면서? 용하오. 그 래 어머님이랑 건강은 어떻습니까?》

《장군님! 저희들은 일없습니다. 장군님께 기쁨 을 드릴대신...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께서 이 밤도 쉬지 못하시구... 마음쓰시게 하였으니... 흠》

감격에 겨웠던 녀인의 목소리는 차츰 죄책감에 젖어 떨리다가 흐느낌으로 번져지고 말았다.

《진정하오, 순복동무.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어 델 갔소?》

장군님께서서는 다심한 음성으로 물으시였다.

잠시후에야 가라앉은 녀인의 음성이 울려왔다.

《남편은 포전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 다.》

《아니, 지금 몇신데 포전에 나가있단 말이요?》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라 되물으시였다. 그의 눈 길은 언뜻 비내리는 창밖으로 날아가 박히 었다.

자신을 타매하기 위해 무모하게 몸을 혹사시키 는것이 아닌가?

순복의 죄지은듯 떠듬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울 려왔다.

《논판에 물이 고일가봐 걱정하면서... 나갔는데 ...》

장군님께서서는 그만 눈곱이 화끈해지는것을 어 쩔수 없으시였다. 방금전 추억속에 그려보시던 김 웅찬의 모습이 아들 김인호의 모습으로 바뀌여 안 겨온다. 눈보라치는 마당을 밤새 오가며 수령님을 보위하던 아버지의 모습, 비내리는 이 밤 포전을 지켜가는 아들의 모습...

다시금 가슴이 뭉클해지시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래, 남편이 매일밤 이렇게 포전에서 지내겠 소?》

《장군님께서 비오나 눈오나 밤낮없이 험한 전 선길을 걸으시는데... 죄를 지은 제가 어떻게... 마

음 편히 쉬겠는가고 하면서...》

순복은 자기들의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 는 장군님의 인정에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삼키기만 하였다.

장군님께서도 걱정을 누르시며 갈리신 음성으 로 말씀하시였다.

《순복동무, 내가 그동안 관리위원장을 임명만 해놓고 잘 도와주지 못했소. 인호동무가 들어오거 든 내 말을 전해주오. 혼자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 고... 그리고 나는 인호동무가 그 땅을 꼭 지켜내 리라고 믿는다고 말이요!》

《흐흑 고맙습니다. 장군님!》

녀인은 참고 참았던 오열을 터치고말았다.

이름날 아침 장군님께서서는 전연초소로 떠나기 에 앞서 최명옥을 부르시였다.

《명옥동무, 수령님께서 생전에 이룩하신 업적이 운데서 가장 귀중한 업적은 바로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요. 우리가 이 혼연일체를 지켜간다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소? 수령님께서 키워주신 충신들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간다는 말이 아니겠 소?》

물론 오늘의 준엄한 현실이 완강하고 드센 일군 을 요구하는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능력이 모자란 다고 제껴놓을것이 아니라 키워주어야 하는것이 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가 신품땅을 꽃피우게 해야 하오.》

최명옥은 그만 머리가 숙여졌다. 뜨거운것이 가슴속 깊은곳에서부터 부각부각 피여오르는것을 느꼈다.

《신품리에서 농사가 잘 안된 원인을 관리위원 장의 능력부족에서만 찾을것도 아니라고 보오. 논 벼의 초기작황이 아주 좋았다가 후반기에 떨어졌 다는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도 가보아서 알 지만 그곳 논들은 다 해하성층적지로서 말하자면 아무리 먹어도 세포가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줄어 드는 늪은이와 같소. 때문에 토질을 결정적으로 개량하기전에는 안전소출을 기대할수 없는 곳이 요. 그런데다 나라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다보니 영농자재도 심히 부족했지, 기계수단도 리용하지 못하고 축력, 인력으로 흠잡이를 하였지.》

그러니 경험도 없이 처음 농사를 짓느라 인호동 무가 얼마나 고생이 컸겠소?

그래도 그 동문 농사가 안된 원인을 객관적조건 에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에게서 찾고 것처럼 피로 워하고있는것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직접 전화 를 하라고 했지만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보려고 아글타글했던 말이요.》

명옥은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정에 목이 꽉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 언제면 나는 장군님의 그 높은 인덕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장군님의 뜻을 안고 직접 현지에 내려가서도 김인호의 마음속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산실적에 만 매달려 능력을 운운하지 않았던가?

장군님의 절절한 음성이 다시 방안을 울리었다.

《바로 그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에 담력과 배짱만 겸비된다면 그는 아버지와 같은 훌륭한일군이 될 수 있을게요.

명옥동무! 나약하고 소심한 인호관리위원장을 좀 도와줍시다. 영농물자도 보내주고 로력지원도 하고...》

명옥이 뜨거운것을 삼키며 장군님을 우러러 보았다.

《장군님, 영농물자는 농업위원회에서 어떻게하나 보장해주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아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한개농장에 영농물자나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전반적인 농업부문실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신품리를 비롯하여 알곡생산의 많은 몫을 담당한 서해안의 곡창지대 농장들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자는것입니다.

지금 나라사정이 긴장하고 중요대상건설도 바쁜것은 사실이지만 농업부문에서도 한번 통이 크게 판을 벌려봅시다. 우리는 이 난국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첩에 장군님의 말씀을 적어가던 최명옥은 온몸에 힘이 쭉쭉 뻗치는것을 느끼며 힘있게 대답을 올렸다. 하지만 농업부문에서도 한번 통이 크게 판을 벌려보자는 장군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다 모르고있었다. 머지않아 우리 나라 농촌들에서 어떤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게 되겠는지는 더욱 모르고있었다. 이때 그의 눈앞에 떠오른것은 영농물자들을 가득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드넓은 농장벌로 줄지어 달려가는 모습들뿐이었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프락포르를 비롯한 료전기재들과 영농물자들이 농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품리사람들은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장군님 사랑이 어린 프락포르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는 인호의 얼굴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처음 이 신품리로 탄원하여 내려오던 날 인호는 눈물을 흘리며 농사를 잘지어 위대한 장군님께 편지를 올리자고 말했었다. 그러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든 이 땅에서 첫째농사부터 잘못지어 큰 죄를 짓고 자책에 몸부림치던 이 김인호였다. 그래서 자기는 관리위원장재목이 못된다고 자리를 내놓을 생각까지 하였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아픈 매를 들대신 오히려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것이 아닌가.

영농물자를 싣고온 최명옥은 감격에 젖은 어조로 이렇게 말했었다.

《인호동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호동무가 첫째농사를 잘못지었다고 몹시 위축되고 동요하는것같은데 그래서 안된다고, 신심을 잃지 말고 분발해서 농사를 잘 짓도록 고무해주라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기계수단까지 총동원하여 봄씨불임전으로 농장의 전면적에 흙갈이를 끝내라고, 그래야 다음해 농사를 잘지을수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자신께서는 김웅찬동무의 아들을 믿고있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장군님!》

인호는 목이 꽉 메여올라 이렇게 장군님을 부르짖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불같은 맹세가 화산처럼 터져오르고있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아시는 그런 김웅찬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

그때로부터 1년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가계획외에 많은 량곡을 나라에 바친 신품리농장원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고난의 행군》시기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애국농민들이라고 치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시었다.

그후 김인호는 해마다 농사에서 장훈을 불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로력영웅으로 되었다. 그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밤을 새우며 일을 보신 피곤도 잊으시고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시었다. 기쁘신 마음으로 청신한 새벽공기를 한껏 호흡하시었다.

저멀리 새벽하늘에서는 노을이 피어오르고있었다.

태양이 피워올리는 노을... 태양과 함께 영원할

붉은 노을이었다.

그리움은 나의 삶

류 동 호

정에 불타고
사랑에 넘쳐
온녘을 불태우는
순정의 세계가 나에게 있어라

이른 새벽이면
전선길에 계시는 장군님 우리러
아침의 첫 인사를 드리며
새날의 첫걸음 떼고

깊은 밤이면
우리 장군님 부디 건강하시라
멀고 험한 전선길의 야전차불빛을
따라서고 따라서는 내 마음

봄날의 아름다운 첫꽃을 보아도
가을날 제일 탐스런 이삭을 보아도
한달음에 안고가 보여드리고싶은 생각

아, 그리움이여
곳은비 내리면 더욱 사무치고
눈보라 휘몰아치면 잠마저 잊게 하는
그리움이여

가슴속 숨결로 가득차
세월이 흐를수록 간절한 그리움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
가장 값높은 인간의 뜻과 존엄
내 삶의 전부와도 같거니

내 마음의 맑은 하늘가에
태양으로 솟아 지지 않는 장군님영상
그 모습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는다면
나의 삶은
해빛이 없는 삶이 되어 스러지고 말리

장군님 주시는 그 사랑 그 믿음
내 심장에 피줄기로 굽이치고
나의 온녘에 깃들어있어
꿈결에라도 잊는다면
내 인생은 버림받는 막돌이 되고 말리
물거품이 되고 말리

천만금도 부럽지 않아라
부귀와 향락도 바라지 않노라
장군님만 믿고 따르는 그리움속에
내 삶의 천만복이 다 있어

순결한 량심과 의리만을 안고
눈비가 세차게 내려도 따르고
따를수록 마음 즐거운 그리움의 길
나에게는 그 어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라
우리 장군님 승리만을 떨치시며
가고가시는 전선길 그 한길밖에는

자나깨나 장군님의 뜻에 살고
걸음걸음 선군혁명동지로 한길을 가며
불타고 불타는 그리움이여
너는 나의 무한한 열정과 창조의 샘줄기
장군님께 바친 나의 심장
시작처럼 변함없을 나의 한생

행복하노라 나의 삶
궁지높아라 나의 삶
장군님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세월끝까지 안고사는 그리움이여

아 그리움은
폭풍쳐도 우뢰쳐도 변치 않을 신념의 세계
자식이 아버이를 따르듯
꽃이 해빛을 따르듯
나의 순정의 그 세계를 안고 사노라

군중문학운동에서의 근본적인 혁신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군중문학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대중화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심화발전시키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문학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문학의 대중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군중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 주체문학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도록 하는데서 고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문학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되고 인민대중이 향유하며 인민대중에 의하여 발전한다.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것은 문학운동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문학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여야 문학운동을 군중적지반우에서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으며 우리 문학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문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문학창작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의 대중화는 인민대중을 문학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을 대중화하는것을 문학건설과 문학운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제시하시고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적열정의 소유자인 인민대중을 이 사업에 적극 발동시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군중문학이 나갈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우리 군중문학운동이 활발히 벌어져 전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것은 문학을 군중적지반우에서 발전시키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군중문학 지도체계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중문학운동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체계를 세워주신것은 군중문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 주신 조치에 따라 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 군중문학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부서를 내오게 되였으며 군중문학창작사업은 중앙에서 도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조직화되여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문학을 대중화하는데서 군중문학통신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창작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학통신원들은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선구자이며 믿음직한 작가대오의 후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중문학발전에서 문학통신원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역할로부터 문학통신원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대책을 취하여 주시였다. 특히 해마다 전국의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창작강습을 조직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신것은 문학창작의 새싹을 귀중히 여기시고 문학통신원들의 재능과 지례를 더욱 훌륭히 키워주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이 따사로운 사랑에 의하여 문학통신원들은 매해 중앙과 도에서 진행되는 창작강습에 참가하여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더욱 높여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통신원들의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통신원들에게 기초적인 창작지식을 주는 참고서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집필하도록 하시고 그 방향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참고서는 광범한 근로자

들에게 문학예술발전에 대한 일반지식과 기초지식을 주는데 큰 의의가 있는것만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적으로 써야 한다.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소설, 시, 아동문학에 대한 참고서들이 집필되어 발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문학수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군중문학운동을 적극 추동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창작한 작품을 널리 출판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창작적욕과 기세가 높아지고 창작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통신원들의 창작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그들의 작품을 널리 출판하도록 하는 정연한 체계도 세워주시었다. 그리하여 《청년문학》 잡지를 비롯하여 청년보와 《평양신문》, 각 도일보들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작품을 싣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발표되는 문학통신원 작품들의 우열함을 분석하는 작품지도평을 관록 있는 작가, 평론가들이 써서 정상적으로 《청년문학》 잡지에 내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작품창작에서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과 문학통신원들은 자기들이 창작한 작품의 우열함을 똑바로 알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창작을 신심있게 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군중문학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는데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군중문학소조활동을 적극 장려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책임일꾼들이 군중문학소조활동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소조가 늘 활동할수 있게 관심을 돌리며 군중문학통신원들의 창작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시였으며 주체61(1972)년 9월에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문학소조를 모범단위로 꾸리고 그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리고 여러명의 작가들을 그 기업소에 파견하여 그들이 현실체험을 하면서 동시에 문학소조사업을 이끌어주도록 하시었다. 또한 그들의 작품집도 출판해주어 소조운영을 적극화하도록 고무적인 대책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현지에 파견된 작가들은 용해공들속에 들어가 현실체험을 하면서 문학소조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과 그들의 창작기량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나갔다. 이와 함께 소조원들이 현실속에서 생신한 종

자를 골라잡고 형상으로 꽃피우도록 이끌어주면서 문학소조운영을 통하여 작품 합평회를 활발히 벌리고 작품발표모임을 자주 조직하여 그들의 창작기량을 끊임없이 높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문학소조가 활발히 움직이게 되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었으며 집체적인 합평을 거쳐 우수하게 완성된 작품들을 신문과 방송, 출판물에 내보내는 한편 작품집 《강선의 백양나무》를 높은 수준에서 묶어 내놓게 되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문학소조는 그 대렬이 2배로 늘어났으며 그중 여러명의 소조원들이 작가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문학소조를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꾸리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그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우선 문학소조활동경험을 일반화하는 모임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모임장소와 날자 참가대상과 모임순서, 지어는 모임참가자들에게 보여줄 영화와 견학조직에 대해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었다. 전국각지의 창작지도일꾼들과 문학통신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이곳 문학소조운영에서 얻은 경험발표모임이 열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선땅에 지퍼주신 한점의 불꽃은 온 나라에 타번져 전국각지에서는 문학소조활동이 전례없는 기운으로 활발히 벌어졌으며 군중문학창작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나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문학소조활동과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이 비상이 높아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작품들을 특집으로 묶어 출판할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리하여 《회천의 봉화》, 《흰 구름 피는 땅》, 《창조의 봄》, 《윙트는 계절》 등 여러종의 문학소조원들의 작품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군중문학운동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6월4일문학상》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중문학창작과 관련한 총화사업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문학통신원들을 위한 《6월4일문학상》을 제정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6월4일문학상》 메달과 증서도안을 보아주시면서 문학통신원들이 받아안게 될 메달인데 잘 만들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첫 수여식을 평양대극장에서 하도록 하여주

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71(1982)년 11월 중순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참가자들에게 군중문학발전의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인 서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를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사랑속에 평양대극장에서는 《6월4일문학상》 첫 수여식이 진행되였다. 중편소설 《첫 교원》, 시초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 영화문학 《더 높은 곳으로》, 아동단편소설 《필갑소리》 등을 창작한 문학통신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6월4일문학상》을 받아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월4일문학상》 수상자인 나어린 처녀선반공 주옥양에게 돌려주신 은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를 마련하여주시고 회의준비사업정형을 료해하시는 과정에 처녀문학통신원 주옥양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과 헌신적인 노력, 시적재능을 귀중히 여기시여 그가 남긴 시초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에 《6월4일문학상》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난후에는 주옥양의 창작정형을 료해하시고 그의 시집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속에서 노동자시인으로 자라난 나어린 처녀선반공은 비록 갓어도 그의 불타는 충성심은 시집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와 함께 영원히 남아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중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문학작품현상모집사업이 가지는 의의깊이 헤아리시고 중요기념일을 계기로 이 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 사업은 광범한 군중의 창작의욕을 불러일으키며 대중속에서 문학창작의 귀중한 싹을 발견하고 키울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해마다 이 사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그 총화사업이 의의있게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중문학창작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며 이 사업을 몇몇 일군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작가동맹적인 사업으로, 전체 작가들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작가들이 아무리 창작과제가 바빠도 그들의 작품창작을 실속있게 도와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오늘 작가동맹에서는 문학통신원담당제를 실시하고 능력있는 작가들이 문학통신원들의 창작을 지도하는것을 정상화하고있으며 이에 작가들이 성실하게 참가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선군시대를 반영하여 선군혁명문학으로 힘있게 전진하며 위대한 선군령장의 명도를 빛대로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선군혁명문학의 줄기찬 흐름에는 군중문학운동도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명언해설

《자연주의는 사실주의로 위장된 반사실주의이다.》

김 정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부르조아문예사조의 대표적조류인 자연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반사실주의적창작방법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자연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사실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실주의가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면 자연주의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사실주의는 본질적이며 의의있는 생활과 인간의 사회적본성을 개성적으로 그려내지만 자연주의는 부차적이며 비본질적인 생활과 인간의 생물학적본능을 절대화한다. 자연주의는 현실에 있게 되는 우연적이며 지엽적이며 사멸적인것에 매달려 그것을 무분별하게 기계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고 예술적일반화를 부정한다.

자연주의가 추구하는 목적은 생활을 외국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의 모순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교하려는데 있다. 결국 자연주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와 공통성을 가지고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반사실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창작방법이다.

혁명일화

옮겨주신 네 영웅의 묘

주제90(2001)년 4월초였다.

길영조영웅을 배출한 부대의 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고 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복도로 나오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부대가 배출한 길영조영웅의묘비에 돌사진을 붙여 비행사들을 교양하려고 한다고 그이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저으기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나직한 음성으로 지금 길영조영웅의 묘지가 그곳에 그냥 있는가고 물으시는 것이였다.

《그렇습니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자애깊으신 음성으로 인민군대에서 시대별로 대표적으로 내세울수 있는 영웅들의 묘를 애국렬사릉에 옮기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하여보아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이로부터 새로운 과업을 받은 일군들의 생각은 자못 깊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끓는 청춘을 바친 영웅전사들의 위훈을 홀려가는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남달리 깊은 마음을 쓰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고결한 뜻이 뜨겁게 안겨왔기때문이었다.

사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대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항일의 오중첩7련대의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자랑스럽게 이어온 영웅들, 시대를 대표할수 있는 영웅들의 정신을 따라배우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하였다. 하지만 돌사진을 붙일 생각은 하면서도 그들의 묘를 애국렬사릉에 옮기는 문제같은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있던 일군들이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 시대별로

대표적으로 내세울수 있는 영웅들의 묘를 애국렬사릉에 옮기는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다음 시대별로 대표적으로 내세울수 있는 영웅들을 배출한 부대들에는 기념으로 그의 반신상을 세워주고 묘는 애국렬사릉에 옮기는것이 좋을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선 시대별로 어느 영웅을 대표적으로 내세우겠는가 하는것을 토론하여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과업을 받은 일군들이 과연 시대별로 대표할수 있는 영웅들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때였다.

우리 나라에 영웅이 많아도 그들이 세운 위훈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들가운데서는 리수복이나 안영애같은 영웅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울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계속하여 리수복영웅은 그가 남긴 시만 보아도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지금 우리 나라에 리수복영웅이 남긴 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안영애영웅은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원형인데 당원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이들을 1950년대를 대표할수 있는 영웅들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러면 현시대의 영웅들가운데서는 누구를 내세워야 하는가?

일군들의 초점이 여기에 쏠렸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현시대의 영웅들가운데서는 김광철이나 길영조같은 영웅들을 내세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

여 몇달후 애국렬사릉에서는 공화국영웅들인 리수복, 안영애, 김광철, 길영조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애국렬사릉에서 영생하는 네명의 공화국영웅들의 돌사진을 보며 이곳을 찾는 군인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서 이들처럼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울 맹세를 굳게굳게 다지였다.

박 봉 윤

종군시조

최전선에서 부른 노래 승리를 떨치자, 영광을 떨치자

김 만 영

여기선
나무 한그루
돌맹이 하나조차
달아오른 총신처럼 열을 뿜는다
결전의 시각을 앞에 둔것처럼
숨쉬는 대기조차 터질듯 압축되어있다

오, 내 조국의 최전선이여
얼마나 용감한 병사들이
얼마나 충실하고 열렬한 가슴들이
붉은기전역을 지키고있느냐

나는 본다
원썩들을 발밑에 굽어보며
거연히 솟아있는 고지와 고지들
적진을 녹여버릴 불을 안고
번쩍이는 병사들의 그 눈빛들을

그 누구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간직한 병사들
장군님결사옹위의 심장들이
활활 불덩이로 타는 병사들

그 사랑
그 결사옹위정신이
무적필승의 폭풍을 안고
최전연의 방선을 구축하고있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 장군님과 제일 가까운
최전연의 병사들이 여기에 있다는것은
내 조국이 철벽의 성새로 솟아있다는것
내 나라 강산에 푸른 숲이 설레이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놀며
무력무력 자란다는것

아, 세계유일 야전장군
김정일령장의 담력과 기상을 닮고
빨찌산의 공격정신이 심장마다에 뛰는
최전연의 병사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장손
선군의 맏아들

조국이 불려주고
인민이 불려주는 자랑스러운 그 이름
령마다 고지마다 승리로 떨치라
사자같은 그 기상앞에 그 용맹앞에
원썩들이 기절초풍케 하라

오, 351고지와 까치봉을 거쳐
위훈높은 1211고지에 올라
전장을 한눈에 바라보며
심장은 웨친다
장군님의 근위병사들이여
승리를 떨치자, 영광을 떨치자

사랑의 최전연

백 하

나는 알았노라 여기 최전연에서
어찌하여 장군님 험한 철령을

오늘도 넘고 또 넘으시는지
어찌하여 철령길이면 해프기를 못기다려

한밤중에 서둘러 평양을 떠나시는지

나는 알았노라 그 깊은 뜻
눈덮인 고지의 초소에서
애젊은 병사를 만나시면
어디 태생이냐고 왜 고향부터 물으셨는지
부모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왜 꼭꼭
물어보셨는지

아, 가장 성실하고 소박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힘찬 철령너머에 있어
비가 와도 철령을 넘으시고
눈내려도 철령넘어 가고가시는
우리 장군님

하늘아래 이런 곳 또 어디 있으랴
오시면 정들어 떠나지 못하시고
가시면 못잊어 다시 찾으시는 곳
장군님 심장을 다 주시며

병사들을 아들딸로 아껴주시는 곳

가도가도 사랑이 천리
천지조화의 전설도 천리
가장 뜨거운 사랑과 충성
가장 고결한 의리와 양심이 깃들어
내 났도 깨끗이 깨끗이 정화되는
조국의 최전연 순결한 땅이여

이 병사들 한번 일떠서면
적진은 재가루되어 흔적도 남지 않으리
이 병사들 한번 분노의 포문을 열면
미국은 지구우에서 존재를 잃고말리

오, 최전연
조선의 최전연은
장군님사랑의 제1선이어라
백전백승의 전구
선군혁명의 제1선이어라

전선의 아침

박 해 출

《우로 뵈!》
리수복, 안영애
영웅들의 반신상앞으로 병사들이 행진한다
쨍쨍 울리는 발구름소리
고요한 아침을 흔든다
최전선의 산발들에 메아리친다

기세높이 행진하는
저 애젊은 병사의 눈동자는
화점향해 달려가던 영웅의 눈빛으로 불타고
척척 나아가는 철의 대오는
답가들고 달려가던
영웅의 발자욱 따라선것 아니냐

최전연병사들
사단의 영예이고 자랑인
영웅들과 함께 있으라고
우리 장군님 여기에
영웅들의 반신상을 세워주실 때
그 높은 뜻 총잡은 가슴들에 새겼다

장군님의 그 뜻을 안고
리수복이 화점향해 달려간 돌격로를

병사들은 마음속으로 걸고있다
안영애의 당원증을 물들인 그 피는 아직도 뜨거워
병사들의 심장에 맥박치고있다

불비 쏟아지던 50년대는 멀리 갔어도
병사들의 마음속에
영웅들의 하루하루는 가지 않았다
결전의 언덕에 남긴 그 숨결은
병사들의 가슴속에 살아 뿔뿔다

믿으시라 어머니조국이어
판가리결전의 그 시각이 오면
최전연의 용감한 근위병사들
리수복, 안영애처럼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총폭탄으로 터지리라

《우로 뵈!》
산발을 흔들며 가슴들을 흔들며
힘차게 울리는 구령소리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병사들은 이 아침 영웅들과 인사를 나눈다
50년대 그날의 고지에서 하루의 첫 걸음을 떼며
병사들은 영웅들과 함께 아침을 시작한다

령장의 고지

문 동 식

가없이 높푸른 하늘가에
거연히 머리들고 빛나는 봉우리
장군님 자욱 따라
오르고 오를수록 숨엄함이 가슴에 차오르는
영웅의 고지 1211고지여

50년대의 파편들이 아직도 밟히는
이 산정에서
내 바라보니
고지를 휘감아 뻗어오른
굽이굽이 벼랑길
아찔한 절벽길

나는 가슴치며 곱어본다
저 위험천만한 길로
우리 장군님 이 산상에 오르셨단 말인가
전화의 그날 이 고지 병사들에게
콩나물콩까지 보내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안으시고

오르시여
이 산악의 끝까지 오르시여

병실의 온돌도 짚어보시고
흰김서린 취사장도 다 돌아보신
자애로운 아버지 우리 장군님

자욱자욱 펼쳐가신 사랑을 안고
한치한치 새겨가신 은정을 안고
굽이굽이 뻗어오른 저 길은
우리 장군님 이 산정에 휘휘 감아놓은
영원한 사랑의 혈맥이 아닌가

이 산의 흙은 흙이 아니다
이 산의 돌은 돌이 아니다
해빛으로 내리는 장군님사랑을 안고
장엄하게 솟아오른 1211고지
영웅의 고지

오, 이 고지는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며 솟아빛나는
백두령장 **김정일** 장군님의
사랑의 고지이다
승리의 고지이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병사의 편지

김 만 영

눈들어 쳐다보면
하늘도 머리위에 가깝습니다
안개는 산허리를 감돌고
구름도 손에 잡힐듯 낮게 떠돕니다
어머니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아십니까
하루 스물네시간
원썬들의 검은 총구와 맞서고있는
여기 최전연초소에
이 아들이 서있습니다

이 아들을 두고
혹시 걱정은 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깨워서야 일어나던 이 아들이
제대로 군사복무를 하는지
원썬들과 마주서서
순간이나마 가슴떨린적은 없는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낳아 젖먹여키우며
나라 위해 장군님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여기서 다 알았습니다
세월의 나이로가 아니라
최전연복무의 나이로 성장했습니다
나라의 미더운 일당백용사로

어머니도 보셨지요
우리 병사들이 보고싶으시여
친아버이사랑을 다 안고
굽이굽이 백수십굽이를 돌고돌아
눈비를 헤치며 우리 고지에 오르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을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최전연을 찾으신 아버지장군님
우리 병사들의 가슴속에

천만대적을 호령하는
산악같은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고
용감성의 날개를 달아주셨나니

불속에서 강철이 단련되듯이
최전연의 폭풍속에서 단련된 이 아들은
누구나 쉽게 간직할수 없는

공지와 영예가 가슴속에 넘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감나무 설레는 고향마을에서
이 아들의 소식을 묻는 사람들에게
떳떳이 자랑해주십시오
내 아들은 최전연병사라고

위훈의 령마루에 병사들이 산다

김 영 력

내 따로 묻고싶지 않구나
전선에서도 최전선
여기 까치봉병사들에게
위훈이 무엇인가 묻고싶지 않구나

눈여겨보자
원썩을 겨누어 증오에 끓는
병사의 불타는 눈동자를
그리고 들어보자
조국에 바치여 자랑넘친
심장의 크나큰 박동을

높은 산고지에 찬바람 떠날새 없고
군복은 눈비에 젖고젖어도
총대를 잡은 병사의 공지는 얼마나 높은가
반짝이는 못별 정다움고
스며드는 안개조차 포근한 밤이면
이 공지 그대로 노래로 울리지 않았던가

전쟁의 불구름 저앞에 떠돌아도
적진을 놀러디딘
병사의 담력이 여기에 있다
한몸 터쳐갈 육탄영웅들이 여기에 있다

선군시대 병사의 값높은 자부심을 안고
총대로 삶의 돌기돌기를 새겨가는
까치봉병사들의 순간순간은
장군님 아시는 위훈의 하루하루

아 까치봉 까치봉에서
위훈에 대해 내 따로 묻지 않노라
장군님결사옹위의 돌격선에
심장을 서슴없이 내대는
위훈의 령마루에 까치봉병사들이 산다!

주체92(2003) 10. 29

연을 띄워라

김 명 철

하늘은 패청
바람은 건들
어디선가 종다리도 흥을 돋구는데
냉이꽃 한벌 덮인 파아란 언덕에서
연을 띄우는 아이들아

너희들은 모르는듯싶구나
지금도 저 군사분계선
콩크리트장벽너머에선
백여년전부터 이 땅을 침노해온
우리의 피땀한 원썩 그 미국놈들이
핵탄을 휘두르며 날뛰고있음을

이 즐거운 시간
너희들이 움해야 할것은
누구의 연이 제일 높이 오를가

누구의 연실이 제일 질길가
오직 그 하나의 생각뿐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연 하나만이 있으라고
오늘새벽에도 우리 장군님

저 험한 철령을 또다시 넘으셨다
총잡은 너희들의 아버지들과 형님들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산다
전기로의 쇠물은 너희들을 위해 끓고
산악같은 언젠들도 너희들을 위해 선다

이 땅 어디 가나 철벽의 진을 치고
우리 인민모두가 총을 잡고있어
저 푸른 하늘은 푸르른대로 있고

상쾌한 이 바람은 상쾌한대로 불고
종다리는 종다리대로
냉이꽃은 냉이꽃대로
그 목청 그 빛갈 잃지 않으려니

연을 띄워라
띄워도 높이높이 오래오래 띄워라

평론

너희들의 그 연이 하늘에 닿도록
그 연이 사시장철 내려앉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선군에 모든 힘을 다해온 내 조국이
너희들의 모습처럼 바라보는
아, 우리의 푸른 하늘이다

신념과 의지의 인간에 대한 진실한 형상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에 대하여-

최연경

참된 통일애국투사들인 어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한낱한시에 공화국의 품에 안긴것은 일찌기 인류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력사적인 사변이었다.

세상사람들을 격동시킨 이 충격적인 사변은 신념과 의지의 최강자이시며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담력과 인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사랑, 이 은정속에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들이 련이어 창작되어 나오고있는것은 또한 우리 선군혁명문학의 경사가 아닐수 없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림재성작)은 《나의 추억, 40년》(김삼복작), 《조국의 아들》(리종렬작), 《의리》(김덕철작), 《인생향로》(김대성작) 등과 함께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작품창작초기에 나온 장편소설들중의 하나로서 신념과 의지의 인간에 대한 진실한 형상이다.

그러면 그 사상예술적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1. 마음의 기둥을 억세게 심어주어

마음의 기둥이 없는 살수 없는것이 사람이라면 기초가 없는 신념이란 뿌리없는 나무와 같고 사상루각과 같다고 해야 할것이다.

몇달 몇년도 아니고 한생애에 맞먹는 수십년세월을 지옥과 같고 무덤과 같은 감옥에서 형언할수 없는 만가지 옥고를 다 이겨내며 비전향장기수들이 지켜낼수 있는 그 신념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 주제의 작품형상이 이르러야 할 종착점, 사상적결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림재성작)의 중요한 성과가 바로 이 기본문제에 대한 투철한 대답에 있다.

소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더우기는 그 어떤 정치적선언이나 주정토로로

대신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주인공의 운명선을 기본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그의 생활과 성격론리에 따라 작품전반을 통하여 스스로 결론지어지도록 하고있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은 옥중생활과 같은 극절 많은 생활을 그리는 경우에 흔히 있을수 있는 사건위주의 소설이 아니다.

사건이라고 하면 뒤산릉선으로 38도선이 지나간 웅진군 도원리 한촌에서 태어나 열일곱살 홍안의 청년으로 잠복형사들을 까부시고 카빙총을 탈취해 가지고 천치암산으로 자취를 감춘 주인공 한제완, 그 길로 속리산유격대에 입대하여 분대장, 소대장을 거쳐 스물한 살의 편대장으로 용감히 싸우다가 변절자 라창문의 두방의 총알에 맞고 쓰러져 불행하게도 적에게 체포된 용감한 유격대원 무악재-한제완. 그때로부터 시작된 감옥살이 34년으로 고령의 폐인이 된 비전향장기수 《728번》, 《03번》 한제완, 이것이 소설의 사건의 전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념과 의지의 인간인 주인공의 기막힌 운명선이 뜻깊은 문학적인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다.

작품은 지옥중의 지옥이며 산 사람들의 무덤인 룽군형무소와 대구간형무소, 대전교도소로 이어진 야년간의 감옥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감옥의 실태를 드러내보여주면서 인간대 야수와의 사상정신적대결속에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인간의 신념과 의지는 육체적고통과 함께 정신적고통을 이겨내는데서 발현된다.

룽군형무소가 주로는 물리적힘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면 민간형무소는 정신도덕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우롱하고 말살하려 하였다.

물론 혁명가는 육체적고통도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직접 육체적생명과 이어져있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변절자가 나오고 사상전향자가 생기는것이다.

7개월간의 록군형무소생활이 75키로그램의 거인의 몸에서 30키로그램의 살과 피를 빼앗아냈으니 그 육체적고통의 참혹함을 체험없는 독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장신의 키를 펴고 눕는것마저 허락되지 않는 0.75평의 먹방, 거기서는 자유롭게 숨쉴 수조차 없으며 서신거래, 면회, 독서, 치료는 물론 논, 코, 귀, 입이 있어도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말을 할수 없었으며 또 그렇게 할 대상마저도 없었다.

이 모든 육체적고통은 《사상전향서》라는 종이 한장이면 끝날것이였다. 그것이면 감옥담장밖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혁명앞에 다진 신념, 그것이 육체적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이 육체적고통을 주인공 한제완은 사상과 정신의 힘으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이겨냈다.

야수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주인공의 이 강한 정신력은 옥중생활의 전 과정에 발현되고있지만 특히 재판장면에서 특별히 선명하게 그려졌다.

스물한살의 유격대지휘원인 한제완은 《피고》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가라는 판사의 물음에 단호히 자기의 무죄를 선언하면서 재판관들을 추상같이 단죄하였다. 《검사는 나를 비적으로 묘사했소.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전장에서 적을 살상한 교전일방을 살인행위를 감행한 비적으로 단정한다면 여기에 있는 법관제씨들 그리고 저기 방청석에 앉아있는 <토벌대>장교들과 헌병장교들부터 목을 달아매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소설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서의 주인공의 성격을 그의 운명선속에서 훌륭히 전형화하고 있다.

주인공 한제완은 신념과 의지의 인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념화된 충성심은 수령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자각과 각오를 높여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드림없이 받들어 나가는 강毅한 의지를 낳게 한다.》

신념과 의지는 혁명가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중하다.

인간의 신념과 의지는 꽃핀 봄날과 같이 평온하고 행복한 때,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되어 갈 때에는 별로 돋보이지 않는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의 진가, 그것은 혁명이 가장 준엄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이 목숨을 내대야 하는 결전장에 서게 될 때 오직 그때에만 무자비하게 검열된다. 누구나 다 걸을수 있는 길, 누구나 다 참고 견딜수 있는 고통을 이겨냈다면 우리가 어찌 비전향장기수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라고 부르겠는가.

하다면 몸은 비록 옥중에 갇혀있으면서도 인간이

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들을 전몰시킨 것처럼 강한 신념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가.

이것은 실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하는 장편소설창작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대한 사상미학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인공 한제완의 운명과 생활속에서 찾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것을 남반부에 고향을 둔 한제완이 열일곱살때 38도선을 넘어와 한달동안 공화국북반부에서 체험하게 된 너무도 엄청난 위대한 현실에서 그리고 비록 길지는 않았으나 더없이 보람찼던 유격대의 그 시절 잊지 못할 박우연대장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창조하신 《신출귀몰》의 명쾌한 유격전법에 대한 회억으로 자기의 가슴속에 불러일으켰던 이름할수 없었던 그 감동을 가슴뜨겁게 회상하는데서 절절하게 받아 안게 된다. 제완은 그때 이러한 박우연대장을 대하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위인상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자신이 유격대의 최후의 한사람이 된다해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겨레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통일열기를 거세찬 불길로 타오르게 하리라 하는 심장의 맹세를 다졌었다. 그리고 그날의 그 맹세대로 한제완은 혁명적신념을 끝까지 지켜싸워 승리자로 되었던것이다. 소설이 감명깊게 펼쳐보인바와 같이 추억의 배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완은 이미 어린 시절 모기불 피어오르는 마당 한복판에 퍼놓은 명석우에 누워 할아버지가 하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도 수많은 들었었다. 내 나라를 가로타고 거드름을 피우는 왜놈들을 치기 위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신다는 그 전설은 제완의 어린 마음에 커다란 공감과 동경심을 안겨주었다.

제완의 운명에 잊을수 없는 자욱을 새겨준 이 생활은 귀중한 추억과 함께 그가 준엄한 결전장에 서게 되었을 때 진정 억척만만 죽어도 버릴수 없는 억센 마음의 기둥이 되었다.

그의 신념을 반석같이 떠받들어준 이 억센 마음의 기둥은 특히 옥중에서 만난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전사, 전조선인민군 군관인 정대철을 대하게 되었을 때 더욱 허물수 없는 철의것으로 굳세여졌다.

이처럼 소설은 참으로 신념의 기초에 대한 중요한 미학적문제해명에 품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성공하였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은 이 모든 감명깊은 형상을 통하여 조국의 장한 아들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과 의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적후의 전사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혁명은 언제나 승리하며 조국은 반드시 통일된다는 억척의 믿음에 기초한것임을 진실하게 밝히고있다.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신념과 의지의 기초를 형상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냈어야말로 장편소설 《최후의 한 사람》이 비전향장기수형상에서 이룩한 사상에 술적성으로 된다.

소설이 결속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주인공 비전향장기수 한제완은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성심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값높은 궁지가 있어 아버이 장군님의 위대한 품에 땀땀이 안길수 있었던것이다.

이것이 비전향장기수인 주인공 한제완의 운명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작품의 결론이기도 하다.

2. 인물마다가 생동한 개성, 투철한 전형으로

전형화의 원칙은 형상창조에서 정치성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으로 되지만 적들과의 첨예한 갈등속에 서있는 비전향장기수를 주인공으로 하고있는 작품의 경우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주인공의 성격뿐만아니라 모든 궁부정인물형상을 생동한 개성속에서 투철하게 전형화함으로써 형상창조에서 정책적대를 바로 세운것은 장편소설 《최후의 한 사람》의 중요한 사상에술적성으로 된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의의있는 인간관계를 맺고있는 긍정인물들은 제나름의 빛을 뿌리며 반짝이는 못별들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운 개성인 동시에 전형들이다.

누구도 보지 않는 심산속에 피어난 한송이 아름다운 들국화와도 같이 매혹적이고 용감한 녀성유격대원 주홍녀, 아버지없는 두 자식을 남겨두고 유격대에 입대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히 싸운 유격대원 신수옥, 깨끗한 량심을 지켜 최후의 순간까지 굴함을 모른 대학교수출신의 사형수 윤보경, 조선인민군 군관 출신의 미더운 비전향장기수 정대철... 그들은 눈을 감아도 산인간의 모습으로 선히 떠오르는 생동한 개성들이다.

형상의 론리에 따라 혹은 적계, 혹은 많이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들이 자기 얼굴이 뚜렷한 개성들로 그려진것은 그 모두가 누구라없이 자기고유의 운명선속에서 형상되었기때문이다.

열여섯살 충남 룡산고녀출신의 처녀로 유격대에 입대하여 지휘부가 피멸된 고립무원의 처지에서조차 지조를 지켜 20년 비구니(녀자중)생활을 하다가 끝내 변절자 라창문을 복속하고 비장하게 자결하는 주홍녀의 운명선이 그러하며 우악하고 무지막지한 상습적인 절도범으로부터 참으로 눈물겨운 재생의 길을 걸어 비전향량심수로 인생전환을 하는 박봉세의 기구한 운명선이 그러하며 한다하는 남원세도가문의 장손으로 한생토록 누릴수 있는 호의호식을 마다하고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집을 뛰쳐나와 자신의 사상적약점을 스스로 극복해가며 용감히 싸우

다가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비장한 최후를 마친 의협심이 강한 유격대원 최창모의 운명선 등이 모두 그러하다.

만일 작품이 이 개개의 인물성격을 이러저러한 성격적특징을 가진 기정사실의 개성으로만 보여주고 이처럼 뜻깊은 운명선속에서 그리지 않았더라면 그 인물들의 형상의 뒤편과 의의가 지금처럼 뚜렷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또한 지금처럼 주인공의 운명선과 유기적으로 밀착되면서 눈물겨운 인간관계를 펼쳐보이지도 못하였을것이다.

그들은 생동한 개성인 동시에 투철한 전형들이다.

이 아름다운 개성의 인간들은 비록 걸어온 운명의 길은 서로 달라도 그 모두가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슴 저리게 안고 조국통일성업에 나선 의로운 사람들이며 이 성스러운 길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의로운 인간들이다.

주인공의 기본생활무대인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비전향장기수 정대철, 사형수 윤보경, 비전향량심수 박봉세 등의 형상이 모두 그러하다.

정대철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인민군 군관출신의 비전향장기수의 전형이며 윤보경은 민족적으로 각성되고 지조가 높은 남조선의 지성인 선각자의 전형이며 박봉세는 무자각한 남조선 최하층인간으로부터 점차 각성하여 조국통일성업에 나서는 비전향량심수의 전형이다.

전형성은 긍정인물들뿐만아니라 부정인물들의 경우에도 례외로 되지 않고있다.

부정인물의 계열에서 중심에 서있는것은 주인공 한제완을 전향시키려고 날뛰는 미제의 하수인인 남조선파쑈악당, 놈들이 만들어낸 살인악법의 직접적 집행자들인 조형사, 남조선형무소적으로도 그 악착성에 있어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대구민간형무소 보안과장 백남도와 부장간수 《세빠리》, 그중에도 더더욱 고약하고 악착스런 그지없는 보안감호소 소장 《오몽둥이》 오기수이다.

작품은 그들을 미제에 붙어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대고 온갖 악행을 감행하는 민족반역자로만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들로 형상하고있다. 놈들은 야수의 본성 그대로 저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한제완을 집단구타하고 미국제군화로 짓밟아댔으며 바깥으로 물을 퍼붓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수 없는 고무줄고문을 들이대었다.

소설은 놈들의 야수적만행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고있으나 그 계급적본성을 투철하게 전형화함으로써 적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부정인물형상에서 두번째계열의 인물은 변절자 라창문이다. 이역시 하나의 형상으로 변절자의 더러운 본색을 충분히 드러내보이는 전형이다.

고기당이만도 못한 육체의 생명이 아가와 여러 해 생사를 같이하며 함께 싸워온 전우들을 서슴없이 배반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총구를 겨누어온 그 원수의 개가 된 변절자 라창문의 비렬하고 가증스러운 형상은 변절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것인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한놈의 변절자가 혁명투쟁에 얼마나 큰 해독적후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주고 혁명적경각성과 치솟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부정인물의 전형성문제를 두고 여기서 심각히 논의하여야 할 대상은 전향자 문이정의 형상이다.

그것은 전향자의 형상이 그 자체의 교훈적의의와 함께 주인공인 비전향장기수의 신념과 의지를 부각해보이는데서 중요한 형상적공간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참된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는 적들과의 사생결단의 대결에서 전면적으로 발현될뿐아니라 그 신념을 지켜내지 못한 전향자와의 사상정신적대결과 대조속에서 보다 선명하게 표현된다.

전향자는 신념이 투철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한 탓으로 혁명적의리와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사상정신적투항자이다.

투철하지 못한 신념은 뿌리깊지 못한 나무가 모진 바람에 쓰러지듯 혁명의 시련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 설사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섰다 해도 의지가 나약하면 신념을 지켜낼수 없다. 강한 의지로 지켜지지 않는 신념은 참된 신념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사상전향은 혁명적신념에 대한 포기이며 생사운명을 같이해온 동지들과 혁명에 대한 배신이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에서 전향자 문이정은 가련하고 혐오스러운 경멸과 타매의 대상으로 종당에는 한푼의 인간적가치도 없는 인간이하의 존재로 그려지고있다.

물론 인간 문이정이 유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산에서 싸울 때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정의 앞에서의 양심도 있었다.

그러나 기초가 허약한 그의 신념은 유격대앞에 시련이 닥쳐오자 맥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옥에 갇힌 몸이 되자 불안과 절망에 빠져버렸다.

문이정의 성격발전론리는 신념이 흔들리는데서 오는 불안과 동요의 끊임없는 연속이고 그 발전으로서의 절망, 삶과 혁명에 대한 포기이며 그의 필연적결과로서의 신념의 포기, 적앞에서의 사상정신적투항이다.

이에 대하여 문이정자신이 확인해주고있다. 한제완이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문이정에게 분별로 인하여 생긴 겨레의 아픔을 가셔버리자고 총을 잡았을 때 우리모두는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겠는가하고 이야기해주자 그는 스스로가 자기는 제완이 생각하는 그런 혁명가가 못된다고, 이제 는 기대할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문이정이기에 10년 복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 괴뢰 《국회》의원의 사위가 된 변절자 라창문이 중매해준 저보다 나이가 두살이나 우인 갑부과부에게 장가를 들어 호화주택의 주인이 된것이다.

전향자 문이정의 운명은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 군사 파쇼독재자가 조작해낸 《사회안전법》에 걸려 대전 교도소에 재검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문이정이앞에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 운명의 두 갈림길이 있었다. 그 하나는 안해와 재산을 위해 전향서에 도장을 찍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철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길이었다. 문이정에게는 이제 와서 맞불대로 맞본 《부유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버릴 용기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전향서에 도장을 찍고 비전향장기수들의 서리발같은 눈총을 받으며 유한귀부인에게 끌려가는 애완용개풀이 되어 감옥문을 나섰던것이다.

이것은 문이정과 같은 나약한 의지의 인간이 결코 달리는 될수 없는 성격발전론리의 필연적귀결이다.

전향자 문이정과 의 뚜렷한 사상정신적대조속에서 주인공 한제완의 비전향장기수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한것은 작품이 전형화에서 거둔 하나의 성과로 된다.

3. 감옥속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찾아내어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은 인간생지옥과 같은 남조선사회와 감옥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인공의 운명선과 극적으로 맞물려 문학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감으로써 신념과 의지의 인간들의 아름다움의 세계를 더욱 폭넓게 부각하고 작품에 인간학적매력과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이것은 말그대로 흙탕속에서 진주를 찾아낸것에 비길만 한것이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맺어지는 긍정인물들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의의있게 그려진것은 한제완이 옥중에서 만난 정대철, 윤보경, 팽봉세와의 극적관계이다.

그것은 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옥중투쟁속에서 서로 힘을 주고 고무하면서 변함없는 신념으로 맺어지고 강의한 의지로 굳어진 아름다운 동지애의 관계이고 운명적으로 련결된 뜻깊은 인간관계일뿐아니라 형상적으로도 가장 성공한것이기때문이다.

그중에도 제일 인상깊은것은 순간 만났다 헤어졌어도 주인공 제완에게 지울수 없는 생의 향기를 남기고 간 사형수 윤보경과의 극적관계이다.

제관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제완은 온몸에 피칠갑을 한 교형리들의 더러운 손에 욕보는것보다 깨끗한 인생마무리를 하는것이 땀땀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다. 그때 그이상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기에는 그는 아직 정의앞에 물불을 모르는 스물한살의 청춘시절에 있었던것이다.

바로 이 결정적인 운명의 시각 윤보경은 유격대 지휘관 《무악재》가 날파람있는 싸움군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비겁한줄은 몰랐다고 엄하게 질책하면서 《살아서 싸우는것은 죽는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요...》라고 뜻깊은 말을 해주었다. 설사 죽는다해도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신념을 버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진짜 혁명가라고 했다. 반통일세력이 비록 혁명가 전부를 죽인다 해도 겨레의 가슴속에서 타번지는 통일열기는 꺼버리지 못하며 따라서 혁명의 보루를 지키는 최후의 한사람이 된다 해도 겨레의 가슴에 통일의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불씨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제완은 가슴을 치는 윤보경의 말을 들으며 잠시나마 유격대의 사명감을 망각했던 자신이 더없이 용렬하게 생각되었다. 그만큼 충격도 컸다.

윤보경은 리치와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신념의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는 제완을 위하여서는 많은 말을 하면서도 당장 래일 집행하게 될 자기에 대한 사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윤보경로인은 사형장으로 나가면서 자기가 쓰던 소박한 세면도구를 제완에게 남겨놓았다. 그는 이 소박한 기념품을 지조를 꺾지 말고 신념을 끝까지 지켜싸우라는 뜨거운 마음을 담았을것이다.

사형수 윤보경이 남기고 간 뜻깊은 말과 그 강한 모습은 그후 한제완의 성격발전에 잊을수 없는 강한 충격을 주었다.

주인공 한제완의 운명에 보다 강한 흔적을 남긴 다른 한사람은 비전향장기수 정대철이다.

그는 평안북도 룡천출신의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락동 강까지 진격해나갔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때 퇴로가 막혀 지리산에 들어가 유격투쟁을 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적에게 체포된 비전향장기수이다.

정대철은 한제완이 분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부장간수 《썸빠트》 놈을 두들겨패었을 때 그런 행동은 순간의 화풀이로밖에 되지 못한다고 일깨워 주면서 단결만이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었다. 어려운 옥중생활에서 정대철의 이런 조언은 언제나 제완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주었다.

제완에게 있어서 정대철은 이미 벗이고 동지만이 아닌 존경이 가는 스승으로, 지휘관으로 여겨졌다.

감옥문을 나서면서 한제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물었을 때 정대철은 이제 사회로 나가면

산에서 싸울 때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것이라고 하면서 《인민대중속으로 들어가시오. 공장도 좋고 건설장도 좋소. 그리고 운동권에 있는 학생들과도 편계를 가지는게 좋을거요... 통일의 주체는 바로 인민대중이거든.》라고 고무에 찬 말을 해주었다. 이때 한제완은 두사람의 심장이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듯 싶었고 그래서 숨결도 생각도 똑같은것이라는 확신을 했다. 참으로 룡군형무소로부터 민간형무소와 교도소에서 겪은 리별과 상봉도 많았지만 제완에게 있어서 정대철과의 리별의 이 시각처럼 강렬한 정회로 가슴이 젖어든적은 없었다. 그리고 건강은 파괴되어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분렬조국의 아픔을 첫자리에 놓는 정대철의 그 고결한 애국애족의 정신에 머리가 숙여졌다. 한제완의 가슴은 이미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신념을 지켜냈다는 남모르는 긍지로 가득찼고 이제 옥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다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보람찬 투쟁의 길로 역세게 걸어가려는 굳은 마음으로 세차게 설렘었다.

정대철의 성격과 그와 주인공 한제완사이에 맺어지는 뜻깊은 인간관계는 주인공의 형상과 소설의 형상전반을 성공으로 이끈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인 비전향장기수 정대철의 형상은 광복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인민군 전사는 적들과의 싸움에서는 물론 철창속에서도 어떻게 수령앞에 다진 신념을 지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기수가 되어 사람들을 투쟁으로 고무해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정대철은 주인공 한제완의 운명발전에 참으로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었다.

작품은 신념과 의지의 인간이라고 하여 주인공의 형상을 처음부터 완성된 성격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고정격식화하거나 리상화하지 않았다. 고향을 남조선에 둔 스물한살의 유격대원이었던 주인공 한제완은 잊지 못할 선배동지들인 정대철, 윤보경의 일깨움과 고무를 받으며 끊임없이 신념과 의지를 굳히면서 혁명가의 면모를 갖추는것이다.

이처럼 주인공의 성격을 끊임없는 발전과 심각한 극적체험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한것은 소설을 참된 인간학으로 되게 한 중요한 요인이다.

정대철, 윤보경이 주인공 한제완의 성격발전에 고무적힘을 주었다면 상습적인 절도범으로부터 비전향량심수으로 인생전환을 하는 박봉세의 운명길에는 주인공 한제완의 손길이 따뜻하게 어려있다.

감방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감방장 박봉세의 험상궂고 우악스러운 모습은 한제완에게 혐오감을 자아냈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의 가슴속에도 조국분렬의 비극이 가득차있고 불의에 대한 증오와 함께 인간의 깨끗함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내 나라,

내 땅이면서도 분계선이 막혀 갈수 없는 복녘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던것이다. 제완은 한탄만 하는 그에게 그 원한의 분계선은 조선사람이 허물어버려야지 남이 대신 허물어주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한사람의 힘은 보잘나위 없어도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자꾸자꾸 뭉치면 그 힘은 콩크리트장벽이 아니라 무쇠장벽으로도 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단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을뿐인데 그 충격이 컸던지 광봉세는 만기출옥하면서 그의 일깨움을 듣고 깨달음이 많다고 하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나라가 통일된 다음 뗏뗏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자식을 만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는 쪽지편지를 제완에게 써놓고 나갔다. 서른이 넘도록 처음으로 자기를 량심의 거울에 비쳐보는 광봉세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한제완은 새로 들어온 수감자로부터 광봉세가 리적단체에 가담한것이 문제가 되어 10년형을 언도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한제완이 광봉세를 다시 만났것은 대전교도소 8사에서였다. 상습절도범이 《사회안전법》의 홀치기에 걸려 정치범감방에 끌려왔으니 정말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은 없을것 같았다.

그러나 광봉세에게도 그에게 필연적인 운명의 길이 있었다. 출옥후 한제완의 일깨움을 되새겨보며 고심 참담한 모색끝에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 광봉세는 온 남조선망을 들었다놓은 《전태일분신자살사건》에서 한 몫하고 파업과 시위를 조직한 주모자의 한사람으로 지목되어 수배체포되었던것이다.

상습적인 절도범으로부터 사상범이 된 광봉세, 이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극적인 인생전환이다. 바로 이 뜻깊은 인생전환의 길에 주인공 한제완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임돌이 되었던것이다.

보안감호소의 인권에 대해 취재하러 기자단이 왔을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분연히 나서 때려죽이고 굶겨죽여도 법이 묻지 않고 항소 한마디할수 없는 인권불모지가 바로 여기라고 추상같이 항변해 나서는 광봉세의 모습은 그 얼마나 장하고 긍지로 온것인가.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이 펼쳐보인 뜻깊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이채를 띠는것은 주인공 한제완과 녀성유격대원 주홍녀와의 아름다운 관계이다. 그들은 유격대의 지휘관과 대원이라는 평범한 동지관계만이 아닌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그들 두사람은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고향을 모른 신념의 강자들이며 혁명의 한길에서 땀은 아름다운 사랑을 송죽의 절개로 지킨 참된 인간들이다.

제완에게 있어서 홍녀는 전장에서 쓰러진 전우들의 모습이었고 외세에 의해 두 동강이 나서 피흘리

며 고통받는 겨레의 모습이였다. 돌이켜보면 제완은 철창속의 기나긴 세월 홍녀가 곁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며 피로와도 신음소리를 낼수 없었고 슬퍼도 눈물을 흘릴수 없었다.

한편 한제완이 변절자의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 갈 숲속에서 그것을 보았던 홍녀는 상관평수림속에서 벌어진 유격대지휘부의 비극적인 종말과 함께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싸울 길이 없게 되자 지조를 지켜 열아홉살 꽃나이에 머리를 깎고 20년세월을 비구니로 보냈다.

그들 두사람이 다시 기구한 상봉을 한것은 제완이 20년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던 때였으나 20년만에 이루어진 그들의 상봉이 단 하루의 행복으로 끝날줄은 그들자신도 독자들도 미처 알수 없었다. 그러나 작품은 미제강점하의 남조선사회에서는 달리는 될수 없는 이 가혹한 현실을 사실 그대로 독자들에게 진실하게 이야기하고있다.

한제완이 다시 《사회안전법》에 걸려 대전교도소에 감금되었을 때 복수를 다짐한 용감한 유격대원 주홍녀는 변절자 라창문의 집에 뛰어들어 그의 쇠골밑에 복수의 비수를 박았다.

그는 배신자에게 말해주었다.

《유다는 자기의 스승이였던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배신자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예수의 충실한 제자중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치심과 모멸감에 못이겼던지 자살했소. 그런데 네놈은 수많은 전우들을 배반하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단을 내리지 않기에 속리산유격대원인 내가 왔다!》

주홍녀는 체포되어 한제완의 피맺힌 원쑤 조형사놈과 마주서게 되었을 때 자기가 비구니 월매가 아니라 속리산유격대원 주홍녀임을 당당히 밝히고 라창문을 복수한 그 비수로 자기의 심장을 찔러 자결했다.

주홍녀의 행동에는 다소 사건적인데가 있고 그와 한제완의 인연관계도 전설속의 이야기같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어쨌든 주홍녀의 형상은 매혹적인 녀성미와 녀결다운 모험담으로 독자들에게 매력을 주고 소설에 견인력을 더해주고있다.

이처럼 전혀 생소한 남조선에서의 사회생활, 그것도 한번 본적조차 없는 지옥같은 감옥에서 그토록 별처럼 빛나고 눈서리에도 지지 않는 꽃처럼 아름다운 인간들을 찾아내고 신념과 의지로 맺어진것으로 하여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지 못한 뜻깊은 인간관계를 그토록 의의있게 감명깊게 이야기한것은 참으로 작품이 거둔 귀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장편소설 《최후의 한사람》은 이 모든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선군시대에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절대불변의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체일생명으로 하는 수령의 참된

전사로 키워 내는데 훌륭히 이바지할것이다.

수필

태양-나의 소원

리 철

태양!...

오래전부터 나에게서 한가지 꿈이 있었다. 태양을 노래하고싶은 꿈이...

태양을 그리고싶은, 노래하고싶은 그 소원, 그것은 언제부터 나의 작은 가슴에 깃들었던가.

...나의 아버지는 작곡가였다.

아버지는 그저 음악, 피아노밖에 몰랐다. 우리 집 옷방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아버지가 선율을 고르는 피아노소리가 울려나오곤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나에게 하는 이야기도 음악이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옷방에서는 피아노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들어가보면 침묵하고있는 희고 까만 피아노건반이며 오래전부터 그대로 놓여있는 듯 한 오선지, 피로운 빛어린 아버지의 얼굴... 모든 것에 알수 없는 무거운 빛이 어려있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어느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음악대학교수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와 교수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따금 피아노소리도 울려나왔다. 처음 들어보는 선율이였다. 경쾌하면서도 어딘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박력있는 화음들...

《보라구. 얼마나 박동적인가. 천리마를 타고 줄달음치며 내달리는 우리 시대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나. 이게 진짜 우리의 선물이지.》

문짚으로 새어나오는 교수의 청높은 목소리...

아버지는 왜서인지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방안이 들썩하게 논쟁이 벌어졌으련만...

《예술가에게는 재능도 있어야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를 감수하고 사랑할줄 아는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하는거네. 그런데 자네한테는 이게 없거든.》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 점점 격해지는 교수의 목소리...

《이제라도 근시안적이고 협애한 자기 울타리속에서 대담하게 뛰쳐나와 발전하는, 전진하는 시대를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음악가로서, 예술가로서의 자기 몫을 찾아야지.》

교수는 돌아갔다. 하지만 아버지는 머리를 두손

으로 싸진채 이윽도록 앉아있었다. 때로는 피아노 건반을 세차게 두드리내기도 하였다. 진정할수 없는 아버지의 심중인양 격조높이 울리는 피아노소리... 그러다가는 푹 그치고 또다시 정적...

내가 들어가자 아버지는 내 얼굴을 말없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서 자라고 등을 떠밀어주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아버지는 배낭을 큼직하게 꾸려가지고 현실체험지로 떠나갔다.

그해가 지나 겨울이 다 가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 봄빛이 한창 무르녹는 어느날 아버지가 문득 문가에 나타났다. 달려가 안기는 나를 꼭 껴안아주는 아버지의 몸에서는 싱그러운 냄새가 진하게 풍기였다.

그날저녁 교수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와 교수는 그 전날처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사색깊게 울렸다.

《이번 걸음에 백두산일대를 돌아보면서 나는 많은것을 느꼈네. 우리가 체험하고있는 이 세기적인 전변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지.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바위 하나도 무심히 볼수 없더군. 그 모든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주는듯 하더라 말일세.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많은것을 생각했네.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느때없이 활기에 떠서 말이 많아진 아버지... 그 무엇인가를 토로하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는듯 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어려있는 백두의 밀림을 걸으면서, 백두산에 올라 그 장엄하고도 신비한 해돋이를 바라 보면서 나는 백두산을 노래해야 할, 백두산의 위대한 태양을 노래해야 할 나의 의무를 깨달았네. 억제 못할 충동이 가슴속에서 치밀어오르더군. 선물이 막 샘솟듯 하더라 말일세.

그걸 오선지에 옮겨놓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잘 안되더군. 내가 받아안은 충격이 다 나온것 같지 않

거든. 어떤가 한번 들어보게.》

피아노소리가 울렸다. 장중하면서도 사색깊게 울리는 선율이였다.

아버지의 곡은 그후 훌륭하게 완성되어 전문가들과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련이어 여러편의 곡들을 내놓았다.

나도 노래하고싶었다. 나의 선률에도 담고싶었다. 어느날 나는 아버지의 친구이며 나의 대학시절 스승인 교수와 함께 교정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의 아버진 재능있고 열정적인 작곡가였다.》

교수의 목소리는 깊은 감회에 젖어있었다.

《너도 알겠지만 생전에 너의 아버진 백두산을 노래한 많은 노래를 내놓았지.

백두산은 너의 아버지에게 진정한 음악가로서의 눈을 띄워주고 귀를 열어준 곳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어려있고 투사들의 발자취가 찍혀있는 성스러운 그곳에서 아버지는 우리 시대에 사는 음악가로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게 되었지.》

여러해전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생전에 그럴듯 자주 백두산을 찾곤 한것이였구나.

《아버지는 백두산해돋이에서 내 조국의 진정한 새 아침이 어디서 밝아왔으며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천지개벽하며 변모되어가는 내 조국의 모습을 심장으로 느꼈던거다.

그래서 너의 아버진 백두산해돋이를 노래한 곡을 쓰려고 무척 애썼지. 무려 수십여편을 썼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내놓지 않았지.

하기야 온 누리를 밝히는 위대한 태양의 모습,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운 태양의 고마움을 어찌 한편의 노래에 다 담을수 있겠니. 이젠 너의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 시대 예술가들 모두의 안타까움이고 모대감이지.》

교수의 목소리는 아득히 넓은 공간에서 메아리치며 들려오는듯 싶었다.

백두산에서 솟아올라 내 조국의 새 아침을 밝혀주고 세계의 미래를 밝혀주는 태양, 아버지는 그 태양에 심장으로 매혹되었고 심장속의 선률로 노래한 것이였다. 그런데 나는...

나는 그달음으로 백두산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어려있고 우리 조국의 진정한 새 아침이 밝아온 백두산.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속에 언제나 솟아있는 백두산...

나는 백두산으로 올랐다.

사위는 아직 어둠속에 잠겨있는데 저컨 동녘하늘이 푸르스름히 열리는듯 하더니 문득 구름사이로 붉은 해살이 퍼져나왔다. 두터운 구름의 장막을 꿰뚫고 어둠을 밀어내며 뻗어가는 붉은 해살, 잠간사이에 높이 솟은 백두의 기암절벽들과 천지의 푸른

수면, 아득한 밀림의 바다를 붉은빛으로 물들여놓았다.

드디어 태양이 솟아올랐다. 순간 구름의 바다는 불타는 용암의 바다로 변한듯, 이글거리고 불타며 흘러가는 붉은 구름의 바다...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땅이나실게 붉게 물든 하늘땅.

나의 심장도 마음도 태양의 빛발을 받아 뜨겁게 불타오르는듯 싶었다.

여기 백두산에서 솟아올라 누리를 비치고 세계를 밝히는 태양,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며 삶의 희열을 안겨여주는 백두의 붉은 태양.

내 한생토록 노래하고 또 노래해야 할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나는 여기 백두산에서 보았다.

그 태양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 장군님 이시였다.

태양의 빛발과도 같은 빛나는 예지로 우리 혁명, 사회주의위업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태양의 열과도 같은 따사로운 사랑으로 천만 인민모두를 따듯이 품어 안아주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그 빛발의 광휘로움, 그 열의 따사로움을 나의 작은 심장에 어찌 다 담을수 있고 나의 무던 재능으로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하지만 나는 노래하고싶다.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필승의 신념과 의지,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원수들의 온갖 도전과 력사의 준엄한 폭풍을 맞받아 쳐물리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소리높이 목청껏 노래하고싶다.

엄혹했던 그 나날,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나의 눈앞에 떠오른다.

그 나날 우리 인민모두가 그러했던것처럼 나도 나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되는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다.

준엄했던 그 나날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그 모든것을 꿋꿋이 이겨낼수 있었는지, 그것은 믿음이 있고 힘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 믿음은 태양이 있어 겨울은 반드시 가고 봄이 오리라는 확고한 신념이였고 의지였다. 그 힘은 따뜻한 봄날은 절로 오지 않으며 우리의 손으로 당겨와야 한다는 각오였고 분발이었다.

그 믿음, 그 힘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분은 우리 운명의 태양-**김정일** 장군님이시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였기에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도 엄혹한 자연재해와 경제적인난국도 다 이겨낼수 있었으며 오늘은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 높이 울리며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확신하며 힘차게 전진해나아가고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어가는 드넓은 대지,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선군시대의 거창한 창조물들, 공장의 기대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창조

의 거세찬 동음...

나는 보고있다.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영원
토록 무궁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태양조선의 광
명한 미래를...

나는 듣고있다. 태양의 영원한 빛발과 더불어 영
원히 울려퍼질 우리의 노래, 위대한 태양찬가를...
그 노래의 창조자로 되고싶은 간절한 이 소원.
아, 나는 태양을 노래하고싶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신 흥 국

아들아 네가 군복을 입고
초소로 떠난지도 몇달이 흘렀구나
병사생활의 첫 자욱을 어떻게 떼였는지
믿음속에 그려보며 첫 편지를 쓴다

이 땅에 초소로 떠나간 병사들이야
그 얼마라
했어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가슴에 깊은 사연 새기고 떠난 세대 또 있으랴

너희들은
가장 어려운 고난의 나날
중학교 교문에 들어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연도 많은 세대

학교졸업식연단에서 너는 말했지
그 나날 조국은 허리띠 조이면서도
학교길 야영길은 끝까지 지켜주었다고
그래서
조국의 귀중함을 더 깊이 사무치게 새겼다고

옳다, 조국이 겪는 시련을 보며
너희들은 때 일찍 철이 들었다
그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 귀중한 조국을 지키려고

앞장서 손에 총을 잡았다

잊지 말거라
이것을 잊으면 안된다
이제부터 너는 병사다
총잡은 병사는 언제나
원췌보다 백배 천배로 강해야 한다

우리의 목숨이고 자존심인
선군조국의 큰 대문을 지켜냈기에
저 무법의 시대 야만인들보다 더 추악한
백년숙적
미제를 총창에 꿰여 사정없이 던지기 위하여

그렇다 학교졸업의 최우등성적증은
꽃보라속에 선생님이 주었지만
병사의 최우등성적증은
땀 흘리는 전투훈련의 나날 조국이 준다
첫 자욱부터 힘차게 내디디거라

너를 굳게 믿는 아버지가
너를 끝없이 사랑하는 고향이
너에게 보내는 부탁이다
이제부터 병사!-너의 모든 생각과 활동은
위대한 선군조국의 승리속에 속한다

가사

병사들과 처녀들

김 성 결

병사들은 훈련길에 령을 오르고
처녀들은 빠스타고 휴양을 가네
아이참 어찌나 이결 어찌나
처녀들은 미안해 얼굴 붉혔네

그러나 병사들은 웃고있었네

차창가엔 봄꽃인가 처녀들 모습
령길우엔 땀에 젖은 병사들 모습

아이참 어찌나 이걸 어찌나
 처녀들은 뜨거워 손을 저었네
 병사들은 웃으며 행군해갔네

병사들의 어깨우엔 무거운 총대

처녀들의 어깨우엔 분홍꽃수건
 아이참 어찌나 이걸 어찌나
 우리 생활 우리 행복 지키여주는
 장군님의 군대가 정말 고마워



《혁명가의 필승의 신념이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

김 정 일

수기

사라지지 않는 별

비전향장기수 박 완 규

어째서 무엇때문에 신념을 지켜왔는가?
 왜 전향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비전향장기수의 삶이라는 하나의 운명적
 인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 동시
 에 가장 궁극적인 물음일수 있다.

나자신에게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한 이
 물음들을 떠올릴 때면 나는 먼저 눈앞에 번쩍 빛나
 면서 빨간 불길처럼 타오르는 자그마한 붉은 오각
 별모표를 보곤 한다.

그것은 한낱 오래고 다스러진 청동조각이 아니라
 마치 생명을 가진 물건처럼 보이고 느껴진다.

만약 그것이 말할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것이다.

《그대의 가슴속에는, 심장의 흉벽 한곳에는 내가
 언제나 지워지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빛나고있었기
 때문에 그대는 전향하지 않았고 신념을 지켰다. 그
 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병사였다. 젊은 시절의
 정찰병이여! 너는 한생껏 병사의 영예를 닦아오지
 않았더냐. 결코 흐려질수 없는 조선인민군 병사의
 영예를!》

1

1970년대의 어느해 마가을날, 소슬한 가을바람
 에 흩 날리는 락엽들을 들으며 《사형수》인 나를
 실은 찌프차가 산협길을 달렸다. 나의 두눈은 검은
 천으로 가리워져있었고 두손엔 수정이 채워져있었
 다. 그때 곁에 앉은 취조관이란 자가 중얼거렸다.

《당신 이제 죽으러 가는거야. 흥... <오셀로> 알
 지? 비극주인공말야. 그가 말한바같이 <죽느냐? 사
 느냐? 이것이 문제다.>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당신

이 드디어 선단 말이요.》

《셰스피어의 작품들을 잘못 읽었구려 <오셀로>
 가 아니라 <햄릿>의 독백이요.》

내가 픽 웃으면서 시까스르자 취조관은 급기야
 두덜거렸다.

《오 무엇이든 햄 무엇이든 같고 같애! 죽는다니
 까, 죽어. 참 답답한 량반이지. 이제 죽는 마당에서
 한번 보겠어...》

차는 20분간을 더 달렸다. 그 20분동안에 나는
 많은 생각을 하였다. 사형수의 최후 한시간은 여느
 사람의 한해동안 생각할 시간에 맞먹는다고 한 말
 이 옳은듯 하였다.

출생이후 그때까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이 죄다
 떠 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고통과 수난에 찬 유년기와 소
 년 기, 그 시기의 추억속에 박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 지친 얼굴들, 청년기에 맞은 조국광복! 그리
 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 조선인민군 입대! 정찰병으로서의 임무수행, 전
 승열병식!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
 그리고 적들에게 체포.

모든 일들이 생생한 화면으로 흘러갔다.

나는 그중에서 나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
 이 어느때였고 그 시절이 오늘 죽음의 이 시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생각해보았다.

나는 인생의 가장 활기있고 량만적인 청춘시절에
 병사였다.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군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사선을 흔
 연히 넘나드는 정찰병이었다. 전선에서 널리 불리

우던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라는 《정찰병의 노래》를 자랑스레 부르며 어둠을 헤치면서 정찰과 습격으로 부대의 승리를 척후에서 보장하던 영예로운 조선인민군 병사였다.

그 병사가 어찌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로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망적인 고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령님과 조국앞에 선서를 한 군인으로서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하는것이 삶의 중요한 문제였다.

정찰임무와 습격전의 수행중에 전사한 전우들의 얼굴이 나의 눈앞에 떠오르고있었다.

나는 나대신 목숨을 바친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온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어찌 동지가 넘겨준 생명의 시간을 더럽히랴 ... 그때 나는 감방에서 적들과 한 대화를 상기했다.

《협조하면 살수 있다. 당국에 협조하라!》

《협조? 그게 무슨 소린가. 난 조선로동당원이다. 그리고 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인민군의 병사이다. 병사가 어떻게 적과 협조할수 있단 말이냐?》

《투항이란것이 있지 않느냐. 전쟁에서 불리할 때 손을 드는것이 상례다. 저항이 무의미할 때 우리는 손을 든다. 당신도 전쟁에 참가해봤으니 알지 않느냐?》

《우리 군대는 손을 들지 않는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조선인민군의 병사다.》

산중의 숲속에 적들은 나를 세웠다. 그리고 눈을 가리웠던 검은 천을 풀었다. 눈이 부시도록 새파란 가을하늘이 빨간 단풍나무잎새들사이로 아득히 안겨왔다.

금방 불타는듯 한 단풍나무의 잎사귀 하나가 나의 어깨너머로 팔랑거리며 떨어져내렸다.

단풍잎은 나에게 대뜸 붉은 오각별을 련상시켰다. 별 모양의, 우리 인민군대의 별처럼 붉은 단풍잎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때 나는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며 생각을 깊이 했다.

취조관과 다른 한놈이 권총을 뽑아들고 내앞으로 접근했다.

《자! 저걸 보라구.》

취조관은 나의 옆에 파놓은 구덩이를 가리켰다. 생생한 흙냄새가 풍기었다.

《네가 들어가게 될 무덤이야...》

그래서 다시한번 물겠다.

살겠느냐? 죽겠느냐?》

놈들의 총구가 나의 이마와 가슴에 차갑게 와닿았다. 죽음보다 더 고향한 정적속에 발사직전의 안

전장치를 푸는 소리가 울렸다.

《살겠느냐? 죽겠느냐?》

취조관놈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조선인민군 병사는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다.》

나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에 귀를 꽉 메우는 충성이 울렸다.

《?...》

나는 귀가 멍멍한 속에서 적들을 마주보았다. 미치광이처럼 눈을 홑든 취조관의 얼굴과 함께 그뒤에서 공포를 쏜 작자가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총구를 혹 불고있었다. 놈들은 총구를 들이댄채 곁에서 공포를 쏘아 나의 넋을 빼려고 획책하였던것이다.

당시 이런 일은 흔히 있었다. 이런 경우에 기절해 넘어진 사람들은 넋을 앗기고 굴욕을 당하고 말곤 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나를 빗보았다.

나는 화선을 넘나든 정찰병이었다. 신념만 강하면 총알도 피한다는 격언의 진가를 알고있는 병사였다.

가소로운자들아.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나의 귀전을 스치고 지나간 너희들의 총알이 그 얼마인지 아느냐?

나는 취조관놈에게 말했다.

《왜 쏘지 못하는가?》

그자는 이를 악물고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쳐들더니 악에 받쳐 씨벌었다.

《좋다. 이번엔 진짜다.》

그자는 권총에서 빈 탄창을 뽑아던지고 탄알이 든 탄창을 끼웠다. 격발기를 와락 제끼 그놈은 다시 총구를 나의 이마에 들이대면서 단말마적인 야성을 질렀다.

《마지막이다! 살겠느냐? 죽겠느냐?》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땅! 따다당!

...

나는 쓰러지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

두번째 계략도 수포로 돌아간 놈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나를 짓밟았다. 온몸이 결박된채 놈들의 총탄과 군화발에 찍히면서 나는 흐려져가는 의식속에서 놈들이 지껄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 무지한 놈!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

(무지하다고?!

그렇다. 너희들과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이상 나는 너희들의 인생관에 대하여 경멸할수밖에 없는것이다.)

가물거리며 사라지는 의식속에서 한점 불꽃처럼 타오르는것을 보았다.

사형장의 풀섶에 떨어지던 붉은 단풍잎이 어리머 붉은 별을 새겨보았다.

그것은 청춘시절 포연에 그들은 나의 전투모에 빛나던 오각별이었다.

2

《선생은 **김일성** 주석님을 직접 뵈은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남조선 어느 잡지의 기자가 내게 물은 말이다. 그는 수십여년간 전향하지 않고 공화국의 사상과 리념을 고수한 의지와 힘의 원천은 그 뿌리를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두고있다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하나같은 심정에 커다란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

수령님을 뵈은 일이 있는가?

그것은 70객 이 로병사의 가슴을 젊은 시절의 애되고 청신한 가슴으로 재활시켜주는듯 한 실로 가슴 벅찬 질문이다.

그렇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은 일이 있다.

주체42(1953)년 8월 15일!

평양에서의 조국광복 8돛기념 조선인민군 열병식!

나는 그 열병대오의 한사람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나는 부대에서 여러 전우들과 함께 평양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모든 병사들이 다 참가하는 열병식이 아니다. 전선에서,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의 각 사단들에서 영예의 병사들이 선출되었다.

나는 그때 전사의 영예훈장 2급 2개와 군공메달 2개를 앞가슴에 달고 수령님께서 수도 평양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하여 싸웠다. 당과 수령, 조국이 우리에게 안겨준 이 표창들은 우리들이 이 땅의 아들답게 부끄럽지 않게 싸웠다는것을 증명한다.

전선병사들은 이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선의 고지와 경도들을 떠나 수령님께서 기다리고계시는 수도 평양으로 갔다.

포연에 그슬릴대로 그슬린 색바랜 군복을 그대로 입고 평양에 들어선 우리들은 대동강에서 목욕을 하였다. 대동강은 한없이 푸르고 맑았다.

나는 총창을 꽂은 보총을 들고 열병행진련습을 하였다.

드디어 감격적인 그날은 왔다.

광장에 울리는 축포소리!

우렁찬 만세의 함성! 지축을 울리는 군인들의 발구름소리!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신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서계시는 주석단을 향하여 미제의 해병1사와 피뢰수도기갑사단을 격멸한 우리 근위사단의 열병종대가 만세의 함성높이 행진해갔다.

량볼을 뜨겁게 적시는 눈물! 나의 눈가에 백두산의 눈처럼 환 원수복을 입고계시는 수령님의 환하신 모습이, 승리하고 돌아온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 거룩한 경례를 보내고계시는 병사들의 어버이이신 최고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점점 가까와오고있었다.

그이께서 쓰고계신 군모의 채양우에서 조선인민군의 붉은 오각별모표가 빛나고있었다.

열병식의 병사가 모두 그러하듯이 나는 그때 수령님께서 꼭 나를 내려다보시며 답례를 해주셨다는 감격스런 확신을 터질것만 같은 가슴속에 새겼고 그 생각을 일생토록 간직하게 되었다...

나는 전후 군대에서 제대되어 군복을 벗을 때 훈장과 메달 그리고 락장들과 함께 인민군병사의 오각별 모표를 소중히 간수하였다.

가장 위대한 인민적수령의 군모에도 빛나는 군인의 오각별모표! 이름없는 한 전사의 군모에도 빛나는 오각별모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나날에도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는 수십년간의 옥중투쟁의 나날들에도 나는 언제 한번도 나의 안해가 소중히 간수하고 늘 닦아놓곤 할 전선군인의 오각별모표를 잊은적이 없었다.

그것은 내가 수령님을 생애에서 처음 뵈었던 그 순간 그이와 나 자신이 한 혁명군대의 최고사령관과 전사로서 어떻게 련결되어있으며 그 오각별을 한번이라도 머리우에 올려놓았던 사람은 일생토록 수령님의 병사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언제나 되새겨주는 심장속에 사라지지 않는 별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오각별모표는 곧 수령님을 생각하게 했고 그이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곧 인민군병사의 빛나는 모표가 떠오르곤 하였다.

병사는, 군인은 항시도 군모의 오각별을 떼어놓는 법이 없으며 그것을 매일 빛을 뿌리도록 닦는다.

나는 나 자신이 병사시절 그 처절한 전선의 포연속에서도 오각별모표만은 어김없이 닦았듯이, 적들의 감방의 깊은 어둠속에서도 마음속의 별-병사의 명예와 인격과 존엄을 녹슬지 않도록 귀중히 닦고 또 닦아왔다.

하여 나는 그때 수령님을 뵈왔는가고 물은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안해는 내가 맡겨두고온 인민군 군인의 오랜 오각별모표를 아직도 매일같이 닦고있

을겁니 다. 통일이 되어서 선생이 다시 나를 찾아오면 보여드리겠소.

그러면 선생은 우리 수령님의 모습과 그 오각별 모표가 어떻게 이 사람의 생을 이끌어왔는가에 대한 좋은 글을 쓸수 있을것입니다.》

3

영생의 문제는 그 의미가 너무도 큰것이어서 허다한 해설과 론증을 요하는것인가.

죽음, 아니면 삶-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매일과 같이서야 했던 옥중투쟁의 나날들에 그 영생문제는 매 시각 나에게 부닥치는 삶 그자체의 질문이었다.

적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떠들었다.

《당신네는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 공화국사상과 리론대로 한다면 당신이 죽는다 해도 조국과 인민은 당신의 위훈을 기억하므로 당신은 그 추억속에 영원히 산다는것인데... 생각해보라, 당신이 이 무덤과 같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끝끝내 지조를 지켜 죽는다고 하자. 도대체 그걸 누가 아느냐? 어디서 어떻게 사라져버린지도 모르는 일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무슨 수로 알수 있단. 말이나?...》

《너희들은 우리의 인생관을 리해할수가 없으니 그렇게 떠든다!》

나는 적들의 꾀변을 이런 단마디로 일축해버리곤 하였다. 수령님의 전사로서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는 나의 한생이 조국의 위대한 전진의 역사에 미세하게나마 보탬이 될수만 있다면 영광이라는 나의 신념을 구태여 그들에게 론증하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영생문제에 대한 완벽한 증명을 할 계기를 갖게되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어느날 국립연극극장에서 공연하는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를 관람하러 갔다.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인 나에게 있어서 혁명연극은 남다른 감회를 불러오는것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작품의 이야기는 내가 싸웠던 전선동부의, 그것도 내가 정찰병으로 복무하였던 근위사단의 전투이야기를 전개하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혁명연극은 조국해방전쟁의 그날에 화선을 넘나들던 이 로병의 마음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런데 나는 연극의 어느 한 장면에 접했을 때 그만 숨이 껍 막히는듯 한 충격에 굳어졌다.

811.7고지에 대한 공격장면!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이 참가했던 땅크습격전이였다. 그 땅크습격전을 첫 시작으로 우리 사단은 100여년의 《전승》을 떠드는 미제의 정예사단인 해병 1사를 피멸시켰다.

무대우에서 적땅크를 향해 지뢰원을 넘어 접근하

는 다섯명의 조원들, 그들중 두번째로 접근하는 병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형언키 어려운 감정에 휩싸여버렸다.

내가 바로 그 병사였다.

...

폭음!

적땅크는 파괴되었다.

성공! 공격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때 우리 조원중 다섯명중에서 두사람은 거기서 전사하였고 셋만 부대로 돌아왔다.

그때 전사한 전우들도 그후 50여년을 더 살아온 나도 모두가 예술의 화폭속에서 훌륭한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고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시각 나의 눈앞에는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견해를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떠들던 적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한 병사가 가슴속에 간직한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리해하지 못했었다. 그들이 이제 저 장면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조국이 기억할수 있느냐고?

자! 우리 조국의 저 훌륭한 예술속에 내가 살아있다. 우리 조국의 무궁한 역사속에 내가 기억되어있다. 아니 나만이 아닌 그들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영웅으로 자라난 전우들모두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 영원한 조국의 아들로 살아있다.

나의 두볼로는 눈물이 어느덧 흘러내렸다.

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함께 싸우던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았다.

중대장 송진혁동지, 소대장 전만희동지, 분대장 최승근동지, 리재현, 구영호, 리승용... 아, 잊지 못할 전우들이여!

그대들과 함께 정찰과 습격에 나가던 이 박완규가 조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그대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눈물은 두볼을 그냥 적셨다.

그 순간 애국렬사릉을 찾았을 때 50여년만에 만년 옛 대대장의 얼굴도 떠올랐다.

전선에서 생사를 같이하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그도 애국렬사의 고귀한 칭호와 영예를 안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추억속에 잠들어있었다.

나는 어린애처럼 흐느꼈다.

전사들에 대한 우리 장군님과 우리 조국의 위대하고 고결한 의리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울었다.

이 땅에서 전사로 산 그 누구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별로 영생을 주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조국의 품이 너무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었다.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삶을 바친 병사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생을 가진다.

나는 이제 이야기를 끝내려 한다.

나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전사가 가는 길 후회가 없다네라는 노래에도 있듯이.

나는 자신이 수령과 조국을 위해 산 한명의 병사였음을 공지로 여긴다.

나는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할것이다.

우리의 령도자이신 위대한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 하는 우리 혁명군대의 병사가 되라고.

하여 장군님의 추억속에, 조국의 력사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이 되라고.

단편소설

열쇠

1

이 세상에 가정을 이룬 녀인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안해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한때 남편에 대한 존경은 둘째치고 사랑의 감정마저도 사라진적이 있었다. 아마 그 말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탓한것이다.

나는 이 욕을 달게 접수한다. 사랑에 살고 정에 사는것이 인간일진대 남편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슨 녀성이란 말인가.

나는 지금도 충국이 아버지가 법적교양을 받고 돌아오던 때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다.

그날은 별스레 마음이 이상하였다. 여느때처럼 퇴근을 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나는 나를 찾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발길을 멈추었다. 아득한 추억의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였다. 나는 그 부름소리를 향해 선뜻 돌아서지 못했다. 그자리에 멍하니 굳어졌다. 허나 그 소리의 주인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 사람이다. 충국이 아버지다. 나와 아들을 사회적비난의 대상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 나와 어린 아들의 앞길에 그늘을 던진 사람, 그것마저도 모자라 꿈속에서조차 나를 괴롭히던 사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눈길을 들기는 힘들었다. 아니 무서웠다. 몇번이고 곱씹어다진 결심이 흔들릴가봐 무서웠다.

우리는 한동안 길 한복판에 망두석처럼 서있었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그들속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서둘러 인적없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도 나를 따라왔다.

저 사람이 아직도 나에게 미련이 있는것은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들자 지금껏 쌓이고 쌓인 울분과 반발이 맹렬하게 머리를 쳐들었다. 하지만 몹시 축가고 풀이 죽은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은 간곳없이 사라지고 런던의 정에 가슴이 찢

김혜성

르해졌다. 아! 부부간의 성이란 이렇듯 모진것인가.

그러나 나는 자신을 다잡았다. 우리사이에는 부부라는 말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그도 나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았는지 바투 다가서지 못했고 말을 먼저 떼지도 못했다.

별안간 눈앞이 희뿌에지는감을 느낀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순간 마가울의 때아닌 먹장구름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하늘에는 두개의 큰 먹장구름이 떠있었다. 이게 바람 저 먹장구름들을 떠밀면 서로 부딪쳐서 번개가 일고 비가 쏟아지겠지. 그 다음은 다시 맑아질게고 우리들의 관계도 눈물을 한바탕 흘리고 다시금 깨끗해질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아, 절대로 그렇게는 안될것이다. 그렇게 되여선 안된다.

나는 이 자리를 한시바삐 피하고싶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돌아오셨군요.》

《돌아왔소.》

그의 목소리는 생기가 없었다.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통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추억하기조차 피로운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저...》 나는 무슨 말인가 더하려고 감빨던 입술을 다시금 열었으나 목이 킁 막히었다.

《다 알고있소. 난 동무를 탓하지 않소. 나야 그래도 짝놈이지. 난 동무의 행동을 리해하오.》

그는 이전처럼 당신이라고 부르기를 저어하며 나를 동무라고 불렀다. 처음으로 자기를 반성하는 그의 말을 들으니 더는 자신을 억제할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풀썩 무너져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메마른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때늦은 눈물이었다. 눈물은 적게 흘려도 제때에 흘려야 하는것이다.

비를 뿌리지 못한 하늘은 여전히 찌뿌둥하게 흐려있었다. 눈물을 흘리기는 했으나 우리의 관계도 역시 하늘색과 매한가지였다.

속시원히 울고나니 마음이 얼마간 진정되었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동안 비어있던 《우리 집》 열쇠를 꺼냈다. 아무때든 이런 일이 있을줄 알고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이다.

《받으세요.》

그의 입술이 파들과들 떨렸다. 그는 성이 나거나 피로운 때면 항상 이러곤 하였다. 나는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할 행동을 그려보았다. 쌍욕, 행패질, 손찌검...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말없이 열쇠를 받았다. 그저 한숨만 길게 쉬었다. 품을 만난 사람처럼 열쇠를 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친정집으로 옮겨가면서 중국이 옷가지만 가져가고 집안살림은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중국이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마지막말을 차마 할수 없었다. 수백번 생각하고 결심하고 각오하였지만 정작 현실로 닥쳐오니 피로왔다. 그도 내가 채 하지 못한 말의 의미를 절감했는지 지그시 눈을 감았다.

우리 둘사이 더는 말이 없었다. 우리의 침묵과 함께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예요?》

《있는 힘껏 죄를 씻겠소.》

《이젠 가봐야겠어요.》 나의 이 말에 그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움직일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먼저 발을 뗐다.

《가만.》

나는 걸음을 떼던 자세로 굳어진채 고개만을 돌려 그에게 눈길을 주었다.

《중국이를 한번만 보게 해주오. 당신한테서 빼앗지는 않을테니 마음을 놓고 제발 한번만 보게 해주오.》

그는 이전처럼 당신이라고 부르며 애원하듯이 말하였다. 순간 내 눈앞에는 외할아버지의 말만 들어온 중국이가 《내겐 아버지가 없어.》 하며 설레설레 고개를 젖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안돼요. 제발 순진하고 순결한 중국이를 오염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는 비칠거리며 친정집으로 향하였다. 길은 세멘트로장도로였지만 왜서인지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걷는것처럼 발이 헛놓이곤 하였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집에까지 왔는지는 지금도 알수 없으나 하여튼 생각에 골몰하느라 그가 따라오는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대문앞에 당도해서야 그가 함께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혼자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가시집에 그토록 충실했던 그였건만 이제는 이 집 문턱을 마음대

로 넘어설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이 나서 길길이 뛰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그 녀석을 끌고 다니느냐... 정말이지 오늘은 결판을...》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에게 주먹까지 쳐들었다.

내가 머리를 꼭 숙이고 서있자 아버지는 들었던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니 더는 어찌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어 아버지의 욕설이 한참동안이나 뒤에서 울렸다. 《덜커덩》하고 대문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에 빗장을 지르기도 하는것처럼 그 소리는 심장을 아프게 조이었다.

부모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할수없이 저녁상을 마주하였으나 좀처럼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저녁식사를 어떻게나 하는지, 아마 식사할 생각도 못할것이다. 하긴 나와 무슨 상관이란... 허나 수저를 계속 들고있을 힘이 나지 않았다.

중국이를 끼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중국이는 뒤잔등을 다독여주었더니 인차 잠들었다. 아무 근심걱정없이 태평스레 자는 아들의 얼굴은 왜서인지 환히 웃는것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네가 계속 이렇게만 웃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나는 미칠것만 같아 아들을 꼭 껴안았다. 잊어버리자고 애써온 과거가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현재와 미래를 서글프게 확대시켰다.

한시간 또 한시간... 시간은 흘렀으나 도저히 잠들수 없었다. 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중국이 아버지구나.)

다음순간 처녀시절의 야릇한 추억이 되살아나며 잠시나마 마음을 화기롭게 만들었다...

처녀시절에 내가 앓아서 출근을 못할 때면 집밖에서 처런 소리가 나곤 하였다. 사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기때문에 그의 《사랑의 불질》을 피해다녔다. 그러나 그는 쉬임없이 성가시게 굴었다. 하루라도 내 얼굴을 못보면 못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출근을 못한 날이면 밤늦도록 집주변을 맴돌았다. 그때마다 나는 동네 사람들의 말밥에 오를가와 할수없이 퇴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곤하였다. 그러면 그는 싱긋 웃어보이고나서 휘파람을 불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어떤 때는 (나는 체질이 약해서 자주 앓았다.) 하루종일 병석에서 시달리고나면 그 인기척소리가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하였다. 아직까지 안왔으니 오늘은 무슨 일이 생겨서 못오는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인기척소리는 아무리 깊은 밤중이라 할지라도 번지는 때가 없었다...

다시금 인기척소리가 났다. 나는 저도 모르는 충동에 휩싸여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스스로 손맥이 풀렸다. 내가 왜 이렇가? 이러면 안된다고 자신을 꾸짖었건만 알수 없는

힘이 나를 문밖으로 떠밀었다. 날이 흐려서 먹물을 풀어놓은것처럼 사위가 어두웠지만 나는 무서움을 잊고 대문밖으로 나갔다.

아니다나를가 담배불에 피곳피곳 드러나는 얼굴은 그였다. 나에게는 숯불처럼 타는 담배불이 탈대로 탄 그의 마음같이 느껴졌다.

나는 아무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끌었다.

《불을 켜지 마세요.》

무의식중에 이 말을 뱉어놓았으나 다음순간 마치 막으로 자식을 보러온 아버지에게 너무하다는 자책감과 자신에 대한 야속함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지 자기의 얼굴을 아들애의 얼굴에 붙이다싶이 바투 가져갔다. 그것도 한 순간일뿐 그는 충국이를 와락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학질을 만난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다...

《제발 비는데 두번다시 충국이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전 충국이란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순간 그는 전기에 감전되기라도 한것처럼 흠칫 놀랐다. 어두워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이지러진 그의 얼굴표정이 푹푹히 보였다.

마침내 그는 방안에서 나갔다.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갔다. 안해인 내가 남편을 내쫓았다. 나는 방문을 닫을념도 못한채 이부자리에 어푸러져 소리없이 울었다.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자기신세를 생각하니 설음이 더욱 북받쳤다. 방문은 쓸쓸한 마가을바람에 뻗어터져리며 이제는 모든것이 끝났으니 어서 달아달라고 지청구를 했다.

그후 충국이 아버지는 아들애앞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내앞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는 우연과 필연의 엇갈림속에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때마다 아무말없이 서로가 상대를 외면하군 하였다. 나는 도고하게, 그는 어색하게...

2

《영미야, 사람은 모질 때엔 모질어야 한다. 내가 한생을 살아보니 어려울 때 자기를 드러내더구나. 생각을 좀 해보거나 나라가 일시적인 곤난을 겪을 때에도 이 정도이니 앞으로 준엄한 시기가 닥쳐오면 그 녀석이 무슨짓을 할지 누가 알겠느냐.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이 아버지의 말대로 그 녀석과 갈라지거라.》

충국이 아버지가 법적제재를 받은후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지의 이 말은 자포자기에 빠져있던 나로 하여금 리성을 되찾게 하였다.

곤난은 사람을 가르치는 시금석이다. 사실 《고난

의 행군》시기 우리에게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웃으면서 그것을 이겨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당의 구호 대로 래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것을 극복했다. 허나 충국이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타락... 그리고는 자기를 잃었다. 모두가 신념을 지키고 조국을 지킬 때 그는 자기자신도 지키지 못했다.

그가 비록 락후한 사람이었지만 공장에서는 운전수가 되고싶어하는 그의 희망을 귀중히 여겨 그를 불도젤운전수로 키워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 믿음을 악용하였다. 책임운전수가 없을 때마다 빈번히 불도젤의 기름을 훔쳐서 술과 바꾸었고 지어는 공장에 한대뿐인 불도젤을 마구 혹사하였다. 그가 법적제재를 받은것도 자기 술친구의 터발을 일구어준다고 하면서 불도젤을 막 몰아대다가 벼랑턱에서 굴러뜨렸기때문이다. 사고를 친 날 그는 술을 저주하였다. 과연 술때문인가?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그를 타락시켰는가? 아니다. 그렇게밖에는 될수 없었던 그였다.

사실 충국이 아버지는 말그대로 불량배였다. 아버지가 병으로 일찍 돌아간후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모든 사랑을 기울였다. 손끝에 먼지하나 묻히지 않고 장중보옥처럼 키웠다. 허나 좋은 일을 하면 지나치게 칭찬 해주고 나쁜 일을 하면 두둔해주는 홀 어머니의 눈먼 사랑은 그를 이지러지게 하였다. 그는 자기위주로 모든것을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 무서운것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거기다가 아버지없이 자라면서 주눅이 들가봐 어머니가 과외 체육학교 권투소조에 넣어주는 통에 주먹까지 세져서 더욱 갈개였다. 풀어놓은 망아지보다 더하였다. 하여 표범식이라는 이름에서 《식》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표범》으로 불리웠다.

그에게는 오직 《나》라는 개념밖에 없었다. 출근 하고싶으면 출근하고 출근하기 싫으면 술과 놀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물론 결근하는 때가 드물었다. 누가 충고를 할라하면 눈을 부라리며 주먹자랑을 하였다. 마침내는 모두가 물러섰다. 누구도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지어는 그토록 자식을 사랑하던 어머니마저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에게서 어머니가 받은 《공대》는 가슴아픈 눈물과 쓰라림, 후회뿐이었다.

이러한 그였기에 누구도 그가 친 사고를 부주의라고 생각지 않았다. 결과는 명백하였다. 법적교양!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 녀자의 일생이 규정된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이 과연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듯 녀자에게는 남편이 중요한 것이다.

못난 자식을 나무람하는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도 속이 상할 때는 남들에게 자기자식의 못난점을 하소연한다. 하지만 안해들은 혼자서 속을 썩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 남편의 결함을 감추고 산다. 아마도 일심동체라는 부부의식. 남편의 영예이자 자기의 명예라는 녀성적인 속성이 작용해서일것이다. 자기 남편의 결함을 들고다니는 녀인은 안해이기전에 녀성이 아니다.

허나 나는 지금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남편을 타매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침을 뱉고 돌아섰다. 과연 내가 녀성답게, 안해답게 옳게 처신하였는가.

나도 녀성이다. 나도 다른 녀인들처럼 살고싶다. 그저 소박하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고싶다. 그러나 남편은 나의 이 소박한 소원마저도 짓밟겠다. 희망과 기대, 꿈조차 깨버렸다.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그와 살이야 하는가?

왜 결심을 못내리는가? 사회적비난이 두려워서? 아니,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동정 할것이다. 그럼 아버지가 없게 될 아들이가 불쌍해서? 그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게 낫다, 아니다. 나는 모든것을 각오했고 결심도 확고하다. 남은것은 행동뿐이다!

3

역시 행동은 쉽지 않았다. 오늘은 꼭 그를 만나 결판을 봐야겠다고 몇번이나 속다짐했다가도 정작 그가 눈에 띄우면 말이 나가지 않았다. 어깨가 축쳐진 그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말은커녕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하게 하였던것이다. 그리고 땀에 젖은 그의 작업복이...

(차라리 저 사람이 다른 녀자와...)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은커녕 일밖에 몰랐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날 나는 어느때보다 늦게 퇴근길에 올랐다. 여기에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우리 농기계부속품공상에서는 나라의 강제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모자라는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파철수집을 적극 벌렸다. 농촌에서 농기계부속품을 달라고 저저마다 손을 내밀고있는 때에 자재가 없다고 팔짱만 끼고 앉아있을수 없었던것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공장정문에 써붙인 이 구호처럼 온 공장에 활력이 넘쳐있었다. 모두가 자기 집 쌀독이 빈것처럼 생각하며 파철수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개인별, 직장별경쟁도 조직되었다. 이날은 한 달동안의 파철수집을 마감하는 날이었다.

나 역시 남들처럼 부지런히 파철을 주어모았으나 계획량보다 조금 모자랐다. 어쩐지 마음이 허전했다. 래달에 가서 봉창하자 나는 이렇게 자신을 위안

하며 퇴근 준비를 하였다. 이때 세포비서아바이가 나에게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외출복을 갈아입은 산뜻한 나의 차림새를 한동안 바라보다기 힘들게 말을 하였다.

《영미동무, 미달한걸 마저 채우고 가도록 하오.》

《?!》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바이의 다음 말에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동무가 다르게 생각할것 같아서 딱 찍어 말하지는 않겠는데 어떤 동무는 백그람을 미달하고도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서 다시 작업복을 갈아입고 파철을 주우러갔소...》

부끄러웠다. 물론 파철수집은 생산계획이 아니다. 하지만 남보다 일을 더 잘해야 할 내 처지에 이런 말까지 들으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미달한 량을 마저 채우느라고 늦게야 퇴근길에 올랐던것이다. 시장기도 나고 온몸이 나른하기는 했으나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우고나니 기분은 좋았다.

공장정문을 나서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공장정문을 향해왔다. 수레의 짐이 꽤 무거운것 같았다. 퇴근시간도 꽤 지난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나는 흠칫 놀랐다. 충국이 아버지였다. 수레에는 파철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나는 서둘러 머리를 돌렸다. 심장이 울렁거리며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열발자욱도 채 못가서 자석에 끌리우듯이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땀에 폭 젖은 뒤통, 이전보다 별로 더 구부정해보이는 두어깨...

(어째서 그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멍하니 서서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잊어버리자고 애써서일가? 아니다, 그래서가 아니다. 그건 자기기만이다. 아무리 잊어버리자고 애썼지만 언제 한번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적이 있는가. 사실 그에 대한 생각은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고있다. 그렇다면 왜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는가? 방금전에 본 측은한 그의 모습이 걸음걸음 밟혀왔다 그렇다. 별로 더 수척해지고 풀이 죽은 그 모습때문이라. 그러나 다음 순간 리성은 나의 이답을 부정하였다. 가까운 사람은 외모가 아무리 변한다 해도 첫눈에 알아보는 법이다. 그런데도 방금전에 그의 모습은 나에게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안겨왔다. 다른 사람? 그렇다면 그가 내 인식속에 자리잡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새 모습으로 왜간단 말인가? 천만에, 그럴수 없다. 그

려나 왜서인지 그의 걸모습도 속모습도 나에게서는
낮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문에 자물쇠가 걸려있었다. 가방
을 뒤적거리며 열쇠를 찾던 나는 한순간 푸들쩍 놀
랐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생각에 옴하다
나니 저도 모르게 《우리 집》으로 왔던것이다. 나
는 수수께끼처럼 벌개진 얼굴을 푹 숙이고 급급히 자
리를 뚫다.

그러나 몇발자국도 못갔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았
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걸음을 뚫으나
누군가가 나를 또 찾았다. 이번에도 뒤를 돌아보았
으나 역시 아무도 없었다. 아니 있었다. 《우리
집》의 흰 굴뚝이 아르게 눈을 찌르며 내 눈길을
못박아놓았다. 밥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다른 집
굴뚝들과 대조되게 혼자 입을 다물고있는 그 굴뚝
이 나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였던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출퇴근길에 이곳을 아침저녁
으로 지나쳤지만 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것
을 본적이 없는것 같았다. 틀림없이 없었다. 혼자서
동자질을 어떻게나 하는지? 다음 순간 내가 해주는
음식은 무엇이나 다 맛있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곤
하던 식성좋은 남편의 너부죽한 얼굴이 떠올랐다.
뒤이어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과 입던 옷마저 헐렁
해진 모습이 엇바뀌어 안겨왔다.

다음날 나는 깜짝 놀랐다. 파철수집총화에서 그
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던것이다. 세포비서아바
이가 나에게 실례를 든 주인공이 바로 중국이 아버
지였다. 그는 미달한 백그람을 수집하려나갔다가
파철더미가 눈에 띄우자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그것
을 모두 실어왔다고 한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중국
이 아버지의 목은 자라목처럼 어깨속으로 기여들어
가있었다. 그러나 내가 놀란것은 그때문만이 아니
다. 경쟁총화에서 나까지 칭찬을 받았기때문이다.
칭찬이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것은
아니다. 그때의 내 경우가 그러하였다. 나는 남들보
다 특이하게 잘한것이 없었다.

남들처럼 계획량을 했을뿐이었다. 그런데도 《량
심적인 사람》, 《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신경을 자극했지만 특히 《표범
식동무처럼 영미동무도...》라는 말이 불쾌감을 자
아냈다. 어쩌서 나를 그 사람과 나란히 놓는가? 그
게 그리도 재미난가?

나는 아닌보살하고 앉아있는 세포비서아바이한
테 눈총을 쏘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나운 나의 눈
길에 의미심장한 미소로 대답하였다. 웃는 낮에 침
을 뱉으랴. 할수없이 피가 나도록 입술만 깨물었다.

그후부터 중국이 아버지는 여러면에서 칭찬만 받
았다. 물론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세포

비서아바이의 영향때문이라.

어떤 사람들은 당조직에서 긍정감화교양을 한다
느니, 제버릇 개주겠는가, 얼마 못가서 도루메기가
될거라는 등 중국이 아버지에 대해 제나름대로 입
방아를 찼었다. 나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
으로 동감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인차 그런 말들이
물벼락맞은 불찌처럼 사그러졌다.

《사람을 나쁘게만 보면 못쓰네. 새길에 들어선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말정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
나.》하고 세포비서아바이가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그 후부터는 오히려 모두가 중국이 아버지
를 진심으로 위해주었다. 내가 다 무안해할 정도로
...

하지만 일은 내 예상대로 번져졌다. 지어먹은 마
음 사흘 못간다고 하지 않는가. 얼마후부터 그는 작
업총화때마다 오후 첫 작업시간에 계속 늦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번 비판을 받으면 하루이틀쯤 쯤
채식하는척 하다가 다시 도루메기가 되곤 하였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위안하였
지만 그래도 그가 비판을 받으면 내가 더 부끄러웠
다.

그러던 어느날 세포비서아바이가 점심시간에 나
를 찾아왔다.

《영미동무, 퇴근길에 유치원에 들리곤 하오?》

《예, 아이와 함께 집에 돌아가곤 합니다.》

《이제는 다 큰 아이인데 집까지 혼자 가게 하
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이 말에 나는 어안이 병
병 해졌다.

《그래야 아이한테 자립성이 생기오.》 하며 아바
이는 의아해하는 나에게 싱긋 웃어보였다.

세포비서아바이가 어쩌서 갑자기 우리 중국이한
테 관심을 가질까? 정말 풀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후날에 야 나는 중국이 아버지가 점심시간마다 유
치원에 가서 남몰래 중국이를 보고 오느라고 오후
작업에 늦어 지군하였으며 그래서 아바이가 나를
찾아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후 나
는 아바이의 행동을 나에 대한, 정확히는 우리 문제
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하였다.

4

내가 어쩌서 그를 일생의 길동무로, 마음속의 기
동으로 택했을가? 눈물과 후회속에 나는 때없이 자
신에게 묻곤 하였다.

나 역시 처녀시절에는 다른 처녀들처럼 꿈도 많
았고 리상과 포부도 컸다. 청춘남녀들의 사랑을 그
린 소설과 영화를 보며 가슴들먹이는 멋진 사랑을
꿈꾸었고 그 공상속에서 가정의 단란한 맛에 한껏

도취되어보기도 하였다. 물론 공상은 공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지만 나에게 차례진 현실은 공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를 처음 알게 된것은 입직하여 처음으로 참가한 청년동맹초급단체회의때였다. 성이 표가여서 유표한것도 있었지만 보고서의 결함측면에서 안걸리는 조항이 하나도 없었기때문이었다. 더더욱 놀라운것은 회의에 참가하지조차 않았다는것이였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는가! 그러나 청년동맹회의는 물론이고 종업원 총회는 무슨 회의든 그가 없으면 보고서의 결함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을 때 호기심은 사라졌고 그에 대한 나의 표상역시 다른 사람들과 일치해졌다. 공장의 영예게시판 자리를 남에게 양보할 줄 모르는 나에게 있어서 그는 관심밖의 존재로 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내 생활의 길목을 떡 막아나섰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사랑의 불길》을 하였다. 열번씩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배심이었다. 나 역시 그 못지 않게 완강한 방어를 하였다. 이 《전쟁》은 2년이나 지속되였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활 불타올랐다. 차츰차츰 내 가슴속에는 그의 열정에 대한 탄복이 찾아들었다. 물론 어느 총각이든 나와 가깝게 지내는 기미만 보이면 찾아가서 못나게 군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끝끝내 내 심장에 불을 달았다.

우리의 심장이 합쳐진 날은 레사로운 날중의 하루였다. 그때는 우리 공장에서 공무동력직장을 꾸릴 때였다. 공무동력직장을 꾸리는데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것은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골재였다. 우리 청년동맹이 이 과업을 도맡아안았다. 직중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동맹원들이 골재채취에 떨쳐나섰다. 강가에 천막을 치고 숙식하였다. 청춘의 힘을 시위하자고 모두가 욱욕하였다. 작업능률을 내기 위해 남녀 2인조를 여러조 무어가지고 조별경쟁도 조직하였다.

공교롭게도 나는 그와 한조가 되였다. 우연인가 아니였다. 나와 한조가 되려고 그가 《막후공작》을 하였던것이다. 그는 꼭 1등을 하자고 하면서 어느때없이 성수가 나서 결싸게 일을 제겼다. 아마 사랑하는 처녀앞에서 다른 총각들에게 지고싶지 않은 승벽때문이었을것이다. 그러건말건 나는 수격수격 자기 몫을 해나갔다.

그러던중 어느날 나는 찬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드러누웠다.

《내가 동무뭇까지 하겠으니 마음을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하오.》 하며 그는 나를 억지로 천막에 남겨두고 혼자 작업장으로 나가군 하였다. 《정성이

지극한 면회》에 대해서는 더 쓰지 않겠다. 내 병은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나는 우리 조의 계획을 혼자서 하느라고 혈끔해진 그의 모습을 보기가 민망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청년동맹비서에게 우리 조의 계획을 좀 조절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성을 냈다.

《그래 내가 그렇게도 시시해보이는가?》

나는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눈이 휘둥그래진 채 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내가 그렇게도 사내같이 안보이는가?》

《?》

《사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오. 처녀들한테는 미를 가지고 론하는것이 실례라면 총각들한테는 자존심을 가지고 론하는게 실례란 말이요.》

《제가 뭘 어쨌다는거예요?》

《동무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있다는건 나도 아오. 하지만 똑똑히 알아두오. 난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성미요. 1등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한단 말이요.》

《전 동무를 생각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뭐? 아직도 날 놀려대겠어?》

순간 그의 눈에서 불이 번쩍하였다. 겁이 덜컥 났다. 무지막지한 그의 주먹숨씨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던것이다. 그날밤 나는 온밤 잠들지 못했다. 사실 그가 원래 근면한 사람이라면 심본 그럴수 있다고 리해했을것이다. 직장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않던 그가 어려운 이 작업장으로 솔선 나온것은 사실 나에게 다른 총각들이 범접 못하게 《보초》를 서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게 자존심과 무슨 상관이란? 과연 저런 사람과 사는 녀자한테는 어떤 운명이 차례질까? 그래도 사내라고 제법...)

그러나 그는 우리 조를 끝내 1등으로 만들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동무들을 통해 그가 매일 혼자서 야간작업을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저 사람한테 과연 저런 측면도 있었던 말인가.

조별경쟁총화가 있던날 저녁식사때 부르튼 그의 입술과 손가락마다 천쵸박을 동여맨 험한 두손을 보노라니 자책감이 들었다. 미안한 감정과 함께 무엇이라고 딱히 이름지을수 없는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그를 찾아가 사죄를 하게 하였다.

그는 이윽도록 나를 지켜보다가 길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난 내가 한번 하겠다고 결심한 일은 무조건하는 성미요. 이 점만은 똑똑히 알아두오.》

《예.》 나는 어색한 이 자리를 한시바삐 뜨려면 그의 말에 덮어놓고 수긍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죄하러 온 처지에 무슨 말을 더하랴. 말

을 했겠자 언질이나 줄것이 뻔했고 또 그와 할 말도 없었다. 더우기 처녀총각이 한밤중에 오래 만나면 뒤말이 좋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겠는지도 이젠 짐작하겠구만.》

《예.》 나는 자기 생각에 오히려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음순간 그 말의 의미를 음미해보고 난 나는 푸들쩍 놀랐다. 나는 자신에 대한 수치와 창피, 대방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빨강게 상기된채 그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내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엄엄한 그의 어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입가에 장난 꾸러기같이 보이는 천진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미소가 어린 그 얼굴은 달빛을 받아 매혹적으로 보였다. 물론 그리 크지 않은 두눈에 단호한 빛이 없지 않았다. 나는 그때의 그 얼굴표정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사나이의 얼굴도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 그때의 그가 바로 그러했다. 나는 가슴속에 쌓았던 장벽이 움쉴움쉴거리는감을 느꼈다.

그날밤 우리는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푹 푹한 주제가 없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나로 하여금 한 사나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후 공장에 돌아와서도 우리한테는 이런 《밤시간》이 자주 반복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우정에 불과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우정으로 그를 대하였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우정이 사랑의 시작이었다.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지 몇달 안되었을 때 뜻밖에도 그의 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직장사람들과 함께 조상을 갔다. 그런데 상제인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아연실색하였다.

《이렇게까지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을수 있는가.》

누구라할것없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수 있을까?) 나 역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데 잠깐 갔다오겠다고 하면서 나갔다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해도 어머니와의 영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수 있는가.

밤이 퍼그나 깊었을 때야 그가 돌아왔다. 허둥지둥 들어서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다. 비를 맞은것처럼 땀에 화락히니 젖은 그는 두손에 보기만 해도 입이 뻗어나는 시퍼런 감을 몇알 들고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감을 제일 좋아하였다.

그는 두무릎을 꿇고앉아 제상에 감을 올려놓았다. 부들부들 떠는 그의 손의 박자에 맞추어 눈에서도 후두둑 눈물이 방울져 쏟아내렸다.

《어머니, 날...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마침내 그는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을 하였다.

피멍이 지도록 가슴을 두드리며 오열을 터뜨렸다. 자기의 심장을 뽑아낼것처럼 가슴을 쥐어뜯었다.

나는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그가 우는것을, 사나이의 진짜 울음을 처음으로 목격하였다.

《범식동무, 진정하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있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소. 내가! 아-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혼자 어떻게 살라는거요. 어머니-어머니!-》

그는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방바닥에 이마를 짓조으며 몸부림쳤다. 이마를 짓조을 때마다 방바닥이 드르륵 울고 제상의 감알들까지 태질하였다.

《범식동무, 용기를 내세요. 왜 혼자라고 그래요. 동무들이 있고 집단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를 건잡지 못했다. 절망에 빠져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은 나까지도 자기를 건잡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그의 팔을 부여잡고 흔들며 안타깝게 말했다.

《범식동무, 진정하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제가 있지 않나요.》

다음순간 나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과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가? 그러나 나의 심장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메아리쳤다. 《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있지 않나요...》

그후 나는 이 말을 지켰다. 동정과 순간의 흥분때문이였는가? 물론 나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나의 눈앞에는 골재채취장의 달밤과 시퍼런 감알들이 떠오르곤 한다. 바로 그것이였다. 그렇다. 동정도 순간의 흥분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를 사랑했다. 나도 모르게 사랑했다. 비록 어두운 구석에서 방황하는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의 인간됨을 사랑하였다. 그에게는 흠이 많았다. 그러나 사나이다운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줄도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짝이 기운다고 우리의 사랑에 혀를 찼다. 그러나 나는 모든것을 무시하였다. 오로지 열정, 사나이다운 그의 열정에 이끌리었다. 그리고 그의 뜨거운 열정에 불타버리는 자신이 기쁘기만 하였다.

5

우리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았다. 내가 그와 결혼식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온 공장이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 우리 집안은 물론이고 일가친척들과

동네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정말 영미가 그 《표범》과 결혼 한단 말인가? 너도나도 찾아와 나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누구라할것없이 나에게 충고를 주었다.

나는 난생처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보았다. 지어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던 친한 동무들까지도 이 일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와 한 날한시에 공장에 입직하여 우정을 두터이 한 촌실이까지도 이렇게 말했다.

《정신이 나가지 않았니? 네 인물에 뭐가 모자라서 그런 사람과...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이니 나의 부모들이 어떠했겠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을것이다. 분노한 아버지가 집안에서 우뢰를 터뜨리면 어머니와 나는 비를 쏟았다. 어머니는 속상해서 울었고 나는 안타까워서 울었다.

(과연 내가 이 동무와 일생을 같이해낼수 있을가?)

모두의 공격은 때없이 이런 생각이 갈마들게 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 자신을 타매하며 우리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애써 지켰다. 이러면 안된다. 의문은 사랑이 아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주저하는가,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고상하고 아름다운 만족한 사랑이라는것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사랑이 차례지는것은 아니다, 사랑은 가꾸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꼭 꽃으로 핀다, 나는 나의 사랑을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가꾸겠다, 가정을 이룬 다음에야 옳 바른 길에 들어선 남자가 이 세상에 한둘인가!

그의 홀어머니마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우리를 축복해줄 사람이 그의 집에 없었다. 그러나 가정생활이 하루하루 연장될수록 나의 기대, 나의 희망 나의 꿈은 점점 허물어져갔다. 결혼초기에는 단란한 맛이 없지 않았다. 그도 일시적이거나 일에 열중하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것이였다. 그는 켜하면 출근하지 않고 총각때 휩쓸려다니던 동무들과 밀려다니며 술과 놀음, 싸움질로 하루하루를 지나보냈다.

그때마다 나는 다른 집 세대주들을 생각하였다. 모두가 그 나이에 당원이 되어 얼마나 떼떽하게 살고있는가. 당원은 못되더라도 말썽이나 부리지 않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사람들은 흔히 안해를 《내무대신》이라 한다. 그만큼 가정에서 차지하는 안해의 지위와 역할이 커서 이리라. 하지만 그것도 어떤 사람의 안해로 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것 같다. 나는 《내무대신》이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그는 두세 마디안팎에 성을 냈고 지어 주먹까지

내두르곤 하였다.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슨 생각인들 안했고 무슨 방법인들 안써보았겠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다시는 이런 과거를 되풀이할수 없다. 충국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모질게 먹자...

어느날 나는 퇴근길에 연을 띄우며 노는 충국이를 보게 되었다.

《어머니, 좀 보라요. 멋있지요?》

연끈을 꼭 부여잡은 아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다.

《응, 정말 멋있구나.》

아들애의 웃음은 어두운 내 마음을 잠시나마 밝게 해주었다.

충국이는 달리던 자세로 내 손목을 잡아끌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 달렸다. 연은 우리를 따라오며 점점 높이 날았다.

《어머니, 더 높이 날아요.》

《그래, 더 높이 나누나.》

오래간만에 처녀시절처럼 달려보았다. 인차 숨이 가쁘으나 마음은 흥그려왔다.

《누가 이 연을 만들어주었니?》

《저기-저 아저씨가.》

아들애는 왼손으로 마을 동쪽을 가리켰다. 아들애의 손을 따라 눈길을 주던 나는 뚝 굳어졌다. 방금전까지 얼굴에 파여났던 웃음꽃이 시들어버리는것을 자기로서도 똑똑히 느꼈다.

그 사람이였다. 높이 날아올랐던 연이 흔들흔들거리며 가랑잎처럼 땅바닥을 향해 내려왔다.

《엄마, 또 달리자.》

충국이는 점점 내려앉는 연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내손을 잡아흔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마침내 연은 충국의 발치에 코를 구겨 박았다.

《엄마, 또 달리자.》

충국이는 발까지 동동 구르며 칭얼댔다.

《됐다. 이젠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충국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싫어, 싫어, 나 연가지고 혼자 놀래.》

충국이는 바줄당기기를 하는것처럼 몸을 뒤로 젖히고 두다리를 버티며 떼를 썼다. 그리고는 간절한 눈길로 그가 서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아들이나 나보다도 그에게 정이 더 끌린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충국-아, 이런걸 가지고 놀면 못써.》

나는 연을 빼앗아서 와락와락 찢은 다음 그가 서있는 쪽을 향해 휘 내뿔었다.

《내 연, 내 연...》

충국이는 눈물을 흘리며 흩어진 연조박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다짜고짜 아드애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때를 쓰는 중국이의 엉덩이를 뒤편 제박았다. 때리기는 아이를 때렸지만 아프기는 내가 아팠다.

(아무래도 결판을 봐야겠다. 애를 가지고 우리사이의 관계를 희롱하려 들다니. 천만에! 당신은 잘못 타산하고있어요.)

나는 눈앞에 떠오르는 이죽거리는 그의 얼굴을 쏘아보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지금까지 그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해본적이 없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교양 보다도 자기의 놀음과 술에 더 마음을 썼다. 지금 그가 중국이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나를 목표로 한 가식적인 사랑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모진 너자라고 할것이다. 결판을 내자! 너는 미룰수 없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나는 그를 찾았다. 직장안을 발각 뒤졌으나 그가 보이지 않았다. 어데 갔을가? 생각gal아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혼자서는 찾아낼 재간이 없었다. 불쑥 춘실이 생각키웠다. 그래도 춘실한테 물어보는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춘실아, ... 그 동무... 못보았니?》

친한 사이였지만 왜서인지 쑥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춘실은 한순간 어리둥절해하였지만 내가 어색해하자 알만 하다는듯 인차 고개를 끄덕거렸다.

《중국에 아버지 말이니?》

나는 속마음을 제격 알아주는 춘실이 고마왔다. 역시 친구는 친구로구나! 하지만 춘실도 그의 행처를 몰랐다. 나는 맥없이 돌아섰다. 이때 춘실이 나를 불러 세웠다.

《가만, 영미야. 유치원에 한번 가봐라.》

《?!》 왕청같은 말에 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넌 중국이 아버지가 왜 오후 첫 작업시간마다 늦는지 아직도 모르니?》 하고 말하는 춘실의 어조에는 어느정도 나무람이 실려있었다.

순간 머리속에서 무엇인가 펑-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내달렸다. 춘실의 짐작이 옳았다. 그는 유치원마당에 있었다.

아, 그래서 세포비서아바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구나.

그는 유치원마당에 있는 쇠그네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그를 향해 갔다. 가슴 한구석이 알찌근했지만 결판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 감정을 이겨 냈다.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그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그는 내가 다가오는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열중하고있었다. 호기심에 끌려 나는 처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갔다. 허나 몇발자국 못가서 발이 땅에 얼어붙었다. 그다음은 저도 모르게 가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쇠로 만든 그네줄의 편결부위에 기름을치고 있었다. 설마? 믿어지지 않아 두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틀림없이 그였고 틀림없이 기름을치고 있었다. 아니야, 저 물인정한 사람이 절대로 그럴수 없어!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나의 반박을 단호하게 부정하였다. 그는 자기 생의 전부인것처럼 그 일에 열중하고있었다. 기름을 한번 치고는 그네를 흔들어 보고 또 한번을 치고는 미타한듯 머리를 긁거리며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나도 이 그네의 아찔러운 마찰소리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아드애막 타는 그네가 아니라 유치원아이들모두가 타는 그네였기에 그 소리를 무심히 들었다. 그런데 이 어머니조차 무심히들은 그 소리가 그의 마음에 걸렸단 말인가.

과연 이것도 가식이라고 할수 있는가. 가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세심하고 다심하고 진실하지 않는가.

이윽고 그는 이마의 땀을 뺨 문지르며 허리를 쑥펴고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아, 환히 빛나는 저 얼굴, 그것은 골채채취장의 잊을수 없는 그 달밤에 보았던 그 얼굴이었다.

별안간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불쑥 솟구치며 눈곱이 쿵 쭈서났다. 온몸의 맥이 쑥 빠지며 방금전까지의 서슬무르던 기상이 달아났다. 나는 저도 모르게 한발자국 씩 뒤걸음질쳤다. 신음소리가 이발째음으로 새어나왔다. 다급히 입을 감싸쥐었다.

(이보세요. 왜 자꾸 제마음을 든장절하나요. 이거야 원래의 당신모습이 아니지 않나요.)

6

드디어 나에게 그와 새 출발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와 결혼할 때는 그토록 나를 말렸던 춘실이까지도 그런 권고를 하였다. 그가 새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런 충고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다.

새 출발? 말은 쉽다. 그 사람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있을까? 나 역시 그 사람들 못지 않게 그런 말을 할줄 안다. 그러나 말보다 힘든것이 행동이다.

나에게도 새 출발을 해보려고 생각했던적이 있다. 아드애가 태어났을 때 것처럼 환하던 그의 얼굴을 보며 이제는 아버지구실을 하기 위해서라도 새 출발을 할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품었었다.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짓던 일이 눈에 선하다.

《여보, 전 충국이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골머리를 싸쥐고 이름을 짓느라 킁킁거리는 남편을 정겹게 바라보며 말했다.

《충국이라.》

남편은 한번 음미해보고는 무엇인가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짓자요. 저나 당신이나 지금껏 나라덕에 살아왔지만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앞으로 이 애가 아빠엄마는 나라앞에 무슨 일을 했는가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애만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래서라도 전 그렇게 이름을 짓고싶어요. 우리의 결심과 이 애의 앞날을 담아서...》

남편은 내 말에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얼굴에는 자책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충국이라 나라에 충성하란 말이지. 좋소. 당신의 의향대로 하지요.》

그는 결심을 내릴 때마다 하군 하던 습관대로 오른 손을 획 짓고나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다음순간 나와 눈길이 마주친 남편은 어쭙게 웃으면서 웅근 담배를 끊어 재떨이에 버렸다.

《우리 <대장> 앞에서는 담배를 못피운다는걸 그만 깜빡 잊었됐군.》

이어 그는 아들애를 번쩍 추켜들었다.

《여보, 내 보기엔 이 애는 당신속을 태울것 같지 않소. 이보십시오. <대장님>, 엄마속을 태우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들애를 안고 한바퀴 빙그르르 돌며 껴안았다. 그러나 나는 울었다. 그 말이 아들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었기에 울었다. 그와 살면서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았다. 누구나 자기 자식앞에서는 깨끗해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충국이의 출생도 그에게 인생의 기쁨은 주었지만 삶의 새 출발은 가져다주지 못했다.

가을에 지내지 못한 제사를 봄에 지내겠는가. 지금껏 새 출발을 못한 그가 과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오늘에 와서 새 출발을 할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 그는 새 출발을 시도하고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출발로 끝나고 말것이다. 새 출발을 한 그의 인생은 속죄의 한생으로 될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와 함께 어깨걸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가? 그의 속죄의 무거운 짐을 같이 메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충국이고 그 짐을 함께 걸머지여야 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그래선 안돼!

랭철한 리성이 내 발을 꼭 얹어매놓을수록 모진

인정은 나를 더더욱 그에게로 떠밀었다. 하여 그가 개조되어갈수록 모두가 기뻐했지만 내 마음만은 모순과 방황속에 더 괴로와만 갔다. 생각을 그렇게 해서인지 사람들의 눈길도 다르게 느껴졌다. 그에게는 동정의 눈 길을, 나에게서는 뻥뻥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것만 같았다. 지어 촌실의 눈길까지도 그렇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졌다던 지금은 내가 그렇게 되는것만 같았다.

7

《엄마... 왜 자꾸 우나?》

왜서인지 요즘은 때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그때마다 충국이가 침울해서 이렇게 묻곤 하였다. 풀이 죽어가지고 저도 눈물이 글썽한채 내 품에 안길가 말가 저어하며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모습...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울고싶어서 운단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얼버무리며 아들애를 껴안고 애써 눈물을 달래곤 하였다. 그러나 아들애의 깨끗한 눈동자에 비길 자신의 모습이 자꾸 두렵기만 하였다.

충국이 아버지는 확실히 달라져갔다. 모든 면에서 새 사람이 되어갔다. 물론 한 측면에서만은 달라지지 않았다. 축 처진 어깨만은 여전하였다. 녀인의 손이 가지 않아서인지 더 후술곤해보였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많은것이 달라졌다는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관심이 큰 세포비서아바이의 표정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마치 만사름을 놓은것처럼 아바이의 얼굴은 날로 환해져갔다. 그리고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에서 정이 느껴졌다. 지어 나의 태도까지도 달라져갔다. 서슬푸르던 뻥뻥함이 측은한 동정으로.

충국이 아버지! 왜 좀 더 일찍 이 길로 못들어섰나요. 이따금 내 가슴속 밑바닥에서는 이런 메아리가 울려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하소연이였다.

어느날 아침출근길에 공장정문에 들어서던 나는 공장 속보관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느때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보관앞에 모여 웅성거렸기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향했다. 나는 운뭉이 굳어졌다.

《장하다! 표범식동무 이달 계획을 맨 선참으로 초과 완수! 련일 혁신!...》

뗏을 부리며 휘갈겨쓴 직관원의 글씨는 자기 모양 그대로 내 머리를 휘저어놓았다. 나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직관원이 품을 들어 속보에 그린 충국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도 방불해서 마치 그를 마주

하고 선것같은 심정이기때문이었다.

좀 다른점이 있다면 현실의 그와는 달리 그림속의 그는 환히 웃고있었다.

속보판앞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야, 이 친구 괜찮아졌는데.》

《확실히 <표범>은 <표범>이었구만.》

《이런게 진짜 사내야.》

그 말들이 꼭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들인것만 같아 더는 그 자리에 있을수 없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급급히 자리를 떴다.

이날은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충국이 아버지께 대한 생각이 내 머리를 꼭 붙잡고 좀처럼 놓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공장속보에 때로 주의를 돌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 더우기 직장일에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평범한것으로 받아들인다. 나 역시 그러했다. 어쨌든 공장속보가 국가표창이야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나는 놀랐다. 다른 사람이 아닌 충국이 아버지가 속보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인것이다. 비록 소박한것이긴 해도 공장속보 역시 사회와 집단의 평가가 아닌가. 사회의 비난을 받던 그가 오늘은 평가를 받았다. 왜서인지 눈물이 나왔다. 내 머리속에 막연 하게 자리잡았던 그의 새 모습이 자리잡으면서 알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것이다.

그날저녁 춘실이가 내 손목을 잡아끌었다.

《영미야, 함께 가서 충국이 아버지를 축하해주자.》

마음은 어서 가자 재촉했지만 끝내 따라가지 못했다. 마음이 산란해서인지 퇴근길에 오른 발걸음도 향방없이 헤매었다. 여느때는 20분이면 오던 집까지 두시간이 나 걸려서야 당도했다.

웬일인지 집안의 분위기도 전갈지 않았다. 아버지는 뻑뻑 소리가 날 정도로 담배를 빨고있었고 어머니는 충국이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눈귀에 맺힌 눈물을 짖어내고있었다. 여느때같으면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겠지만 오늘은 내 심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호기심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까지 입을 다물고있으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동안 지나서 마침내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부엌에 내려가서 고급술을 한병 가지고 다시 방으로 올라왔다. 아버지가 속이 타할 때마다 어머니가 술상을 차리곤 하였기때문에 나는 그러는 어머니를 무심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는 그 술병을 아버지한테가 아니라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어안이 병병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늘 충국이 아버지 생일이라고 하면서 너의 직장에서 찾아왔댔다. 집에 가보거라.》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가슴이 활랑거렸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눈물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나보다도 어머니가 먼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울음섞인 어조로 푸념절반, 타령절반을 하였다.

《모든게 다 저 분수없는 령감때문이다. 령감이 정신이 나가도 정도가 있지... 그래도 제팔 사위인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소...》

아버지는 한번 한마디 못하고 담배연기만 힘껏 토했다. 마치 한숨을 쉬는것처럼...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을것이다.

내 가슴은 아프다 못해 쓰렸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나는 밤길을 정처없이 헤맸다. 한참 걷다가 발길을 멈추니 《우리 집》 대문앞에 와있었다. 내 머리에는 정신이 없었지만 발에는 정신이 있었던것 같다. 집안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었다. 노래소리들도 울려왔다. 다른 사람들의 노래는 가려듣기 힘들었지만 춘실이의 노래는 대뜸 알아들을수 있었다. 춘실이가 자기의 지정곡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렀기때문이다.

나는 홀로 서있었다. 내 보기에다 자신이 불쌍해 보였다. 집주인이 문밖에 서있다니... 하늘의 별들도 그러는 나를 보기가 민망스러운지 계속 눈을 껌뻑거렸다. 이때였다.

《영미동무가 아니요?》

나는 흠칫 놀랐다. 뜻밖의 인기척에 심장이 쏠아들었지만 귀에 익은 익숙한 목소리에 인차 안정을 찾았다. 세포비서아바이였다...

《함께 걸자구.》 이렇게 말하며 아바이는 나를 들메나무아래로 이끌었다.

나는 난처해할 내 립장을 생각해주는 아바이가 고맙기 그지없었다. 그날 아바이는 나를 친절집까지 바래워주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길은 아바이가 내 마음을 《우리 집》 까지 바래워준 길이였다.

오는 도중 아바이는 나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이 말만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나도 영미동무의 심정이 리해되오... 물론 범식동무는 한때 길을 잘못 들었댔소. 범식동무뿐 아니라 신념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기 궤도를 리탈했댔지. 그러나 영미동무도 보는것처럼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이 그들모두의 눈을 새롭게 티워주었소.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을 더 굳게 가졌단 말이요. 그들이 지금 자기의 일시적인 과오를 눈물로 후회하

며 얼마나 분발하고있소. 범식동무만 놓고봐도 얼마나 달라졌소. 우리 당은 아무리 큰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할 때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소. 오히려 더 귀중히 여기고 품에 안아 내세워주소.》

이날밤 나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눈물로 베개 깃을 적시었다. 아침에 보았던 공장속보가 한시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환히 웃고있는 중국이 아버지의 그림을 현실과 다르게,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오늘 날 중국이 아버지는 웃고있다. 사회와 집단, 동지들의 사랑속에, 축복속에 환히 웃고있다. 오히려 울고 있는것은 나다 이제라도 다시금 그와 새 출발을 하자. 아니, 이제는 때가 늦었다. 그가 늦은것이 아니라 내가 늦었다. 새 출발은 그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 새 출발! 하지만 그가 제일 어려워 할 때 그를 멀리했으니 무슨 체면으로...

8

얼마후 우리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강원도토지정리전투장으로 달려가는 탄원자들에 대한 환송모임이 있었다. 남들처럼 탄원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던 나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중국이 아버지가 탄원자들속에 있었던것이다. 너무도 뜻밖이었다. 모두가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서있었지만 그는 꽃목걸이의 꽃송이를 세기라도 하는것처럼 고개를 꼭 떨구고 서있었다.

환송모임이 끝난후 모두가 역으로 배웅을 나갔다. 어떻게 할것인가? 나는 멀어지는 인파를 바라보며 수십번 곱씹어 생각하였다. 내가 역에 나가면 누구나 다 그를 바래주러나왔다고 생각할것이다. 꽃목걸이를 걸고도 고개를 떨구고 서있던 그의 모습이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바래주는 일가친척 하나 없이 홀로 역두에 서있을 외로운 모습도 떠올랐다.

아니다. 바래주자. 그가 법적제재를 받고 떠날 때는 바래주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당의 구상을 관철하는 장한 길로 떠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끝내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수 없어 어색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때 누군가 나의 등을 떠밀었다. 돌아보니 세포비서 아바이였다.

《자, 우리도 빨리 역으로 나가자구.》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것만 같은 아바이의 그 눈길에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코펜 송아지처럼 아바이를 따라갔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

웠다.

역구내는 환송군중들로 붐비었다. 탄원자들은 저마끔 가족친척들과 벗들에게 파묻혀있었다. 나는 울렁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의 모습을 찾았다. 보이지 않았다.

이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촌실이었다.

《나왔구나.》 비록 한마디의 짧은 말이었지만 나는 이 말에서 촌실의 모든 감정을 읽었다.

《범식동무는 어디에 잠깐 들렀다 오겠다고 하면서 이 집을 나에게 맡기고 갔어. 내가 찾아올테니 이걸 좀 들고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촌실은 내 손에 작은 가방과 커다란 꾸레미를 억지로 쥐여주었다. 삽시에 내 얼굴은 새 빨간 고추색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그러는 촌실이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촌실아! 정말이지 넌... 좋은 동무야!

나는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가방과 커다란 꾸레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다른 탄원자들도 내가 들고있는것과 꼭 같은 꾸레미를 들고있었다. 이 꾸레미는 공장종업원들이 성의껏 준비하여 준 지원물자였다. 거기에 나의 성의도 깃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도 어지간히 놓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다른 탄원자들이 메고있는 커다란 배낭이 나의 눈을 아프게 찢었다. 그 배낭들과 너무 나도 대조되는 작은 멜가방, 보기에다 작고 손맛도 가쁜한 가방, 나는 무의식중에 꾸레미를 내려놓고 가방을 열었다. 무엇인가 둔중한 물건이 내 뒤통수를 후려갈졌다. 남들이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얼른 닫았다. 눈앞이 희뿌예지며 하늘땅이 맞붙어 빙빙 돌았다. 가방안은 여름옷가지 한벌과 세면도구뿐이었다. 그리고 유리액틀에 끼운 우리 가족사진뿐이었다. 이 자그마한 가방도 채우지 못한 출장 짐이란 이것이 전부였다.

눈물을 흘치고 다시 가방을 열었다. 우리 셋이 찍은 가족사진, 사진속의 나는 새물새물 웃고있었다. 사진속의 자신이 막 미웠다. 아니, 현실속의 자신이 미웠다. 그래도 중국이 아버지는 이 작은 가방에 나와 중국이에 대한 사랑과 정을 안고 가는데 정은커녕 속웃하나 보태주지 못했으니...

안돼요. 중국이 아버지, 이렇게는 못가요. 이렇게는 못보내겠어요!

나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느끼며 내달렸다. 자신을 저주하며 정신없이 달렸다. 무슨 힘이 집까지 달려오게 했는지는 지금도 이상하다.

부모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랑곳없이 양복장과 장농을 벌컥 뒤졌다.

부엌과 창고도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한보따리 꾸진 다음 다

시 역으로 내달렸다.

허둥지둥 달리던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길옆에 있는 유치원쪽을 바라보았다. 순간 숨이 껍 막히며 머리에 이었던 보따리가 툭 떨어졌다. 중국이 아버지가 울타리에 붙어서서 유치원안을 들여다 보고있었던것이다. 먼 길을 떠나면서도 여느때처럼 녀인의 손이 가지 못한 그의 차림새가 심장을 아프게 꼬집었다.

유치원현관문에 못박혀있는 그의 눈길에서는 안타까움과 은근한 기대, 초조감이 확연히 알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한동안 바제이다가 결심을 내렸는지 단호하게 유치원마당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현관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서있었다. 잠시후 그는 고개를 버쩍 쳐들었다. 힘있게 발을 내디디었다. 허나 이번에는 한발자국도 채 걷지 못했다.

중국이 아버지, 어서 들어가세요. 아들을 만나보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끝내 되돌아서고 말았다. 별안간 그의 두눈이 번쩍 빛을 뿜었다. 나는 그의 눈길을 쫓았다. 그의 눈길이 가뭇은 곳은 바람에 소리없이 흔들거리는 쇠그네였다. 그는 허겁지겁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네를 부둥켜안고 자기의 불을 부비었다. 마치 중국이를 껴안기라도 한것처럼 세차게 오르내리는 그의 두어깨가 멀리에서도 똑똑히 보였다. 줄지어내리는 그의 눈물이 햇빛에 번쩍이며 예리한 비수마냥 내 가슴에 날 아와박혔다.

이윽고 다시 한번 유치원을 바라보고난 그는 중얼거리며 역으로 향했다. 나는 그 중얼거림소리를 들었다. 물론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똑똑히 들었다.

《내 아들이, 기다려다오!》

그는 술에 취한것처럼 비칠거리며 뛰어갔다.

당장 한열으로 쓰러질것만 같았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뒤로 돌아볼은 사람처럼 눈길은 유치원에서 떼지 못하였다. 아! 중국이 아버지-

나는 눈물을 짹짹 쏟으며 유치원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쉼쉼 자고있는 중국이를 들추어엮었다. 짐보따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내가 중국이를 데리고 역에 도착하였을 때 기차는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중국이를 질질 끌다싶이 하며 열차를 따라 달렸다.

환송하는 군중들이 차창마다에 껍 물켜있어서 변두리에서 땀줄수밖에 없었다. 무정한 기차는 점점 속도를 냈다.

나는 중국이를 내려놓고 혼자서 기차를 따라 어푸러지듯 달렸다. 차창들이 시야에서 언뜻언뜻 사

라졌다. 끝내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남들처럼 차창밖으로 손을 흔들 생각도 못하고 우두커니 앉아있었으리라.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중국이 아버지!-》

이 소리는 나의 입에서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메말랐던 심장이 펑- 터지며 분출한 부르짖음이었다.

마침내 열차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를 실고 나에게서 멀어졌다. 이제는 기적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춘실이 말했다.

《영미, 이걸 받아.》

무의식중에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던 나는 가시에 찔리우기라도 한것처럼 손을 가드라트렸다.

《우리 집》 열쇠였던것이다.

《중국이 아버지가 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구나.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잘 건사해달래.》

별안간 첫 사랑을 약속하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영미동무, 앞으로 나때문에 속을 많이 썩일거요. 그러나 한가지만은 믿어주오. 난 일생 동무만을 사랑하겠소.》

《저도 일생 동무만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정이 한길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모두 나때문이다. 첫 사랑때처럼 그를 믿었더라면, 그 믿음으로 그의 가슴속에 불을 지켰더라면 쓰라린 과거가 있었겠는가. 사내의 가슴에 불 하나 지피지 못한 내가 무슨 녀성이란 말인가! 나는 남편이 나와 중국이 한테 남기고 간 결심이고 믿음이 고 희망인 《우리 집》 열쇠를 꼭 틀어잡았다.

나들문쪽에서 세포비서아바이와 당비서가 의미심장한 눈길로 서로 마주보며 나에게 웃음을 보였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축복의 미소를 보내주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큰절을 드렸다.

이제와서 무엇을 더 서슴으랴!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 들어선 나는 열쇠를 남편처럼 껴안고 눈물속에 속죄하였다.

(중국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남편이 남기고 간 《사랑의 열쇠》를 눈물로 적셨다. 사실 나는 이 열쇠를 잃지 않을수도 있었고 또 얼마든지 제손으로 되찾을수도 있었다. 허나 그렇게 못했다. 동지애의 화원인 우리 사회, 서로 돕고 이끌며 한모습으로 사는 우리 사회에서 그이가 절대로 달리 될수 없다는 믿음이 없었기때문이다. 달리는 될수 없는 한모습, 그 모습이 되라고 떠밀어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사랑의 흐름속에서

충국이 아버지는 자기를 찾았고 나는 《생활의 열쇠》를 찾았다. 내 스스로가 버렸던 열쇠, 이 열쇠는 영원한 우리의 한 모습처럼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충국이 아버지에게 전보를 썼다.

《충국이 아버지, 부디 몸조심하세요. 집에서 충국리와 함께 기다리고있어요. 영미 보냄.》

전보문을 쓰고나니 무엇인가 부족한것 같았다.

그렇다. 그것이 부족하다. 그이한테는 지금 어제의 내가 필요없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미가 아니라 참사랑의 가치를 아는 새로운 길동무 영미가 필요한것이다.

나는 내 이름앞에 《안해》라는 글자들을 또박또박 새겨넣었다. 충국이 아버지, 난 영원히 당신의 안해예요. 이제는 당신이 마다한다 해도 영원히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어요!

채신소의 처녀는 다정하고 재미난 부부라고 생각했는지 눈가에 웃음을 담았다. 그래도 좋았다. 이 전보가 그이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사랑에는 어떤 감정들이 필요한가? 아마 이 물음에 사람들은 각이한 대답을 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믿음 하나면 된다고 웨치고싶다.

×

그때로부터 여섯달후 어느날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서던 나는 아들이가 내미는 한장의 전보를 받아 들었다. 전보문을 읽는 순간 머리속에서 무엇인가 웅웅거리며 귀가 멍멍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이게 사실인가?

나는 자신을 달랠 길 없어 전보장을 가슴앞에 꼭 감싸전채 행길로 달려나갔다. 누구든지 붙어잡고 이야기하고싶었다.

나는 끝내 길한복판에서 어린애처럼 울었다. 행인들이 이상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진 마을사람들이 근심어린 기색으로 하나둘 내 곁에 모여왔다. 어느새 누가 알렸는지 아버지와 어머니도 달려나왔다. 모두가 말을 건네지 못하고 내 입만 지켜보았다.

모두에게 말해주자. 그러나 그게 사실인가? 방금 전에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금 전보문을 확인했다. 두번, 세번 아니 수십수백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았다. 내 눈동자에 정으로 쫓아박았다.

《화선입당하였음. 충국이 아버지!!》

겨우 열석자밖에 안되었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져 전보장을 쥔 손이 빠근해났다.

(충국이 아버지, 정말, 정말 고마워요.)

나는 눈물에 젖은 전보장에 얼굴을 묻고 세차게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겠는가를 눈앞에 그려보았다. 순간 석달전에 남편을 찾아 갔던 일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때 나는 친정집 부모들이 잡아준 종자돼지를 통채로 이고 난생처음 먼 길을 떠났다. 연약한 나에게 있어서 통돼지는 힘에 부친 집이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 본 남편의 다리가 눈에 선하다. 충국이 아버지는 지금껏 나라를 위해 하지 못한 일을 이제라도 봉창하겠다고 하면서 날마다 24시간을 불도젤우에서 살았다고 한다. 밤마다 너무 피곤하여 졸릴 때면 눈에 치약을 바르고 그래도 졸리면 손으로 다리를 꼬집어 뜯고 그것도 안되면 송곳으로까지 다리를 찌르고...

나는 성한 곳 하나없이 온통 피멍투성이인 남편의 다리를 눈물로 적셨다. 그러나 그때 내가 흘린 눈물은 결코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다. 나는 지난 시기 싸움질을 해서 피멍이 들거나 피가 터진 남편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때마다 그래도 남편이라고 속이 알찌근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허나 그 시각 나에게는 그 피멍들이 모두 남편이 탄 훈장처럼 정겹게만 느껴졌다.

눈물을 짹 짹 쏟는 나를 어리둥절해서 지켜보던 충국이가 치마자락을 쥐고 품안으로 조심히 기여들며 물었다.

《엄마, 왜 또 우나?》

《기빠서 운다. 아버지가 당원이 되었단다.》

《당원이란게 뭐나? 영웅만큼 센거나?》

《응 영웅만큼 센거다. 너의 아버지는 영웅이다.》

《만세! 우리 아버지 만세!》

충국이는 두팔을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며 동무들이 놀고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말릴 사이도 없었다. 설사 그럴 사이가 있었다해도 그러고싶지 않았다. 저절없는 생각에도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다니는 다른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으랴.

충국아, 어서 가서 자랑하거라 땀땀하게, 긍지높이 웨치거라! 나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고 웨치거라! 이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합쳐서 크게 웨치거라!

물길둑에서

공 승 길

나는 지금 백마-철산물길둑우에 서있다. 하나의 강마냥 거대한 폭으로 산과 벌을 꿰지르며 뻗어간 물길...

이제 머지않아 이 물길을 타고 내 고향 간석지벌에 출렁출렁 맑은 물이 흘러들리라고 생각하니 절로 가슴이 설레인다.

아, 물!

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나는 왜선지 눈물부터 앞서곤 한다. 그것은 물과 관련된, 물때문에 피눈물 많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 서였다.

...어느적에 개간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나의 할아버지네들이 살던 간석지벌.

지금의 간석지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등짐으로 흙을 날라다 뚝을 쌓아 막은 손바닥만 한 벌아닌 《벌》이었지만 할아버지네로서는 명줄을 걸고 있던 목숨처럼 소중한 땅이었다.

그 《벌》은 물을 끄적어도 많이 먹는 《물배배기》이기도 했다. 소금기가 채 빠지지 않아 물을 며칠만 못먹으면 논바닥에 소금버캐가 하얗게 내돌고 벼들이 노랗게 《익어》가면서 초들초들 말라버리곤 했다.

그런데다 왜놈들이 차려놓았다는 수리시설이란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것이어서 물을 한번 대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게다가 생색내듯 어찌다 한번씩 보내주는 그 물값이 얼마나 비쌌던지 우리 할아버지같은 가난한 소작농들은 그 물을 쓸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농민들의 고혈을 2중으로 짜내기 위한 악착한 왜놈들의 착취수단이였다.

벼들이 노랗게 《익어》갈 때면 농민들은 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무심한 하늘을 저주했고 물이 고여 있을만 한 곳을 찾아 뛰어다녔다. 한웅배기의 물이나마 퍼서 타는 논, 아니 타는 가슴에 끼었어보자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웅덩이에 고인 물로 어찌 온 벌의 벼를 다 살려낼수 있었으랴.

뜨겁게 달아오른 사막에 떨어진 한방울의 물마냥

순식간에 찾아버리는 웅덩이의 물, 허지만 그 물에 자신과 온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었다.

오죽했으면 그때 나의 할머니가 웅덩이물을 남에게 떼울가봐 대낮에 옷옷을 벗고 물을 폼다고 했겠는가 그렇게 《미친》모양을 하고 물을 푸는 할머니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렇게 흘린 간석지사람들의 피눈물을 다 합치면 아마도 온 간석지벌을 다 적시고도 남았을것이다.

그렇게 피나게 퍼올린 물로도 온 간석지벌에 번져가는 《불》을 끌수는 없었으니.

바삭 말라버린 벼포기를 움켜쥐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하늘땅을 울리곤 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땅이였고 목숨이였다.

그래서 농민들은 쪼지게 가난한 살림에도 푼전을 모아 살찐 송아지를 샀고 그것을 목고에 메고 앵야 텡야 서글픈 가락을 뽑으며 기우제를 지내려 산으로 오르곤 했다.

어느해인가 나의 할아버지가 기우제를 지내려 송아지를 메고 산으로 오르던 그날에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낳았다고 한다.

산모에게 따끈한 미역국 한그릇 제대로 끓여주지 못하면서도 물을 위해 송아지를 하늘에 바쳐야만 하는 신세가 서러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였다.

할머니는 아들이 터치는 첫 울음소리조차도 《비야, 비야》하는 소리처럼 들려와 젖물릴념을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했다. 물바른 이 땅에 태어난 새생명이 간석지벌의 벼처럼 노랗게 시들고 말라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그처럼 손이 닳도록 밀고 또 빌었건만 하늘은 비를 주지 않았다. 구름 한점없이 푸르청청한 하늘을 저주하며 사람들이 돌리는 눈물에 이 땅이 젖어들었다. 그 몹쓸놈의 세상에서는 하늘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였다.

물에 대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온 간석지벌사람들의 숙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광복시켜주

시어서야 비로소 풀리 었다.

타들어가는 벌에 맑은 물이 소리치며 흘러들던 그날 간석지벌사람들은 저저마다 그 물속에 뛰어들어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다. 버려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죽지못해 살아가던 자기들에게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시고 것처럼 목마르게 고대하던, 하늘조차 줄수 없었던 생명수까지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눈물로 두물을 적시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할아버지는 그 생명수를 관리하는 관개관리소로 동자가 되었다. 더없이 소중한 그 물을 한방울이라도 아껴쓰라고 사람들에게 당부하곤 하였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관개관리소에 들어갔다. 양수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고향 간석지벌에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보내려고 아굴타굴 애를 썼다.

물이 귀하던 어제날의 일들이 옛말처럼 되어버리고 맑은 물이 넘쳐흐르는 땅에서는 알찬 이삭들이 설레이었다.

지난 세기 80년대 간석지건설자들이 간석지를 또 개간해냈다. 거의 한개 군에 맞먹는 면적으로 드넓게 펼쳐진 간석지벌, 그 벌에 생명수를 보장해주어야 했다.

아버지의 이마에 대천자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안타까이 뛰여다녔으나 워낙 물량이 제한되어있다보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물사정은 더욱 긴장되었다. 전력사정으로 양수기를 제대로 돌릴수가 없었다. 게다가 수십년래의 왕가물이 닥쳐들었다.

아버지도 나도 난생 처음으로 논바닥이 갈라터지고 벼포기가 말라드는것을 제눈으로 보았다. 땅이 아니라 우리 가슴이 타드는것만 같았다.

바로 이러한 때 백마-철산물길공사가 거창하게 벌어진것이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새롭게 변모된 이 땅우에 영원히 물걱정을 모르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백마-철산물길공사.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버지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고마와 밤 깊도록 눈물을 흘리며 물때문에 고생 많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하여, 이 땅에 깃든 사연에 대하여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늙은 몸이지만 술선 물길공사장에 탄원 하였다...

물에 대한 우리 간석지벌사람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안고 내 고향으로 뻗어가는 백마-철산물길.

가는 곳마다에 붉은기들이 바람결에 나뭇기고 힘찬 노래소리가 울린다. 흙밥을 퍼담고 빙그르르 돌아가는 굴착기, 맞들이를 들고 질통을 지고 성수가 나서 뛰여 다니는 돌격대원들...

그들모두의 가슴속에서는 이 땅이 새로운 전변의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하루라도 더 빨리 물길완공의 보고, 충성의 보고를 드리려는 열망이 용암마냥 끓고있을것이다. 어머니대지의 젖줄기마냥 거창하게 뻗어가는 새 물길.

이제 그 물길로는 푸른 물이 굵이치며 용용히 흐를것이다. 그 물이 흘러드는 땅에서는 영원히 그 어떤 가물도 모르고 풍작만이 이룩될것이다.

물이 풍족해야 쌀생산을 높일수 있다. 쌀이 있어야 국력이 강하고 국력이 강해야 그 어떤 원썬도 감히 범접을 못한다. 신성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강요 하려드는 미제와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갖은 꾀공이를 쓸어버리기 위해 우리 조국의 아들딸들이 물길을 일어간다.

경애하는 장군님 열어주신 이 물줄기가 있어 이 땅에는 세세년년 풍작이룬 난알이 설레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은 부강번영의 한길로 출달음칠것이다.

선군시대의 장엄한 물줄기여!

굵이쳐흐르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을 노래하며 연원토록 흐르라.

나는 그흐름에 나의 마음도 합치고싶어 물길건설자들에게로 발걸음을 옮겼다.